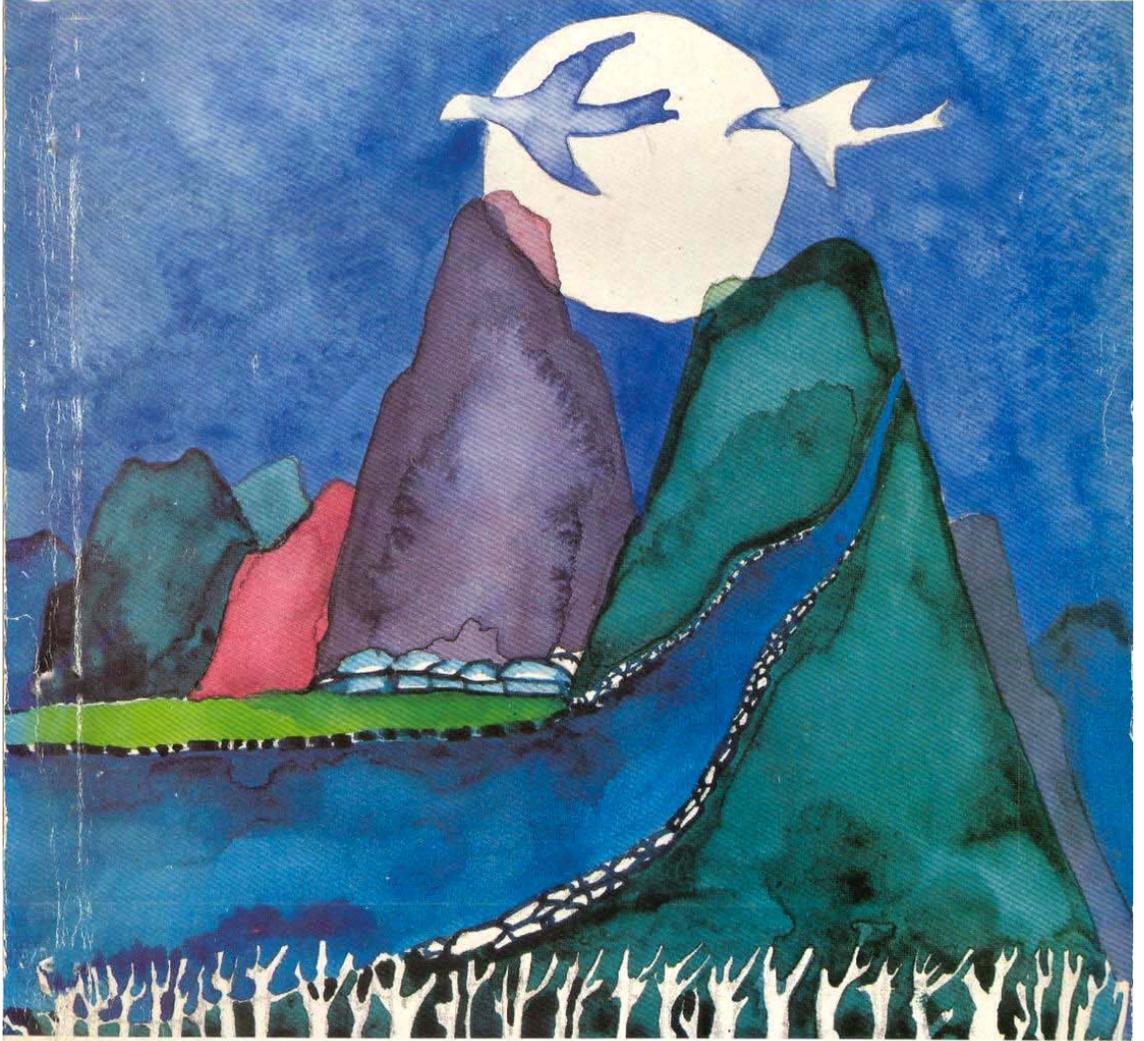


於斯夏



横城文化院

文 藝 中 興 宣 言

우리는 民族中興의 歴史的 轉換期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 겨레의 運命을 決定 짓는 根源的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意力이다. 藝術이 創造力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を 찾았을 때 나라는 흥한다. 新羅 統一의 偉大한 業績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證明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産을 開發하고 民族的 正統性을 이어 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천박한 頹廢風潮를 一掃하여 우리 藝術을 확고한 傳統 속에 꽃 피우고 우리 文化를 튼튼한 主體性에 뿌리 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榮光된 겨레의 來日을 위하여 價値意識과 史觀을 바로 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의 自主性を 함께 누리며, 곳곳 마다 文化의 殿堂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身의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文化의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들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룩할 것을 宣言한다.

1973年 10月 20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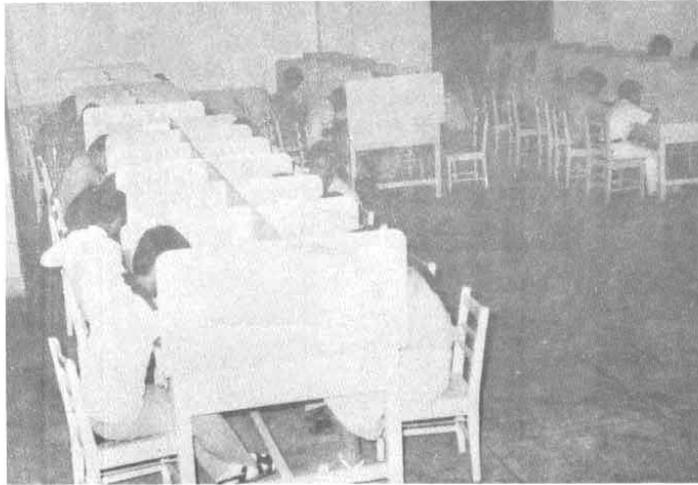
於斯夏

第二號

橫城文化院



황성 문화원 전경



황성문화원 부설 황성독서실



제 4 회 태 풍 문화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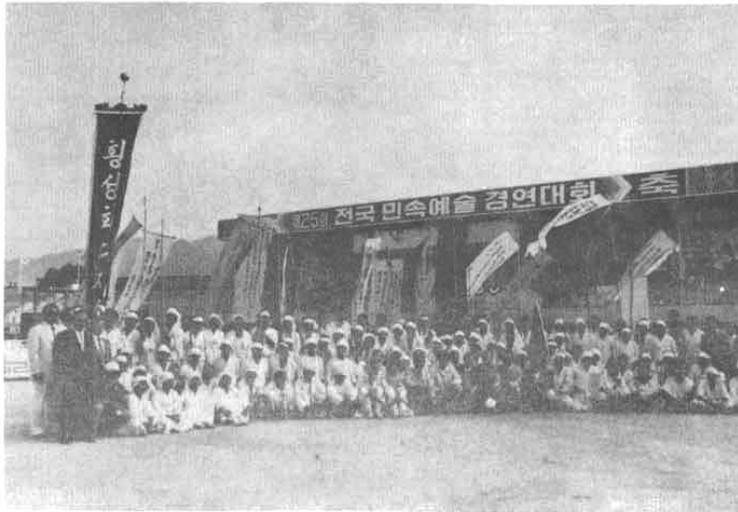
태 풍 문화 제 에 서 문 예 진 흥 선 언 문 을
낭 독 하 는 韓 重 熙 원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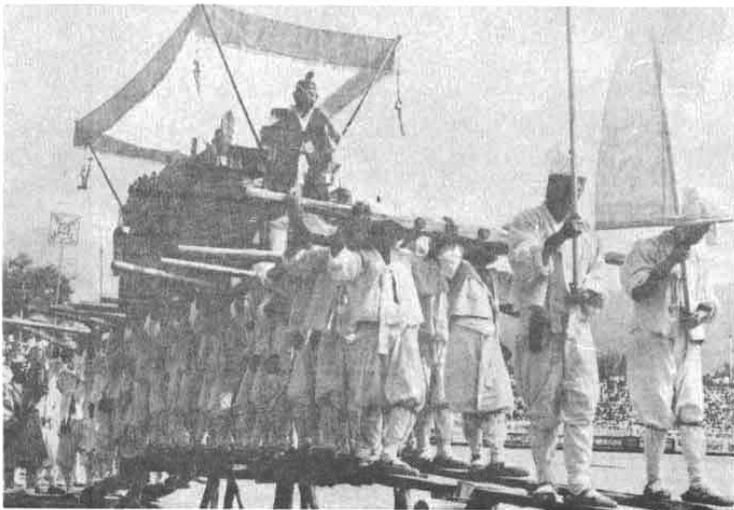
제 3 회 자모글짓기대회 및 학생 사생대회 동화대회



제 2 회 문학의 밤



제 25 회 전국민속 예술경연대회 「횡성 회다지소리」
<대통령상 수상>



「횡성 회다지소리」경연장면

橫城郡民憲章

우리 橫城은 우람한 泰岐山의 氣象과 悠悠히 흐르는 섬강의 精氣를 받은 고장으로 豐饒를 謳歌하며 人情을 나누면서 子孫萬代가 살아갈 永遠한 삶의 터전이다.

이땅에 사는 우리는 先烈의 드높은 抗日 救國 精神과 愛鄉心을 이어받은 자랑스러운 郡民으로서 創意와 예지를 한데 모아 살기좋은 새 橫城建設의 主人으로 身命을 다할것을 다짐한다.

첫 째 : 우리郡民은 항상 反省하고 부지런히 배워 참되고 바른 사람이 된다.

둘 째 : 우리郡民은 서로믿고 사랑하며 英才를 키우는 福된 家庭을 이룬다.

셋 째 : 우리郡民은 어른을 尊敬하고 이웃을 아끼며 웃음이 넘치는 마을을 이룬다.

넷 째 : 우리郡民은 地域特性을 살리고 科學的 研究와 實踐으로 풍요로운 내고장을 만든다.

다섯째 : 우리郡民은 正直, 秩序, 協同의 生活化로 맑고, 밝은 社會를 이룬다.

여섯째 : 우리郡民은 崇高한 3·1精神을 이어받아 나라에 忠誠하는 國民이 된다.

횡성군 노래

방직현 작사
노명석 작곡



태기 - 산 변은 즐기 먹고 - 의 정 기 모 아
운암 - 정 청란 아매 횡성 - 교 빛 겨 있 고
교룡 - 의 심장 부로 사랑 변은 동맥 의 길



앞둔 - 의 뱀 은 옥토 부강을 자랑 하 고
대룡 - 루 반 송 터는 옛일을 아 되 는 듯
경향 으 로 사 봉 오달 거리 가 즐 비 하 고



동서로 - 구비 친 강 꾸준 히 - 흐 르 는 곳
낙 낙 장 송 넓은 숲 에 흥 익 정신 가득 한 곳
전룡 의 - 산업 정 신 부흥 을 - 꾀 하 는 곳



아 립 다 운 이 - 강산 에 빛 나 는 우리 횡 성

於斯羅 2호

발간사	문화원장	한중희	9
축사	국회의원	김용대	11
	횡성군수	장재현	12
	교육장	류홍수	14
	경찰서장	라상극	15
한시			
횡성의 유적 <향교>		김주옥	17
축산으로 농가소득증대		김기원	18
새마을 문고 운영		정연덕	20
잊지 못할 내 고향 횡성		김정기	23
		함재윤	25
문화원에 바란다		정호일	28
		이진우	29
		유관희	31
시	○ 설 날외 1편	이연승	35
	○ 타향살이	곽영기	37
	○ 고향산수	이진우	38
	○ 가을정적	김성기	39
	○ 폭설	김량수	41
	○ 갑자송	김기원	42
	○ 징검다리	송수영	44
	○ 작은 풀잎과의 대화외 1편	권용환	45
	○ 노을이 있는 저녁 소묘	양승준	49
	○ X-mas - Eve	공영옥	50
	○ 별	이상천	52
	○ 새	이아영	54
	○ 바지랑대	김행용	55
	○ 새의 추상	김성수	56

독서실 운영 안내 김정기 59

만 화 향 토 지 김 용 환 60

수 필 횡성 청소년에게 김정기 63

 횡성 깎쟁이 유 장 희 65

 역사와 문화 김 승 기 68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이 상 천 71

공 트 월 책 오 상 건 75

동 화 불 씨 임 교 순 83

 로봇트군의 죽음 조 대 현 88

소 설 몽 상 정 재 영 97

특 집 횡성 회다지 소리 김 승 기

 1. 서 론 121

 2. 작품의 내용과 해설 122

 3. 횡성 회다지소리의 노랫말 126

 4. 출연자와 구성 142

 5. 발인제와 노제 143

 6. 결 론 147

부 록 횡성문화원 임원 명부 153

 문화원 산하 어사매 회원 명단 155



<표지의 말>

발전과 희망의 소리가
들리는 곳. 미래를 발
진시킬 태고의 어사매,
잔잔한 냇물이 흐르고
아늑한 보금자리인 우
리들 삶의 터전이 마
련되었던 옛날을 생각
해 본다.

발행처 : 횡성문화원

발행인 : 한 중 회

편집인 : 김 정 기

 이 연 승

 정 재 영

 김 승 기

표지화 : 이 병 현

인쇄 : 서 원 사





'85년도 문화원 운영방향

文化院長 韓 重 熙

甲子년이 저물고 乙丑년이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문화원으로서는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정금리의 「橫城 회다지 소리」가 전국 민속경연대회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차지했고, 泰豊文化祭도 무난히 치루었으며 여러가지 대화가 비록 규모는 작으나마 뜻있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기반이 닦여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러한 활동은 매우 어려웠으며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했습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고쳐 가면서 특히 다음과 같은 면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려 합니다.

첫째, 관 주도형 지방 문화행사를 문화원 주도 문화행사로 치루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원 조직과 활동에 미비점이 많아 당연히 치루어야 할 문화행사를 관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85년부터는 최선을 다하여 문화원주도로 이끌어 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최대 문화행사인 泰豊文化祭推進委員會를 조기에 조직하고 추진하려 합니다.

둘째, 청소년 중심의 사회교육 및 문화행사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금년은 「靑少年 해」입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靑少年 문제가 가장 어려운 社會問題로 등장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다각적으로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을 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문화원에서도 愛郷教育, 郷土史教育, 禮節教育등을 실시하는 한편 각종 전시회와 교양강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합창경연, 음악 감상등을 실시하여 청소년과 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바른 덕성을 기르고 정서를 함양시키는데 노력하려 합니다.

셋째, 향토 민속 발굴에 힘쓰려 합니다.

정금의 「橫城 회다지 소리」대통령상 수상은 우리고장의 민속 발굴의 일대 전기를 마

런해 주었으며 찾아서 갖고 닦으면 빛이 날 민속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으므로 그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려 합니다.

넷째, 노인들과 원호자를 위한 행사를 마련하려 합니다. 자칫 잊혀지기 쉬운, 그래서 소외되기 쉬운 분들을 위해 몇가지 행사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밝은 사회 풍토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다섯째, 누구나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문화원을 만들겠습니다.

문화원이라면 특정한 분야에 상당한 소양과 기능이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만이 참여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 통념을 바로 잡고 횡성군민이면 누구나 즐겁게 참여하는 문화의 전당이 되도록 문을 활짝 열고, 군민들의 바램을 수용하는 문화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人間은 물질적 풍요를 만족할 수 만은 없는 존재이며, 정신적 만족이 뒤 따를때 비로서 행복한 人間이 되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시골 구석 구석까지 문화원이 있고, 그들은 이 기구를 통하여 그들이 바라는 정서적 생활을 누리고 있는것을 볼때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문화원은 그들 생활의 필수적 존재이며 정신적 안식처 입니다.

우리도 「문화원은 우리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두 가슴을 활짝열고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1985 년 /

이 해는 바로 우리의 문화원이 제 자리를 찾고 새로운 나래를 펴는 그런 한해가 되도록 우리 횡성군민 모두가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地方文化賞 制度의 發展으로서 橫城에서도 '84年度에 처음으로 文化賞을 創案하여 人間 文化財인 梁仲夏氏가 第1回 文化賞을 受賞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 賞을 發展시켜 이 故場 文化暢達에 功이 큰 분들에게 施賞할것을 굳게 約束드립니다.



祝 辭

國會議員 金 容 大

내 故鄉인 橫城에서 文化院이 活性化되어 옛 都城이름을 딴 於斯買란 文藝誌 2號가 發刊되게 되었음을 眞心으로 祝賀합니다.

橫城文化와 理事님들과 그리고會員여러분! 여러분의 피땀어린 努力으로 이룩한 있던 文化院이 靑少年의 讀書할 施設과 各種文化行事를 하게 되었음을 感謝드립니다.

힘이 強했던 日本이 強한 軍隊의 힘으로 中國을 征服했으나 文化의 뿌리가 깊은 漢民族에게 同化되어 7年만에 征服軍中 大部分이 漢民族화된 歷史의 教訓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GNP가 높아지고 物質이 豊富해진다 해도 文化가 發展되지않거나, 文化가 뒷받침되지 않을때 모래위에 쌓은 城처럼 그 物質의 豐饒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말것입니다.

多幸히 橫城文化院은 韓重熙院長을 中心으로 一致團結해서 各種文化行事를 實施하고 讀書室運營을 통한 靑少年指導를 하고 있음을 볼때 우리故鄉 橫城의 든든한 앞날이 밝음을 確信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내 任期內에 橫城文化의 展堂인 文化院을 꼭 세울것을 여러분앞에 굳게 約束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文化院을 통해 橫城의 앞날을 밝게 이끌어 나가게 만들것이며 여러 文化院 理事任들을 비롯한 뜻있는 분들과 힘을 합쳐서 泰豐文化祭를 비롯한 갖가지 文化行事와 讀書施設을 통한 靑少年의 實力을 길러서 엘리트 養成에 힘쓸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35回 全國民俗藝術祭에서 最優秀大統領賞의 영예를 길이 길이 이어나가고 더욱 발전시켜 橫城文化振興에 힘써나갑시다.

感謝합니다.



祝 辭

橫城郡守 張 在 玄

보람과 격동, 그야말로 다사다난 했던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치 풍요를 거두어 들이고 난 뒤의 황량의 벌판같이 텅빈 우리의 마음과 가슴을 따뜻한 양식으로 채워줄 향토의 이야기와 지방문인들의 옥고로 꾸며진 橫城文化院의 文藝誌 於斯買 第2集의 發刊을 祝賀하면서 이책이 나오기까지 애쓰신 韓重熙 文化院長님과 편집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문화시대를 맞아 향토문화 창달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횡성문화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가운데서도 우리군이 제 25 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인 영광의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전국 文化界에 큰 충격을 주고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것은 물론 태풍문화제에 즈음한 泰豐藝術祭와 泰豐展의 시도나 각종문화예술 행사의 개최는 출범 3년만에 횡성문화원이 보여준 개가이며 문화인구의 저변확대라는 데서 큰 성과가 아닐 수 없으며 또한 第1回 橫城文化賞의 시상을 통하여 지방문화예술인에게 용기와 긍지를 불어 넣어 주어 정체된문예계에 새바람을 일으키는 전환점이 되었던바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지난해에 이어 숨겨진 향토사와 군내의 문인들의 좋은 작품들이 사장되지 않고 발표되어 빛을 볼 수 있도록 於斯買 2집을 출간하게 된것은 문화예술인 여러분의 열정과 땀의 소산으로서 매우 귀중한 결실이며 보람이 되리라 믿읍니다.

이책이 모쪼록 아주 유익하고 값진 책으로서 우리군민의 정서순화는 물론 지역사회 개발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심어주는 원동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군민들에게 읽혀지고 또 우리의 고장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문예인 여러분

문화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대중적인 것인 동시에 가장 자유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의 창달이란 어떠한 일방적인 힘이나 정책적인 차원에서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으로서 문화예술인 스스로가 그것을 찾고, 닦고 만들어 가면서 그영역을 넓히어 갈때 문화의 저변확대는 물론 우리의 사회가 선진문화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비록 오늘의 부족한 여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며 여러분이 목적하는 문화창달의 집념을 불사를 때 여러분은 결코 외로운 싸움이 아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곧잘 한평생을 남들이 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일에 바치는 외골수같은 匠人の 모습에서 존경심과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일은 나에게 있어 소중한 일이며 또 아무도 할수가 없는 일이며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일 곳 소멸되어 버릴 수 밖에 없는 일이기에 그 匠人は 그 일에 사랑과 정열을 불태우고 긍지와 보람을 갖고 한평생을 아무런 후회가 없이 헌신하듯이 문화와 예술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여러분도 정으로 돌을 다듬는 석수처럼 자귀로 나무를 다듬는 목수처럼 또는 흙을 굽는 도공들처럼 향토문화를 다듬고 전통예술을 보존하며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는 이 일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혼신의 정열을 다하여 주실때 그것은 보람된 결실로 꽃피리라 믿읍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그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85년의 문화원을 문화계는 더욱 알차고 풍성한 한해가 되고 어사매의 3집은 더욱 발전한 문예지가 되어 우리앞에 선보일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祝 辭



橫城郡 教育長 柳 興 秀

우리들의 生活樣式의 總體를 묶어서 우리는 文化라고 부른다. 까닭에 文化는 우리의 生活속에 있고 우리의 生活樣式은 文化를 創出한다. 따라서 文化란 어느 特殊階層에 依해 이룩되는것도 아니요 專門的인 사람들에 依해 이룩되는 것도 아니다.

文化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삶 살이를 통해 침전되고 여과되어 나타나는 一般的이고 보편적인 觀念을 受容하는 樣相이다.

때문에 文化는 겨레를 代辯하고 겨레는 文化를 主人한다.

巨大한 성곽이 數없이 많은 돌맹이 들로 이룩 되었듯이 한 겨레의 文化 또한 그 겨레가 살아가는 數없이 많은 고장의 취락 生活를 통해 形成된 統一體라는 것을 쉽게 이야기 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地方文化의 暢達을 價値롭게 여기는 緣由가 여기에 있는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고장은 이고장 특유의 自然環境속에 익어 오고 積혀온 우리 特有的 生活樣式이 있다. 이 우리의 生活樣態속에 깃들인 우리의 것을 찾아 갈고 닦는일은 바로 우리 모두의 일인것이다.

이번 橫城文化院에서 우리地方文化誌인 於斯買를 出刊하게 된것을 教育에 從事하고 있는 本人으로서는 더없이 뜻있는 일이라고 여겨 衷心으로 祝賀와 發展을 祈願해 마지 않습니다.

이번 出刊되는 於斯買誌가 비록 작고 소박스러울런지는 모르나 우리의 것들이 精誠껏 담겨져 現代生活속에서 매몰되어 가는 所重스러운 것들을 다시 點檢하고 외롭지 않은 多情한 이웃의 벗을 되찾게 하는 초롱불이 되어 줄것을 期待하며 끝으로 本誌 出刊에 애쓰신 文化院長님과 관계者 여러분의 勞苦에 衷心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축 간 사

황성경찰서장 라 상 극

황성군 향토문예지인 “어사매” 제 2호를 발간함에 즈음하여 애써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고 본인이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빛나는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민족의 긍지와 슬기를 가진 국민으로써 한때 민족의 수난을 겪으면서도 이를 딛고 일어서 오늘의 경제발전을 가져왔고 제 5공화국 출범이후 세계속의 한국으로 성장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회고하면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하 36년간을 크나큰 고통을 겪으면서도 슬기롭게 대처해 왔고 8·15 해방을 맞아 억눌려 살아온 한을 풀기도 전에 공산마수의 손길이 움트기 시작하여 여수반란 사건등 혼란기를 겪으면서 드디어 김일성 공산집단은 다시 회상하기도 싫은 6·25 불법남침을 해음으로서 인명 재산의 피해는 물론 전국토가 초토화되어 고유문화 유산마저 멸실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민족문화 의식은 서서히 싹트기 시작하여 마침내 민족의 저력을 발휘 분연히 일어서 오늘의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고 고유문화 전통도 점차 회생 발전시켰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근대국가로서의 성숙도는 그 나라의 문화수준에 따라 가름된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물질문명이 아무리 고도로 발달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의 문화가 수준이하로 저속하여서는 세계속에 선진국민으로 대접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 5공화국의 국정 지표에도 밝힌바와 같이 교육혁신과 문화창달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정의로운 민주복지 국가건설의 기본방향을 조성하는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민주 시민을 육성해 낼수 있는 것이며 고유의 민족문화 창달을 통해 올바른 국가관과 건전한 정신을 양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문화창달을 위하여 전통적 문화유산을 보존계승 발전시키고져 노력하고 있으며 정신적문화의 성장없이선진화란 한낱 허울에 지나지 않기에 문화의 창달을 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고장도 작은 고을이긴 하지만 “어사매” 발간에 즈음하여 이 고장에 담

긴 슬기를 찾아내어 삶의 귀감으로 삼고 미래의 주인공에게 교훈으로 아름답게 꽃피워 나가
갈것을 확신하며 지속적인 본지의 발전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祝 橫城文化紙二號發刊

滄桑果變是橫城
佳麗江山古有名

繼往先師揚美績
開來後學起仁情

萬難克服功唯重
二號刊行事自明

國泰民安常企冀
吾鄉文院祝繁榮

橫城鄉校與校舍同生

橫城의 遺蹟

金 基 元

橫城의 遺蹟을 찾는다면 첫째로 鄉校를 꼽아야 할 것이다.

二百六十年的 蒼然한 歷史를 간직한 이 遺物은 京江道路邊인 橫城邑 邑上五리에 紅桃山을 背景으로 하여 正面에 南山과 德高山을 한 눈에 바라보며 右로는 蟾江을 굽어 보는 子座午向에 雄壯하게 터전을 잡고 있다.

이 建物은 垆地 五百五十餘坪에 大成殿 十間, 東齋六間, 西齋七間半, 明倫堂二十間, 炊事堂 三間等の 構造로 總四十五間으로 建築되었으며 古色이 蒼然한 歷史를 자랑하고 있다.

이 建物의 沿革을 살펴보면 李太祖建國七年(西紀一三九八年)에 創建되었다는 歷史的 考證은 있으나 當時의 正確한 位置는 未詳하다.

現在의 位置로 移轉하기 까지는 數次의 移轉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中에서 約三年前에 北川에서 現位置로 移轉했다는 記錄外에는 未詳하고, 花田에 있었다는 傳說도 있으나 考證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랜 歷史를 간직했던 이 遺蹟이 不幸하게도 西紀一九五十年 六, 二五 動亂時에 東西齋와 明倫堂 其他 祭器等の 備品이 全部 燒失되는 受亂을 當하기도 하였다.

그 後의 儒林의 總意를 모아 西紀一九五四年 부터 西紀一九六十年까지 約七年間에 걸쳐서 東西齋와 明倫堂을 重建하고 祭器를 原型대로 다시 만드는 등의 誠意와 努力을 다 하여 오늘날 우리들이 보는 바와 같은 遺蹟을 再生시키는데 成功하였다.

鄉校의 歷史를 簡單히 살펴보면 李朝時代에는 中의 思想을 根幹으로 하여 格物致知에서 비롯해서 大同世界로 이르는 人生哲學이며 宗教인 儒學思想을 널리 儒生들에게 傳道하던 地方의 唯一한 學校機關이었다. 그러다가 時代變遷에 따라서 舊韓末부터는 新教育制度가 輸入되면서 부터 教育事業은 學校로 移管되고 鄉校는 다만 每月 二회에 걸

린 朔望의 焚香禮와 年間 春秋에 舉行되는 釋尊行事를 통하여 先聖先賢을 敬虔히 奉祀하는 祭祀의 役割만을 하고 있다.

大成殿에 모시고 있는 先聖先賢을 살펴보면, 中央의 位置의 大成至聖文宣王(孔子)를 爲始해서 曾子, 孟子, 顏子, 子思等の 五聖의 位牌를 모시고, 東廡에 程顥, 설총, 안향, 金宏弼, 趙光祖, 李滉, 李珥, 金長生, 金集, 宋浚吉等の 先賢의 位牌와 西廡에 朱熹, 崔致遠, 鄭夢周, 鄭汝昌, 李彥迪, 金麟厚, 成渾, 趙憲, 宋時烈, 朴世采等の 先賢의 位牌를 모시고 있다.

축산으로 농가 소득증대

정 연 덕

1) 농업이란 것

얼마전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려니 영어로 아그리컬처어란 말의 어원을 흠의 문화란 것이라고 한다. 언뜻 듣기에는 별것이 아닌것 같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참으로 요즈음을 사는 우리 농사꾼들에게는 무언가를 반성케 하는 뜻이 들어있다.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땅이란 것에 얼마나 큰뜻을 두고 농사일을 해왔는지 농약을 치고 비료를 주면 되는 것으로 그것이 농업기술인양 알게된 것이 아닐까? 축산을 하면 돈을 번다든가 고등채소를 하면 호푸를 하면 인삼을 하면 어떨까? 이것저것 좋다는 작목을 찾아 이리저리로 막차만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느는 것은 부채만 되는 농사꾼이 우리 주변에는 없는지 2년전쯤 농어민 후계자 선정에 무슨 위원이라고 해서 가보았더니 청소년들이 하겠다는 것이 모두 축산만하겠다고 계획서를 낸 것을 보고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년엔 그들은 무엇을 하겠다고 할는지 그간 우리들은 농업기술이란것을 교육을 통해서 기술자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익혔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우리들은 꽤많은 진전을 한 것은 부인하고 싶지는 않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작목은 획기적인 소득을 가져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땅이란 것을 통해서 이룩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소홀히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수경재배를 하지 않는 한 모든 농업은 땅이 그 초석임을 새롭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2) 땅이란 어떤 것인가

땅이란 몇가지 측면을 농사꾼에게 일깨워 준다. 대를 물린 문전옥답이란 옛말이 있다. 땅이 좋다 나쁘다 어떻게 하면 땅을 살찌게 하고 무슨 작목을 심으면 잘되고 기우는 어떻게 하는 일련에 농업기술이 만들어 지게된 일면이 있다. 젊어서 첫 경월에

일찍이 처가에 세배를 갔다 오면 거머리는 몇마지기나 얻었느냐는 농담도 우리는 익히 들었던 한의소리다. 규모의 문제임이 적실하다. 어차피 우리에게는 삼정보미란이 여야 하고 지금의 형편은 일정보정도라니 한계는 있다. 그래서 이적은 땅을 가지고 내팔자를 축산에 걸어볼까 호프에 걸어볼까. 고추에 걸어볼까, 우왕좌왕하는것이 지금 우리 가격은 혼돈이 아닐까. 축산경기가 좋다하면 모든 청소년 후계자에 사업계획서가 축산 일색이듯이.

3) 어쩌면 좋을까

이것을 알면 얼마나 좋겠는가 또 안다한들 한마디로 표현이 가능하고 이해가 될까. 단지 한가로이 마음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면 어떤 작목을 통해서 농업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땅을 보지 말라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

자기 땅을 통해서 농업을 보고 농업이 농 태두리 속에서 작목을 분다면 자기가 무슨 신분인지 자기 위치는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토지를 통한 농업, 농업속에 작목을 경영하는 경영인이 농민이라는 사실 땅이 적으니 어떻게 하면 회전율은 높이느냐 어떠 어떠한 작목은 조립해야 농업부산물에 물의없이 흐르고 부가가치를 높이느냐 수입시기를 분산시켜 자금의 무리를 막느냐 기술에 연계는…… 이런 순서가 아닐까. 그래서 몇번이고 강조하지만 자기가 홀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자기류의 농업경영이 이루어질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리라 믿는다. 남이 한다고 유행가를 합창하다 보면 막차를 타게 되는 불운이 있지 않을까.

4) 축산이라는 것

한 십여년전에 일이다. 횡성군 농협에서 비육사업을 할 때 다쓰러져가는 창고 한 모퉁이에서 혼합기 한대를 놓고 조그만 발동기로 똑딱똑딱 만든 사료를 농가에 보내면 그 사료를 어떻게 하면 안먹이려고 농협 직원과 싸움을 하곤 하였는데 이제 횡성군에서 일년 사료소비량이 무려 40억에 육박한다니 금석에 김이 있다. 어쩌이리도 파행적으로 발전한 것일까.

78년도 미국에 옥수수 흉작이 우리나라 축산의 파멸적 위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축산 불경기에 78년도 같은 현상이 겹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것인가. 지

금 이 취약한 축산에 기반에서 81 ~ 82년에 소값은 정상적인 것이었을까. 수년전이라고 기억된다.

농수산부 농협 학계가 모여, 축산관계협의중 소위 축산자금문제로 격론이 벌어진 일이 있었다. 많은 자금의 방출이 우시장을 교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진정한 두수증식과 비례하는 것일까라는 이런 역작용이 그시절에 없었던 것일까.

지금 우리는 정상적인 경기곡선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뭏튼 몇년간에 우리는 많은 애환을 맛보았고 많은 것을 배웠다. 이제 어떻게 하면 축산을 소득과 직결시킬 수 있을까. 앞에서 농업이니 토지니 하는 장황스러운 이야기를 해왔다. 그리고 축산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돌아보았다. 축산분야는 농업작목중 특히 황성에서 절대 유망 작목임이 틀림없다. 자기 농업경영내에서 가축을 길러야 한다. 사료기반이 없는 축산이 얼마나 허망한 투기인지 경기에 부침이 어떤 것인지 이런 역경을 어떻게 자기 경영 속에서 소화가 가능한지가 여기 황성축산에 대도가 있고 농가소득에 방법이 있다고 본다.



새마을 文庫運營

橫城郡 새마을文庫支部長

金 鼎 基

새마을 文庫運營

60年代 後半부터 始作한 새마을 文庫運動이 제가 郡支部長責任을 맡은後 살펴본 結果 큰 發展을 하지 못하고 踏步狀態에 있었습니다.

文庫會員 4,600名 文庫數 171個 圖書卷數 34,000卷이란 모두 誇張數字이었고 每年 文庫競進大會에서 實施한 運營讀後感施賞도 거짓말에 다 해준것으로 밝혀졌습니다.

人間을 高等動物이라 稱하는것은 생각하는 힘〈思考力〉그것을 글자로 나타내는 힘〈活字文化〉 거기에 길고 짧게 높고 낮게〈長短高低〉(音樂) 혹은 그림이나 조각으로 나타내는 힘〈藝術〉이 모든 것을 기리 기리 이어나가는〈歷史性〉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피곤하면 쉬고 졸리우면 잠자는 행동만을 繼續한다면 下等動物인 개나 돼지보다 나을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위궤〉이라던가요? 美國사람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들쥐떼”같은 性品이기에 앞선 쥐가 맨 앞에서 뛰면 멧도 모르고 뒤따라 뛰어 따라가다가 앞쥐가 바다로 낭떨어지를 통해 빠져가면 같이 따라서 바다에 떨어져 죽어간다고 평했습니다.

얼마나 떨시하며 깔보는 평인가요? 郡내 文庫會員 여러분은 이러한 평을 명심해서 反省해야 될줄압니다. 남이 갖다주는 읽을 거리없는 冊이나 쌓아두는것이 文庫運動이 아닐진데 이제 제가 제시하는 3가지 原則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회원의 資格과 文庫運營

앞으로의 文庫會員의 資格은 年會費 3,000(우동 5器값)을 내고 스스로 入會願書에 서명날인 한 後 그 돈으로 冊을 사서 읽은後 마을文庫에 그 冊을 기증한 사람만이 會員의 資格을 부여합니다.

그런 會員이 많아서 冊을 많이 모은 文庫에는 새마을 文庫郡支部에서 收集한 冊을

더 많이 配本하는 原則이며 會員과 冊이 많은 文庫가 곳 運營部門의 施賞對象이 될 것입니다. 읽을 價値가 없는 허접쓰레기 같은 冊을 많이 쌓아둔 文庫나 쌓아둔 冊을 一年이 다 가도록 한번도 읽지 않는 文庫는 휴지모아둔 마을쓰레기場인 것이지 相對할 가치는 없습니다.

(2) 讀後感分野

現在까지는 擔當公務員이 自己가 읽은 冊의 讀後感を 써서 마을文庫會員의 이름을 代身代筆해서 응모했고 그 原稿를 보고 施賞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첫째로 冊을 읽은 후

1. 文庫名 2. 會員名 3. 冊名 4. 著者名 5. 冊을 읽기 始作한 日字 6. 冊을 다 읽은 日字 7. 읽고난 느낌을 사실 그대로 써서 보관했다가 모아서 橫城市場보러 나오는날 마을것을 모두 모아서 가지고 나오셔서 郡文庫支部에 갖다주시면 분량에 따라 一年間 통계를 낸後 施賞하겠습니다.

(3) 交換 讀書(廻轉) (revolution)

自己마을文庫에 있는 冊을 모두 읽은 後에도 速히 郡支部에 보고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웃마을 文庫에 있는 冊들과 바꾸어서 새 冊을 읽을 수 있게 해드립니다. 冊을 읽고 싶은 文庫會員이 돈이 모자라 冊을 못구해 讀書를 못하는 일은 절대로 없게 만들 것입니다. 郡內 30 ~ 40 個文庫에 冊이 모두 읽히워진 後에는 또다시 冊收集運動을 벌여서 천천히 文庫를 채워나가는 歷史를 만들 것입니다.

○ 결 론

우리의 마을은 내가 태어났고 묻힐 내땅인 것입니다. 숫자의 허위나 거짓을 뿌리 뽑아야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사랑하고 사셨고 또 선조가 묻힐 거룩한 땅입니다. 지금 현재는 비록 색 잘살지 못하는 고난의 땅일지라도 진실과 웃음과 생각과 책과 희망과 꿈을 자손들에게 넘겨주는 歷史를 창조합시다.

잊지 못할 내 故鄉 橫城

함 재 운

우리는 흔히 初面에 人事를 나눌때 「故鄉이 어디요」라고 물으면 딱 들어맞는 故鄉이 아니고 이웃故鄉이라도 금방 親해질 수있는 情感을 갖게 된다.

또한 故鄉이 어디냐는 질문에 「서울이요」라고 對答하는 사람은 어딘가 좀 윤치(韻致)가 모자라보이고 삭막한 情을 느끼게 된다. 이처럼 故鄉이라면 역시 구수한 흥냄새가 나와 제격이고 강바람과 솔내음이 풍겨야 정겨우다.

금의 환향(錦衣還鄉)이라는 말도 서울이 故鄉이 아니고 역시 山이있고 江이있는 그곳을 前提로 한 말일것이다.

“나의 살던 故鄉은 꽃피는 산골”이라든가 “내 故鄉 南쪽마다 그 파란물” 등의 노래 가사도 모두 山이있고 물이있는 시골 故鄉을 그리는 마음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우리故鄉橫城을 사랑하고 못잊어한다.

그곳은 우리祖上들 代代로가 豐饒롭게 살아왔고 그분들의 뼈가 묻힌 先山(선산)이 있으며 내가 태어난 곳도 그곳이고 언젠가는 나도 그곳의 한줌흙으로 돌아갈것이기 때문이다.

내故鄉橫城은 東南北의 三面이 雄壯한 德山으로 둘러쌓여있고 西쪽은 서울을 向해 進出氣勢로 있으며 淸澤淸水가 흐르고 있으며 이 모두가 世上돌아가는 基本理致와 符合하고 郡民모두가 勤勉誠實하여 經濟力의 餘裕가 있어 머나먼 他鄉에서 오래도록 살고있어도 역시 故鄉을 그리는 마음은 恒常變함없이 그림기만 하다.

흔히 쓰는말로 “아무테나 情들면 故鄉”이라고 하지만 어찌 情만 든다고 故鄉인가 故鄉에는 어머니의 품속같은 따스하고 포근한 情과 온갖 喜怒哀樂의 情恨이 묻쳐있는 것을

내가 태어난 읍상리도 역시 온갖 情과 喜怒哀樂의 眞隨(진수)가 묻쳐있는 곳이 있

다. 지금도 나는 눈을 감으면 그 맑고 맑은 뒷내개울을 잊지못한다. 이 개울은 秀麗한 德山에서 흐르니만큼 그때나 지금이나 公害없는 맑은 “故鄉의 江”이라고 할 수 있고 서울 親舊에게 자랑도 한다.

어린時節에 친척형들과 같이 어항이나 낚시를 즐겼고 특히 불어지 나 꺾지를 잡아 매운탕도 끓이고 불어지를 초꼬치장에 찍어 회를 먹던일은 별미중 별미였다. 또 기억이 나는 것은 용줄다리기다.

용줄다리기는 정말 장관이었다. 이 놀이는 鄉土의 特色을 가장 진하게 지닌 民俗놀이로서 아름다운 風習이었다. 特히 典型的인 農業地域인 우리故鄉의 農事와 關係있는 용을 상징한 豊年을 祈願하는 놀이로서 이 놀이를 할때면 온 동네의 婦女들까지 動員하여 힘과 技를 겨루었던 한마당이였다. 내가 살던 읍상리에 이러한 용줄을 잘 만드시는 어른들이 많이 계셨다. 이분들이 만드신 용줄을 행여 邑下里사람들이 와서 칼침을 주면 곧 풀리고 경기에서 진다고 하여 이런일이 없도록 동네어른들이 잘지키라고하여 친구들과 밤새 지킨일이 생각난다.

그때의 邑下里친구들은 지금도 만나면 이러한 추억을 이야기하며 서로 곱씹기도 한다. 또한 故鄉이 나에게 준 커다란 教訓을 祖上을 崇拜하는 「孝」思想을 가르쳐준 일이다.

이의 儒教的인 傳統은 나의 意識構造에 가장 밀거름이 된 精神的인 支柱로서 그동안 客地에서 태어난 내 子息들에게도 故鄉이 나에게 가르쳐 준 孝의 根本思想을 일깨워 줄려고 努力하고 있다.

우리文款은 그 當時 양조장을 經營하셨든 분으로서 지금 生覺해도 상당히 孝의 思想이 透徹하신 분으로 記憶한다.

三十里나 떨어진 할아버지 산소에 성묘갈 때면 祖上들에 對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孝의 思想을 恒常 注入시켜주셨다. 그래서 長男으로 태어난 나는 지금도 時間만 나면 자주 故鄉을 찾아 先山을 돌보고 나의 兄弟들이나 子息들에게도 故鄉을 찾아보도록 권하고 있다.

나 자신도 오랜 職場生活을 떠날때에는 故鄉에 묻혀 살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靑雲의 뜻을 품고 故鄉을 떠나 客地를 떠든지 어언 40여年

그러나 그때의 記憶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는것은 故鄉만이 주는 애뜻한 情感 때문

일 것이다.

泰岐山의 우람찬 氣象과 도도히 흐르는 섬江의 正氣를 받아 豐饒를 謳歌하며 人情을 나누었고 많은 人材를 輩出시켜 子孫萬代가 永遠히 살아갈 내故鄉 橫城

나의 先山이 있으며 내가 언젠가는 돌아가 누울 그 秀麗한 나의故鄉 橫城 -
 삭막한 서울生活에서 지금도 이만큼이라도 故鄉이 주는 情感을 느끼고 있으니 그래도 나는 幸福한 사람이라고 自負하고 싶고 故鄉橫城이 주는 그 애뜻한 情感을 永遠히 간직하여 우리 子息들에게 傳하고 싶다.



橫城文化院에 바란다.

橫城文化院 常任顧問 鄭 鎬 逸

먼저 1982年 2月 文化院의 活性化를 부르짖고 再建以來 文藝誌인 於斯買創刊等 各種文化行事に 任員諸位의 눈부신 活躍과 各自의 文化素養의 發揮로서 他市郡에 앞서가는 一次의인 業績을 쌓아 올린데 對하여 깊은 感謝의 뜻을 表합니다.

둘째로 이제부터 時日을 要할찌라도 꾸준한 協助로서 알찬 이고장文化 振興에 힘쓰기 바란다.

셋째, 自古로 우리고장은 農耕을 뿌리로 하는 文化의 傳統과 선비精神이 흐르고 있음을 감안하여 郷土文化 暢達과 傳承保存에 留意하면서 내고장 文化의 꽃을 피워야 겠다.

넷째, 온 郡民이 時代的 흐름과 發展하는 社會相에 발 맞추어 物質보다 精神에 置 重한 文化生活을 통한 活力의 創出과 情緒生活속에 安住함으로써 健全하고 明朗한 社會紀風 造成에 留意바랍니다.

다섯째, 間斷없는 文化行事の 展開로 郷土愛에 立脚한 愛郷心의 發揮와 郡民의 參與度提高에 留意하시기 바랍니다.

一例한다면 泰豊文化祭의 文化院主導 散在한 民俗遺物의 蒐集發掘 踏査等 在外 同 郷人에 對한 郷土發展相紹介 孝親 敬老思想의 喚起等等……

여섯째 健全한 橫城歌謠(서울의 讚歌想起)을 制定하여 때와 場所를 가리지 말고 恒常 온 郡民이 부를수 있도록 誘導함이 좋을듯 합니다.

일곱째, 散在된 新舊文獻(圖書)을 有無償間 廣範圍한 蒐集運動을 展開하여 橫城 에 採色없는 圖書館設立에 基礎를 마련함이 좋을듯 합니다.

여덟째, 郷土研究室의 建立을 試圖하여 봄도 橫城文化院의 特殊事業이 될듯 합니다.

잊지 못할 故鄉

이진우

飲食을 잃은 외기러기/우리가 그리워 울면서 나는구나/그 누가 알겠는가 저 한 조각 마음속/침침한 구름속을 혼자서 헤임을……

杜甫는 이렇게 외기러기의 마음을 노래했다. 九萬里 하늘에 떠서 외롭게 날아가는 기러기를 보고 詩人은 문득 그 마음 속에 일고 있는 形言할 수 없는 삶과 人生의 오뇌를 이렇게 느꼈던 것이다.

二十個 星霜을 길가는 나그네가 되어 古鄉 아닌 他鄉에서 살다보니 杜甫의 마음을 헤이는 때가 많아졌다.

今年 여름에 個人 일로 橫城 屯內를 잠깐 다녀 왔다.

原州에서 직행버스에 몸을 맡기고 나는 車窓으로 밀려오는 古鄉 냄새에 마음껏 취할 수 있었다.

田畓에서 일하는 農夫며, 반겨 손짓하는 가로수 하나 하나가 나에게 所重한 것들이었다.

橫城邑은 옛 모습을 감춘채 韓國의 典型的인 農村 新興都市로 發展하였음은 오랫동안 古鄉을 찾는 감탄의 일성이었다. 隅川으로 길게 이어진 길도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農村이 아닌 어느 都市를 달리는 듯한 錯覺에서 고추가 열렸거나 박이 알몸을 드러내는 草家의 典型的인 農村의 風景을 동경했는지 모른다.

高速道路에 진입한 버스는 태백산맥의 준령을 向해 조금도 거침없이 질주하는 車窓에서 내가 성장한 집을 찾을 수 있었다. 山이 마치 병풍처럼 둘러 올진 속에 별로 단장되지 않은 三間草屋이 나를 잡는다. 春川에서 工夫할 때 방학이 되어야만 父母님께 問安을 드리던 三十年前의 일이 走馬燈과 같이 스친다.

三代獨子인 나를 客地에 工夫하러 보낸 어머니가 아들을 生覺하며 돌아올 날을 손꼽

아 기다리다 산모퉁이 돌아오는 아들 모습에 반겨 소리치며 달려오시듯 장대 빨래가 펄럭인다.

방학이 되자마자 집을 쟁겨 집에 내려 왔을 때의 일이다. 어머니께선 조그만 단지 하나를 조심껏 내 앞에 옮겨 놓으셨다. 기름 먹인 문창호로 싸여져 있었다. 풀어 헤치니 자두가 가득하게 쟁겨있었다. 뽕얇게 분이 났는데 뚜껑을 열자마자 어머니처럼 구수한 냄새가 코를 자극시켰고 구미도 한층 일구었다. 나는 자두를 보는 순간 울적 솟구치는 어머니의 참사랑에 감사의 눈시울을 얼마나 적셨는지 모른다.

어머니는 올라 자두나무에 달린 자두를 수확하여 한개도 잡수시지 않으시고 자식에게 줄 선물로 깊이 간직하여 온 것이다. 그런데 그 자두와는 달리 자두는 모두 썩어 있었다. 어머니는 순간 안색이 변하며 자두를 꺼내기 시작하셨고, 숨소리는 거칠었으며 얼굴에는 원망의 땀방울들이 주렁 주렁 열렸다. 단지도 그러한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렸던지 중간 부위에서 상하지 않은 자두 3개를 찾아 내어 놓으시며 “그럼 그렇지, 하시던 꾸준한 大地를 나는 일찌기 잃을 수 있었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혼자 먹으라는 것을 나의 고집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한개씩 먹는 즐거움과 함께.....

恒常 家族的이고 主情的인신 父母님의 사랑의 울은 참으로 큰 것이었다. 그 후 나는 지금까지 父母님 참사랑 이상으로 所重한 것을 찾지도 못했고 창조도 못했다. 다만 있다면 故郷을 못잊고 사는 一念에서 溫和하고 平和로운 마음의 꽃씨를 띄우는 것 뿐이다.

왜냐하면 사람과 소음에 시달리고 時間에 쫓기는 都市生活에서 잠시나마 해방되어 보자는 기대가 번번히 어긋나는 것은 故郷의 어제와 오늘이 이렇듯 너무나 판이 한데서 오는 당연한 結果인지 모르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의 머리에는 四十年을 거슬러 올라가 버들가지 꺾어 피리를 만들어 물고, 산딸기 따러 뒷산을 오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 남는다.

숲이 우거지고 신선한 바람이 있어 故郷은 좋다. 물고인 논에서 개구리 울음 소리를 듣는 故郷이라서 좋다. 살구꽃 복숭아꽃 피는 故郷 마을은 꽃이 사시사철(겨울 제외) 피어 아름다운 童話속 마을 같아 좋다. 농경지가 정지되고 기계가 꿈틀거리는 곡창이라서 더욱 人情美는 넘친다. 이해보다는 신뢰로, 걱정보다는 協同으로 상부 상조하는 精神이 가득찬 정의로운 故郷임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해하며 또 永遠히 잊지 않는 신향인의 한 사람이 될 것이다.

잊지 못할 내 故鄉 橫城

유 관 희

벌써 고향을 떠나와 먼 타향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어느덧 20년 이라는 세월이 흘렀나 보다. 古鄕하면 나는 세가지 나에게 꿈처럼 피어오르는 추억이 있다.

첫째는 아버님께 대한 연민의 情이다. 내가 대학 3학년때까지 아버님께서는 졸업 시 골학교인 상창국민학교에서 교장선생님으로 재직하셨다. 自身이 불우해서 학교교육을 제대로 못받으신 것이 한이 되어서 우리들 교육에는 사뭇 헌신적이셨다. 아버님방에는 항상 3종류의 담배가 있었다. 풍년초, 파랑새, 아리랑이 그것 이었다. 집안에서나 여가를 이용하여 일꾼들과 함께 일을 하실 때에는 예외없이 낡은 신문에 풍년초를 말아서 피우셨고, 학교 교장실에서는 교장선생님 체통때문에 파랑새를 피우셨으며, 아리랑은 읍내에서 개최되는 교장회의시에나 한갑 고이 간직하고 다니셨다. 출근하기 전과 퇴근후에는 언제나 배짱방이를 입으시고 발을 가꾸시었다. 그렇게 근검 절약하심의 힘을 입어 나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 지금 藥師로서 이만큼 내 人生을 알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된것은 오로지 아버님의 헌신적 봉사과 피땀어린 노력의 결정체 라는 사월실 지금도 나는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였다. 뒷마루에 앉아서 무료할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소설책을 읽기 시작했으나 신통치 않아 넷가로 가 보기로 했다. 오솔길을 따라 한참 거니는데 동구밖 큰 느티나무 아래서 흰모자를 쓴 원피스 차림의 한 여학생이 캔버스를 펴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 모습이 한여름의 전원풍경에 어찌나 썩 잘 어울리는지, 호기심에 가까이 가 보았다. “그림 많이 그렸어요?” 하고 물으니 “필요, 이제 조금 시작한 걸요” 하면서 맑은 미소를 짓는다. 복잡한 약학을 전공하던 나에게서는 캔버스 앞에 선 그 여학생이 찍이나 미지의 사람같았다. 그후 겨울방학 때에는 가까이 있는 靑龍호수에서 스케이트를 함께 타기도 했다. W여성 학생인 S는 나보다도 스케이팅이 미숙해서 상황 내기 스케이팅에는 언제나 내가 이기곤 하였다. 그후 S는 서울 H미술대학에 진학했

는데 재경학우회 석상에서 만나니 참으로 반가웠다. 소요산 등산을 함께간 것을 끝으로 나는 군에 입대해서, 그후의 그녀의 소식은 듣지 못했지만, 캔버스 옆에선 해맑은 그녀의 미소는 지금도 따사롭게 내 가슴을 적셔온다. 셋째는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화성고등공민학에서의 일이다. 당시 이학교의 교장선생님은 아버님의 친구이기도한 정호발 선생님이셨다.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을 맞아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柳君, 우리학생들은 방학이 되려면 아직 1달이 더 남았는데, 그동안 서울시 보고들은 신학문에 관해서 학생들에게 강의해 보지 않겠나?” 하시길래 “저도 학생초년병인데 뭘 가르칠 힘이 있습니까?” 하니 “아니야, 이곳은 중학교 과정이고, 또 정규수업보다는 아는데로 시국이야기도 해주고,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퍽 좋아할 걸세” 하셔서 나는 응락을 하고 대학교 셀라북차림으로 영어, 사회, 국어등을 가리지 않고 봉사활동을 한다는 소견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받으며 순화이야기를 해줄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풀라는 문제는 안풀고 한 여학생이 내얼굴만 계속 응시를 해서, 얼굴이 화끈거리서 수업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얼른 자습을 시킨 일도 있었다. 없는 살림살이에 배구팀을 키워서 도매표로 보내겠다고 초연지기를 부리던일, 서울서 S여대를 다니다 건강이 여의치 않아 내려오신 P선생과 함박눈을 맞으며, 시오리길이나 되는 밤길을 시국토론하며 거니든 일, 냇가에서 흰 피라미를 잡아서 매운탕을 해놓고, 주법에 대해서 설파하시든 정선생님의 모습. 사론회에 초대받아 밤새도록 함께 즐기든 일들이 주마등같이 스쳐간다.

이제 멀리 울산에서 생활한 지도 10년이 넘어가고 있다. 아버님의 근점절약 정신을 지금과 같은 물질만능시대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접목시켜 가야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인 것 같다. 또한 시골서 머리 좋고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잘 키워볼 수는 없을까? 그래서 橫城의人材들을 많이 많이 만들 수는 없을까? 하는 想念들이 머리를 스친다. 내가 태어나고 내가 문힐 작은 古鄉 橫城! 부디 잘 커다오. 人情이 숨쉬는 그런 古鄉으로 영원히 남기를 기원한다.

- 끝 -

詩

횡성가축병원



원장 홍재욱
전화 2246

중식 한식 일미식당



조경택
전화 2742

- 동 시 -



설 날

이 원 승

핏줄로 이어진
마음들이
고향집을 찾아와

몸 가짐을 다시하고
차례상 앞에서
항내에 포옥문혀
또 하나의 마음이 영근다.

태어나고
이 만큼 자랐음은
조상의 보살핌

은덕을 알고
후손임을 자랑하는
우리만의 날.

하룻차이 형님께도
항렬에 따라
세배를 드리고

한 해의 복을 받고
빌어주는 마음들
옆집으로
이웃으로
마을로 퍼진다.



- 동 시 -

성 묘

이 연 승

가늘게
피어 오르는
향연속에
아련히 들리는 말씀

찰랑이는
술 잔 속에
환히 웃으시는
어머님이 계시다.

옷 깃을 여미고
엎드려
보살핌에 기쁨을 드린다.

향내음 깔리는
잔디위엔
더위도
추위도
응달도 양달도 없다.



필자약력

- 횡성군 공근면 삼배리 출생
- 춘천사범학교 졸업
- 한국아동문학가협회 회원(이사)
- 국민포장(80.12.5)
- 동시집「해를 파는 가게」출간
- 창봉국민학교 근무(교감)

他 鄉 살 이

곽 영 기

眞紅 일이 발에 밟혀
노을지는 빈 가슴은
餘韻 긴 종소리에
얼굴들이 얼러오고
길고 먼
뜨내기 삶엔
발가락만 부른다.

오늘 하루 예서 나면
내일은 또 어딜 갈꼬!
시작 모른 他 鄉 살 이
끝이 풀린 歸 鄉 길 에
한 삶이
내 것이 라면
他 鄉 살 이 뉘 몫 인 가.



—詩—

故鄉 山水

이 진 우

靑磁 빛 묻어 납니다.
기적소리 달려갑니다.

橫城 별 깨어나면
문별은 잠들고

또하나
눈뜬 하늘이
꿈을 꾸고 있나니

빛살 이는 비단 자락
비바람에 흔들리고

떠보인 하늘 바다
눈웃음 흘려보면

설레이는 가슴입니다.
萬年



가을 정적

김 성 기

그믐밤이면
녹스는 기억을 닦는 빗줄기 속
나뭇 끝에 걸린 목시의 하늘이 내려와
확인하는 거리의
아픔을 추적하는 칼날이 된다.

말할 수 없음의 시위를 당겨
두려울 것 하나 없이 부풀리는
통가의 해일,
가풀막을 미끄러지는
허망한 손길은
조락의 일월로 발길에 채이고
턱없이 싱겁게 부딪혀 떨어지는
촉 잃은 기대들.

없음으로 비롯하여 자유롭던
기다려볼만했던 바 자린
이제, 떠나야 할 건
차례로 떠나보내야 할 무게의 체증으로.
털 빠진 가슴에
무정란을 품는다.

一代를 바친 가슴
무엇이 있어 헛배로나 채울까.
뒤 돌아선 출발의 자세로
은성한 여름을 기원하며
쓰고 버린 것들에 빠지는 발목이
아직은 마치는 곳을 가늠하며
물살 거스르며 채색되는
소중한 인연들을 뒤적인다.

사라진 몇몇 흔들이
그을린 바람에 간혀
끓었던 오열을 우 우 일으키고
허리 꺾인 강물이 몸을 뒤척인다.
흡인력 잃은 열립에
취기 오르는 얼굴 깊숙이 묻지르며
영시에 씨이렌을 듣는다.

필자약력

- 1946년 강원 횡성읍 가담리 출생
- 춘천 교육대학 졸업
- 강원일보 신춘문예 동시 당선
- 아동문예, 아동문학평론 추천 완료
- 복원문학 동인
- 한국 현대 아동문학가협회 회원
- 현 안흥면 월현 국민학교 근무

甲子頌

金 基 元

해야 솟아라
甲子年 새 아침에
三千里 이 江山에
밝은 해야 솟아라.

눈물의 江을 건너
憤怒의 溪谷을 넘어
어둠을 불살르고
밝은 해야 솟아라.

淨化의 붉은 햇불이
이글 이글 타는 高地로
正義의 빛을 밝히는
朱紅빛 해야 솟아라.

먹구름이 일어 덮히는
冷暗한 大地 위로
용광의 빛을 밝히는
灼熱하는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싱글 싱글 애먼 얼굴
비취색 하늘 높이
금빛 무늬로 해야 솟아라.



暴 雪

金 亮 洙

찬 바람속으로 떠나왔다.
모퉁이마다 번쩍이는 쭈뼌을
깃발에 매달고 소리없이 나부끼던 한 사내가 지금 타향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

눈이 나린다.
그리운 냇들이 흘날린다.
가슴에 젖는다.
방울방울 쉬임없이 잊혀져간 눈망울들이 강이 되어 흐른다.

달겨드는 눈발에
하염없이 속살이 타올라
가장 빛나는 말씀으로 돌아 앉는다.
눈물을 조금씩 비워도
그냥 찰랑이는 아스한 記憶의 뒀안길이어.

평평 쏟아진다.
피붓는 눈보라속에
幼年의 푸른 숲이 싱싱하게 자란다.
하나씩 層階를 오르며
등뼈를 꺾는 이 겨울밤에
무서운 음모를 지피며
뒤척이다 또 잠이 든다.

꿈속에서도 내리는 暴雪.
어둠을 생식으로 먹어 치우고
몽유병을 앓는 젊은 詩人
은밀한 世上은 밝아오고 있었다.

(1984. 11. 19)

-동시-

징검다리

송 수 영

하루종일 오가는 이
진너 주고서
힘들어 쉬어앉은
징검다리 삼형제
낮에놀다 가버린
햇님생각 하는데

어느새 별호롱
불이 켜지면
붕어랑 가재랑
잠재우려고
넷물따라 졸졸졸
자장노래 부르다
소로록 잠이깊는데

눈섭달님 빙그레
웃고 있어요.



—詩—



작은 풀잎과의 대화

권 용 환

언 땅을 뚫고
왜
점질외 빠개짐의 고통을
나도 모르겠소

나래소리 들으며
왜
있을 피웠소
나도 모르겠소

빗소리 들으며
왜
꽃을 피웠소
나도 모르겠소

벌레들의 노래에
왜
열매를 맺으오
나도 모르겠소

나는 사뭇
여름일것만 같았소



이제 어찌 하리오

나도 모르겠소

작년 가을처럼

섭리

섭리(攝理)이리오.

삶을 절태(切胎)의 고통으로

권 용 환

피의 샘으로 파고들어
그피 먹기 시작한후
머리로 흠냄새 맡으려는
긴 세월이 지났다.

가죽이 밀리는
허기진 앙상한 초생(初生)을
꺼꾸로 들고
발바닥을 내리 쳤다.

삼키로그래姆 남짓
피 뚫으로 만 삼천원 어치
삶이 시작된다.

양수를 뿜으며
구겨진 허파는
고통의 운동이 시작된다.

단혔던 심장이 열리며
조용한 가슴은
두려운 고통을 시작한다.

세상에 최악의 전율때문에
피문은 손을 앙칼지게 쥐어 떨며



울음을 터뜨려 버렸다.

태를 낳는 아픔으로

태양을 키우는

온 누리에 찬란한 빛을 소유하는

눈을 뜬다.

필자약력

- 출 생 : 1940 년 2 월 13 일생
- 출생지 : 황성읍 조곡리 377
- 경 력 : 대동여중 16 년 근무



노을이 있는 저녁 素描 I

양 승 준

저문 江에 서서 휘파람을 불고 있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물새들이 떠나고 초저녁 별이 떠오르고 있었다. 내 가슴에서는 물보라 같은 노을이 한 잎 지고 있었다.

노을이 있는 저녁 素描 II

葉書를 부치고 돌아오는 저녁, 은빛 노을이 플라타너스 넓은 잎새에 걸려 가늘게 떨고 있었다. 이따금씩 하늘에선 비둘기가 날으고 彌撒 종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필자약력

-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淸澗亭)生
- 75년 춘천고. 79년 강원대 사대 국어교육과 졸업
- 78년 강원대 문학상 「시」당선
- 78년 고려대 주최 전국 대학생 학예술 공모전에서 「문학평론」당선
- 현 횡성고등학교 교사
- 주소 : 원주시 일산동 154-127 전화 : 44-2343

X마스 - Eve

공 영 옥

하얀 눈이 나풀나풀 떨어지는 날
비둘기는 소리없이 추락해 버리고,
수채구멍에선 뜨거운 김이 솟아올랐다.

잃어버린 추억의 모퉁이에서
수많은 슬픔의 틈바구니로
언뜻, 그리운 손짓이 보일까
검은자위 뒤굴리며 발을 굴렀다.

수없이 멈추었다. 다시 떠나는
썰렁한 버스의 뒤쪽지를 쫓으며
제풀에 떨어지는 망상의 좇점.

벼랑 끝에 나래 편 어릿광대는
누구를 위한 춤인가,
뭘 위한 도박인가.

아아!
오늘이 생일인 者.
오늘이 제삿날인 者.
오늘을 엿바뀌먹은 者.

깨어있는 무의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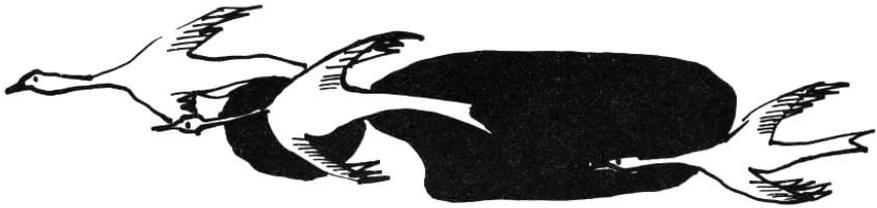
날개짓하라.

떠다니는 亡靈들의 하얀 소매를

바람으로

날려서, 증발시키자.

하얀 눈이 나풀나풀 떨어지는 오늘.



필자약력

- 1960년생
- 1981년 춘천 교육대학 졸업.
- 현재 수백국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 3학년에 재학중임.



별

이 상 천

스처가는 아스팔트
현충로에 초겨울
마음에 정을
계단 한계단 또 한계단
여인에 앙칼진 마음을 녹이면서
낙엽 소리에
티없이 순진한 스무한살
여인상을 왕바위에 새긴다.

너희 자리에 잠시 내가 서 있게되는 것
잊고 있었던 태고의 향수
그리하여 반성도 하게 하고
때로는 결심도 하게 하는것
보일듯 보일듯 보이지 않고
잡힐듯 잡힐듯 잡히지 않는
아직 소녀티가나는 스무한살.

그때 순진한 모습
어제 같다고 말하던 너의 입술
자신 만만한 너희 마음에
싸늘한 바람만 불고
산울림 속에 헤메는 너의 목소리.

앙상한 가지끝에
흔들림에 아픔을 감추고
돌아서면 닳힐 수 있는 거리
그러나 돌아서도
수백번 돌아서도
없는 스무한살 숨어버린 스무한살.



새

이 아 영

언제나 限界 밖으로
운명을 날고자 했다.

눈으로 담아도 미치지 못하는
始生化

따뜻한 피가 가슴을 돌고
눈물보다 진한 육성이 되어 흐른다.

바람은 이미 친숙한 敵이었다.
이루지 못한 무수한 길을
자연의 슬픔되어 아름다움으로 휘청일때
너는 날고자 했다.

땅위에 사는 모든 것들의
먼 조상

부딪칠 때마다
化石으로 굳어가는 蠢蠢을
깨뜨려

영원히 닫혀있고 싶은 입술에
무거운 침묵으로 다시 피어나는

맑은 냇의 울음을
허공에 쉬어가게 한다.

「한국문인협회주최 전국 시낭송대회 입상작」

바 지 랑 대

황성고 1학년

김 행 룡

가을날 바지랑대는 남사당의 꼭두놀음.
다홍색 날개짓 바투이고 어스러이 서 있다.

색 망사. 흰 두전에
양상한 뼈마디 감추오고
갈(秋)냄새 삭이는 모습일랑
가을하늘 우러러 깊은 사연 말 하고픈 게지.

가지랑새 엷은 이끼 한 울로 없어
손가린 그곳으로 아낌없이 흘러 보렴.
초가 지붕 꼭대기 너머
저-어-기
뒤결엔 감나무 한 그루
빛 변한 흥시 보고
바지랑대 오늘도 키만 더 커진다.



새의 抽象

金 性 洙

나는 欲望의 새가 되어
인류의 염원이 머무는
저 푸른 地杼을 향해 날아간다.

날개에 떨리는 하늘 아지랑이는
내 소망의 엔진에 발동을 걸고
맑은 기류 견져 올리는
푸른 時空은
나의 마스코트

비약한다.
지혜의 끝간데
그 다함없는 푸른 공간
맑음이 쏟아지는 확신의 나라
울음이 고운 무지개 속을
이승의 안팎에 꽃씨가 떨어지고
時間의 살갓에 꽃이 핀다.
소망을 물어나르는 나의 부리와
뽑아든 제비는 무엇인가.
내안에 밀물같이 밀려오는
부신 豫約들



분명 날개가 포개질
포인트가 있다.

기억의 ABC 그 첫 페이지엔
어둠을 내모는 흰 잇발이
나의 생각속에 살아있고
내가 던지는 모든 주사위는
여섯 눈으로 떨어진다.
千年을 울먹이던 노래와
알강이 긴긴 흐름
그리고 목줄을 감아돌던 바람.
내 살속에서 깨져 나오는
한 방울의 피
저러오는 날개를 집으면
나의 무게는 얼마일까.
최후에 나는
반짝이는 律動이 되어 하얗게
變身하고 있었다.

銀빛 가파른 주소 위에
時間이 일렁인다.
意識의 안착을 표류하는
피의 바람
여기서 벗겨지는 生命의
內部여.
지혜의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어.
어두운 내 영혼의 갈피 갈피
모닥불 쬐히는

당신의 거룩한 손이여,

나는 欲望의 새가 되어

인류의 염원이 머무는

저 푸른 地平을 향해 날아간다.

필자약력

- 1944년 황성 우천면 산전리 출생
- 춘천 교육대학 졸업
-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시 당선
- 제9회 창주문학상 수상
- 새한신문 작품 공모 시 당선
- 오악장 동인
- 복원 문학회 부회장
- 한국 아동문학회 회원
- 한국 문인협회 원주지부 사무국장
- 현재 원주시 장양국교 재직

讀書室 運營

橫城文化院 附設無料 讀書室은 82年 9月 15日 開館後 2年 3個月間에 걸쳐 45,000餘名의 學生, 一般人이 利用했습니다.

公務員試驗과 大入豫試等의 考試工夫와 中高生의 學科工夫等으로 實力을 길러왔습니다.當初에는 文化院 理事님들의 監督을 每日 받으면서 始作했으나 요즘에는 一般人은 一般室에서 學生은 學生室에서 스스로 自治制로서 잘 運營되고 있습니다.

이 讀書室運營에는 特히 文化院理事님들의 光熱費支援을 前提로 해서 라이온즈클럽 로타리클럽 섬강라이온즈 橫城JC 그리고 農協郡支部 橫城單位農協 그리고 地方有志님들의 積極的인 協助로 난방을 해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讀書室은 앞으로 圖書收集運動과 새로운 文化院建築等의 展開로 名實共히 故場 後排養成의 殿堂으로 發展되리라고 確信합니다.

돈벌이와 關係되는 茶房 飲食店 撞球場等 遊興場에 比해 讀書의 집이 없음을 가슴 아파하면서 現在의 施設을 無限히 發展시켜 나가려는 뜻있는 分들의 參與를 期待합니다.

感謝합니다.

향토지
김용환. =공 해=

=착 각=



수 필

털실 면사 **진 주 뜨 개**



심재진

전화 3352

김 약 국



약사 김정웅

전화 2707

<칼럼>



橫城 靑少年에게

文化院 理事 金 鼎 基

橫城靑少年여러분! 여러분은 橫城에서 出生했고 橫城에서 成長하고 있으며 죽을때는 橫城으로 還故鄉해서 이 땅에 묻힐 主人들입니다.

故島山 安昌浩先生님은 “少年들이 大志를 품어라”라고 외치면서 많은 나라를 되찾아 世界萬邦에 國威를 떨쳐줄것을 당부했습니다. 나도 여러분에게 큰뜻을 품고 그 뜻을 成就시키기 위해 一路邁進해 줄것을 당부드립니다. 큰뜻을 품은 사람은 가족을 사랑하고 내고장을 사랑하며 나라와 온 人類를 사랑합니다. 그보다 더욱 重要한 것은 큰뜻을 품은 사람은 自己自身을 사랑할줄 압니다. 自己 故鄉 國家 人類를 사랑하는 사람은 自害하지 않습니다.

내몸은 父母님의 分身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三國誌에 보면 有名한 將軍 夏侯敦은 敵의 화살에 눈알이 적중하자 그눈알을 먹어버리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내몸은 아버지의 뼈를 어머니의 피를 이어 받았기에 소홀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큰뜻을 품은 사람은 黑白論理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黑白論理란 내主張만을 強하게 내세우는 경우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我執에 強해서 他人을 내意見에 굴복시키려는 意志입니다.

民主主義는 妥協과 說得에 있지 힘에 依한 服從이나 強壓으로 合致시킴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體制에 反對意思를 가졌거든 理致와 說得으로 내意思를 관철시켜야 되며 이웃에게 너도 내意思에 따르라고 工夫하는 施設이나 환경을 파괴내지 防害하지 않는 眞理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當場은 이룩되지 않더라도 時間을 두고 끈기와 忍耐로서 기다릴줄 알아야 됩니다. 民主主義는 하루아침에 이룩되지 않습니다. 短時日內에 큰뜻을 성취시키려면 힘이 배경이 돼야 되며 그 힘이 없으면 다시 原點으로 돌아간다는 眞理를 터득합시다.

“自由가 아니면 죽음을”이라는 黑白論理보다는 너도 살고 나도 살수 있는 中庸의 理致입니다. 中庸이란 말은 喜怒哀樂을 發動하지 않은 靜的인 狀態를 뜻하지만 黑이 아니면 白뿐이라는 論理에 對한 相對性의 뜻인 位(자리)로서 中도 가르키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모조리 精神이 썩고 正義와 正直을 喪失했다는 不信보다는 그중에서도 長點은 본받고 短點은 버리며 옳은 것 바른 것을 取할줄 아는 사람이 큰 뜻을 품은 사람입니다.

바다물위에 날아다니는 갈매기가 높이 뜨면 높이 뜰수록 멀리 볼수 있어 方向 感覺을 正確히 판단하는 眞理를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誠實한 사람이 돼주기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必要로 하는 사람은 誠實뿐입니다. 즉 즐겁게 노는 자리에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맥주먹을때나 심심할때 입을 놀려 즐겁게 해주는 땅콩과 같은 사람이며 영어번역물이 있을때 일거리를 맡기고 싶은 사람 어떤 어려운 問題에 부딪혔을때 생각나는 사람 그사람에게 물어보면 해결이 可能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無限한 可能性을 지닌때입니다. 이 可能性은 誠實하게 다듬으면 偉業을 이룩하지만 쳐박아 둔다면 蓋然性이란 性品으로 남아 不發彈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無限한 可能性을 지닌 時期를 誠實과 情熱로서 불태우면서 살아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맡기든지 다 해낼 수 있는 能力있는 사람으로서 어디서 부르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여기 있으니 맡겨 달라고 나설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橫城 깍쟁이

柳 章 熙

고등학교때로 기억된다.

하루는 동해안쪽에 있는 친구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학생들의 말다툼이란 원래 조리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목소리가 크고 입담이 좋으면 이기게 되는 것이다. 다행으로 나와 말다툼이 생긴 친구보다 내가 목소리도 더 크고 속사포를 쏘는(빠르게 마구 떠들어대는) 실력 좀 낫기때문에 일단은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득의 양양하여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찰나 그 친구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요 횡성 깍쟁이야!” 하는 말이었다.

그 친구의 고향 흉을 들추어 반격을 가해야 하겠는데 알 수가 없어 우물쭈물하다가 따귀를 한대 갈기고 말았다. 결국 나는 언쟁에서 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만 것이다.

그 다음부터 나는 “왜 횡성사람을 깍쟁이라고 할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후 군대에 입대해서도 「횡성 깍쟁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고 그 소리만 나오면 기가 폭 죽어버리곤 하였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동료 직원들의 비양거림으로 「횡성 깍쟁이」소리를 듣게 되었고 이런 연유로 그 출처를 알아 보려고 하게 되었다.

「횡성과 3.1운동」을 쓰신 조동걸 교수(현 국민대 교수)의 글 가운데 橫城을 三橫으로 풀이해 놓은 것이 있다.

즉, 횡성은 산세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뻗어내려 있으므로 山橫이며, 따라서 강물 또한 동에서 서로 흐르니 水橫이며, 사람들이 가로 간다고 하여 人橫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人橫에 있다.

「사람이 가로 간다」는 말을 묘사하듯 속된 말로 하면 「삐딱하다」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삐딱하다」고 하면 조금은 건방지고, 조금은 반항적이며, 조금은 자기본위적인 사람을 좋지 않게 말할때 쓰는 것이다.

그러나 좋지 않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말하면 건방지고, 반항적이며, 자기본위적인 사람은 개성이 있고, 주체성(主體性)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므로 횡성 사람은 그만큼 똑똑하고, 개성이 있고,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횡성 깍쟁이」는 바로 이런 주체성 때문에 생겨난 말이다.

1912년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것을 벌려 우리 민족의 토지를 40%나 강점하더니, 산업을 침탈하여 한반도를 원료의 공급지요 상품의 시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모든 시장의 굶직 굶직한 상점은 모두 일인들이 차지하여 상권을 장악 했지만 횡성만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당시의 횡성은 서울과 강릉을 연결하는 교통과 상업의 요지로서 동해안의 수산물의 횡성의 도매상을 거쳐 원주, 제천, 경기지방에 공급되었는데 그 상권을 일인들에게 빼기지 않고 우리가 쥐고 있었으며, 주체성이 강했기 때문에 일인들의 상점은 오래 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만 했다.

바로 이들이 쫓겨 가며 욕을 하고 간 말이 “횡성 깍쟁이, ”였고, 횡성을 「제2의 개성」이라고 하게 되었다.

이러한 우리 횡성인의 주체성은 곧 애국심으로 승화되었고 3.1 독립만세 운동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만세운동을 벌였고 인근 지역은 물론 충청, 경기지역까지 영향을 준 횡성의 독립만세운동은 순간적 민족 감정이나 우연에서가 아니라 우리 횡성인들의 깍쟁이 정신, 즉 주체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누가 우리를 깍쟁이라 말할 것인가!

그 누가 우리를 삐딱하다 말할 것인가!

우리의 땅을 지키고,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우리의 상권을 지키려 한 덩어리가 되

어 저항했던 자랑스런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시었다.
우리는 말해 주자,
“황성 사람들은 진정한 애국자였지 깡쟁이가 아니었다.”
또 우리는 말 해 주자,
“우리는 이 깡쟁이 정신을 영원히 간직하겠노라.”고.

< 황성고등학교 교무과장 >

歷史와 文化

金 承 基

歷史가 짧은 민족에게 文化란 있을 수 없다. 또한 歷史가 없는 文化란 진정한 의미의 文化일 수가 없다.

文化란 오랜 세월을 두고 그 민족의 榮枯盛衰와 함께 生成되고 沒落하거나 傳承되는 것이기에 그 자체가 역사이며 한민족의 魂이며 얼인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고도의 과학과 문명화된 尖短時代가 되고 하루가 다르게 文化의 양상이 바뀌어 간다고 할 지라도 민족적 바탕과 歷史的 脈이 흐르지 않는 文化란 일시적인 狂氣요 享樂일 뿐이다.

세계의 여러 나라를 分類한 것에 다음과 같은 것을 본적이 있다.

「富裕하고 富裕한 나라」 「부유하고 가난한 나라」 「가난하면서 부유한 나라」 「가난하고 가난한 나라」로 나누어 놓고 그 첫 분류에 영국, 프랑스, 네델란드 등 유럽제국을, 둘째 분류에 미국 일본등과 產油國을, 셋째 분류에는 대상이 거의 없고 나머지 분류에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등지의 많은 나라들이 속해 있었다.

즉 첫째 몫은 物質的, 經濟的 부와, 정신적 문화적 부를 겸비한 명실상부한 부자나라요, 둘째 몫은 물질, 경제적 부는 享有하면서도 역사가 짧은 정신, 문화적인 虛弱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며, 셋째 몫은 둘째 몫의 반대되는 나라들로서, 역사가 깊고 文化가 繁昌한 나라가 衰退할 수 없기에 해당하는 나라가 별로 없었으며 넷째 몫에는 두가지 다 갖추지 못한 가난한 나라들로 중·후진국들이 속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느 몫에 해당하겠는가. 경제적으로 다소 약하더라도 반만년의 역사와 悠久한 배달민족의 전통과 文化가 있는 東邦의 등불이라면 세계 몫에는 들어야 할 터인데 불행하게도 넷째 몫의 範疇안에 밖에 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文化는 어디에 와 있기에 이러한 或評을 들어야 하는가?

우리 문화의 현주소는 어디이며 민족 문화는 민족과 함께 살아있고 겨레와 함께 숨쉬고 있는가?

반만년을 온갖 內憂外患의 시련과 고난을 헤치고 면면히 이어 온 우리의 문화는 어디로 가고 事大主義 근성에 뿌리채 흔들려 混濁해져 버린 문화가 오늘날 우리의 문화인가

「외래어로 짓 떠들어대야 유식하고 과자봉지에서 구멍가게 看板까지 남의 나라 말과 이름을 써야하는 심성, 국적도 알맹이도 없이 狂亂으로 일관하는 律動과 音樂, 미국의 영화, 일본의 가요, 중국의 소설 만이 예술이며 문화로 평가 받고 取扱받는 현실, 장고인지 장구인지 가야금줄이 몇개인지 모르고 농악이 시끄럽게 들리고 판소리가 천박하고, 우리의 전래동화가 촌스럽고 전래소설이 유치해야 문화인이고 우리말 우리글은 돈없고 무식한 한국사람이 쓰는 것이며 태어나자마자 영당이를 흔들고 외래어나 新造語로 된 속없는 C.M송을 줄줄이 외워야 똑똑한 놈으로 인정받는 세대」 이것이 국적없는 문화의 현실이며 가난하고 또 가난한 나라로 전락시키는 原因이라 할 때 누가 항변할 수 있을 것인가.

올해 있는 LA 올림픽에서 미국은 부자이지만 가난하기에 선보이고 자랑할 전통문화가 궁색(기껏해야 말타고 총쏘는 서부개척사의 극화정도) 하기에 첨단 과학을 앞세운 과학 올림픽을 열었다. 그러나 우리는 서울올림픽을 문화올림픽이 되도록 할 것을 표방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마당에서 결코 가난하지 않은 반만년의 역사를 간직한 문화와 예술의 극치를 자랑하고자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민족문화와 그 전통성을 일제침략과 6.25 동란의 暗黒期 한세기 동안에 어이없게도 파괴되고 빼앗긴채 그것을 復元하고자 되찾고자 하는 노력도 크게하지 않아 우리것과 멀어진 우리가 되고 말았다. 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자칫 올림픽에서 선보일 우리 문화를 우리의 감각으로 이해하지 못하 지나 않을 까 하는 걱정까지 드는 것은 지나친 기우일까, 이제 더 이상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민족문화 상실의 전철을 거듭해서는 안된다.

비단 올림픽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한세기에 파괴된 그것을 수세기가 걸리더라도 찾고 알고 가꾸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외국사람에게 관대하고 외제는 무조건 좋으나 우리에게는 천대하고 우리것은 무

조건 나쁘다」는 사대사상을 불식하고 우리의 오래 되고 많고 좋은 것 그위에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문화를 바탕으로 異質의 문화를 수용할 때 우리는 문화 민족임을 자랑하고 나아가 가난의 때를 씻고 찬란한 동방의 등불이며 아낌없는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다.

역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 없듯이 문화도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 없으며 급조되어서도 안된다. 또한 역사가 영원히 이어지고 전해지듯이 문화도 영원히 이어지고 전승되어 가는 것이다. 우리는 先烈들이 알뜰히 가꾸어 온 문화를 후세에 올바르게 전하는 中繼者이며 또 우리가 만든 이 시대에 문화를 후세에게 물려주는 創造者이다.

나날이 뒤바뀌는 외래문화의 홍수속에서 전통문화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것다운 문화를 만들지 못하여 문화의 短切期를 가져온다면 역사의 단절 못지 않는 罪惡이며 후세에 부끄러운 선열이 되는 것이다.

문화나 예술이란 어느 한 사람 한계층의 노력이나 힘에 의하여 만들어 지고 전승되고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노력할때에 이루어 지는 것으로 우리 모두 문화의 창조자요 守護者일 뿐 모방자나 방관자이어서는 안된다.

역사가 흐르고 변하듯 문화도 흐르고 변하지만 역사가 민족과 함께 그 맥을 이어오듯 문화 또한 민족과 함께 살아 있고 그 本質은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이시대의 주인인 우리가 우리의 역사·문화적 召命을 다함으로서 찬란한 문화와 함께 눈부신 경제발전이 竝進하는 半萬年 역사에 있어 가장 융성하고 가장 豊饒한「부유하고 부유한 이나라」의 새아침에 黎明을 열어야 한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어사매 회장 이 상 천

컬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하였지만 그가 그 당시에 제일 가는 항해술을 지닌 기술자도 아니었다. 우주의 미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우주의 미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자연과 인간과의 사이에는 인간의 창조적인 시와 연극·소설·교향악·회화·조각등을 만드는 위대한 창조적 예술가는 능동적이면서 소재의 무거운 짐과 저항의 정복자라고 생각된다.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에는 예술과 미적감상과 인생에 모든 정신적 유형과 일반적 견해로 볼 수 있다.

그 작품을 만들어 내게한 동기나 오직 대상과 확고한 내적 교양이 작품속에 나타나고 도덕적 미학적 원리와 신념이 지배하고 생각하는 그 작품이 완성시킨다는 일은 새로운 생명을 자아발견할 수 있다. 그에게 저항했고 그를 보호했으며 그 속에서 어떻게 세계관과 인생관을 형성했는가? 긴 역사 속에서 횡성에 젊은이와 일치점을 생각하면서 예술을 사랑하고 취미와 정서가 따라야 하겠다. 우리는 예술을 통해서 두한과 영원과 진정한 현실속에서 신에 계시를 음미한다. 예술이란? 타고난 천품과 피나는 노력과 정열이 그곳에 따라야한다.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면서 지방문화예술에 더욱더 관심과 협조와 단결로 예술에 도시! 지성인의 도시! 체육에 도시로 가꾸어야 하겠다.

고구려시대에 횡성을 어사매 또는 화전이라 불리워 지고 있다. 이 명칭을 따라 어사매 첫모임을 83년 11월 19일 로타리 회의실에서 문화원 자문님을 모시고 회원 15명이 창립총회를 개최하려고 어사매 1년을 회고할때 무기력하고 창조성 없이 맥이 이어져 온것을 느낀다.

극단 "산야" 초청연극 2회를 공연하면서 중고생 교육적인 면에서 시나리오 시청각 교육에 도움을 주었고 지역문화창달과 예술창조를 모토로 일반인과 젊은이에 예술창작 활동에 연극저변 확대가 시급하다. 회원작품 시낭송 1회. 이지방 시인 김성기

작품발표회 1회. 음악감상 1회. 한잔에 커피와 대화속에 감미로운 음악이 인간고뇌
을 정감에 도취시킨다.

창조적인 회원들에 작품활동이 부족함을 느끼면서 열정과 노력이 필요로 한다.

제 4회 태풍문화제를 맞이하여 이고장에 문인 임교순 김성수 김성기 화가 이병현
성악 서연주 여인성 모시고 예술창달에 새로운 탐구가 한곳에 모여 제 1회 태풍예술
제. 태풍전을 주관하였다. 좀더 세밀한 기획과 진행이 필요하고 행정당국의 재정에
뒷받침과 협조가 요구된다. 관중에 수준에 초점과 종합예술을 분과별로 행사가 개최
되어야 하고 진행에 검토와 책임분담제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대동여중 김춘옥학생을 위하여 사랑에 손길 캠페인과 일일차
집을 운영하여 새생명에 인간의 존엄성을 서로히 따스한 마음에 정을 젊은이와 이웃
과 나누었다.

어사매 활동이 어려움에도 체험과 아픔에 진통속에 보람을 느끼면서 회원 20명과
힘에 뜻을 모아 85년에는 자아확립속에 사회봉사와 지역에 밀거름이 되려고 노력하
여야 되겠다.

공 트



“ 월 칩 ”

오 상 건

잔잔한 수면위로 찬란한 빛을내며 주 - 옥 솟아오르는 순간 뉘아했다.
핑! 소리와 함께 손바닥을 통해서 짜르르 하게 전해오는 느낌 왔구나! 왔어!
뜰채 - 뜰채 고래고래 고향을 쳐도 아무도 오지를 않는다. 쟈장! 사람살려 사람살려
악을쓴다. 눈을 떠보니 꿈이다.

아차하는 순간에 부리나케 옷을 입고 문을 박차고 나가다 아이고 무릎이야 이젠 되
는게 하나도 없구나 순간 잼싸게 안방문을 보니 아버님이 서계신다. 또 뉘시거나? 하
시는 모습이 심상치않다. “아니요, 새벽운동가요. 보세요. 튜리닝만 입고 뉘시가는 사
람이 어디있어요” 하면서 현판을 나서는데 오늘은 형이 무척 바쁘니 일찍 현장에 나
가 봐야한다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집을 나섰다.

쌩늘하고 신선한 아침공기가 가을이 깊어가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하낫 - 들 하낫 - 들 아버님 불효자식을 용소하소서 하낫 - 들 하낫 - 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 올 시다. 하낫 - 들 하낫 - 들

월칩은 사주팔자에도 나온다던데 꿈이 좋다. 휘파람이 절로 나온다.

이래서 아침공기가 좋다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뉘시점 문을 열었다. “오형! 펄떡
오지 와이리 늦었능교 자 한잔하소” 돌아보니 네명의 꿈들은 벌써와서 해장한잔씩 한
모양이다. “오형! 오늘은 또 무슨 핑계요” 일행중에서 제일 차분한 김형이다. “네,
아침운동이요. 화 - 하하!” 일제히 웃음이 터진다. “하이고 - 마 말도마소. 내는요
마누라가 엇저너부터 배가아파 오는것을 보고도 장모한테 말기고 나온기라요” 하면서
도 얼굴에는 걱정하는 빛이 역역한 최형 새삼스럽게 정을 느끼는 얼굴들이다. 방한복
에다 털모자까지 쓴 모습들이 영락없이 거지발싸게 같은 모습들이다 해도 너무했다
뉘시가 무엇이길래 사람들은 이렇게 만드는 것일까?

“좋은꿈을 많이 꾸었나?” 우리다섯명의 끈들 제일 연장자인 신사장님 말이다.

“자! 출발하지” 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일행은 뉘시점을 나섰다. 차에 오르니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준비는 갖추어 놓았다.

“자! 모두들 이번에는 월척 한수씩 하자구, 예!” 하는 소리와 함께 일행들의 표정이 엄숙해지며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인상들이다. 이번 뉘시에는 꼭 월척을 해보리라 월척! 그놈의 월척이 무엇이길래 수 많은 조상님들을 웃기고 울리는지 하여간 우리일행은 뉘시에 대해서 이야기가 시작되면 밤새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부산이 고향인 최형은 제주도신혼여행 첫날밤에 신부를 혼자두고 밤뉘시를 해서 집안이 시끄러웠던 휘황찬란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창문을 보니 차는 어느덧 오죽헌을 지나고 있었다. 존경하는 율곡선생님 이번 뉘시길에도 부디 월척을 할 수 있겠끔 도와주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제길현 이정도 성의로 공부를 했으면 고등고시가 문제야 참 나두 미쳤지……

뉘시터로 가는길은 험한 자갈과 진흙길이다. 비가온 다음날 이라서 그런지 더 험하다. 덜컹덜컹 좁은찢차에 다섯이 탔으니 정말 죽을지경이다. 하이고-마 죽겠읍니다. 뉘시고뉘고 다 차비럽시다. 이러다 사람죽겠읍니다. 아이고, 조용히 해 이게 다 재미 재미야 신사장님요. 이게 재미교? 이런 고생으로 돈을 벌었으면 내사마 지금쯤은 재벌이 되고 안남았겠읍니까? 어이쿠! 머리아 참자 월척을 하기 위해서는 참자 우여곡절 끝에 도착하니 여섯시다. 이십키로도 안되는 길을 오래도 왔다. 일행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모두들 언제 아팠느냐는 식으로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뉘시가방을 둘러메기가 무섭게 저마다 찍어둔? 포인트로 달려간다. 어-어 아침은 어떻게구 에라 아침 문제냐, 가자! 나의 터를 보니 수초가 듽성듬성있는게 마음에 쏙든다. 일행들은 저마다 뉘시대를 피기에 여념이 없다. 열심이다. 저런모습이야말로 인간에 가장 진실된 모습이 아닐까? 두칸 두칸반 세칸 뉘시대를 펴니 수심이 셋자반 가량에다 수심 좋고 수초좋고 기분 또한 좋으니 만사형통이다. 지렁이통을 열으니 평소에는 징그럽게 느끼던 지렁이가 오늘따라 예쁘게 보이는 것 같다.

고놈 참 예쁘다. 세칸대 외바늘에다 통지렁이를 두마리를 끼워 수초옆에다 치니 찌가 잠기는게 꼭 월척을 낚을 수 있다는 예감이다. 두칸반대를 치고 두칸대에 지렁이를 깨우는 순간 세칸대의찌가 스물스물 올라오는게 아닌가, 하나-둘-셋 뉘시대를틀겠다.

핑! 하는 소리와 함께 짜르르하게 전해오는 손바닥의 감촉 아마도 이런 느낌은 낚시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이십센티가 심히 넘는 놈이다. 지렁이를 꺼서 던지기무섭게 썩을 쭈욱 쭈욱올리는게 아닌가 가슴이 부들부들 떨려온다. 연실이다.

핑! 핑! 소리와 함께 물속에서 요동을 치는 붕어 잡을적마다 준척이다. 단추구멍만한 눈에 누런비늘이 손바닥보다 큰붕어 와! 신난다. 붕어가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한시간 남짓만에 삼십수가 넘는다. 이 낚시터 붕어는 다 나한테 모인 모양이다. 이놈의 붕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나 좌우지간 즐겁다. 이때 뜰채! 뜰채! 숨넘어가는 소리다. 제길 나도 바쁜데 뜰채를 들고 뛰어가니 최형의 세칸대가 활처럼 휘어져서 이리저기 요동을 친다. 뭐야! 뭐? 저마다 외치며 뜰채를 들고 달려온다. 왔다! 낸도 잘 모르셨습니더 갑자기 썩을 썩 끌고들어가는데 낸도 보지 못했습니더. 피아노소리를내면서 이리저리 끄는게 심상치 않다. 최형 자신이 없으면 나한테 낚시대를 넘기지 그래 신사장님이 한마디 한다. “싫습니더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잡을겁니다.” 좀더 좀더 머리가 보인다. 조심해 조심해 다급한 일행들의 목소리가 고조된다. 몸통이 손바닥 두께를 합친 것 보다 크다. 순간 낚시대끝이 희희 휘는것을 보니 마지막 힘을 쓰는 모양이다. 뜰채를 든 신사장님이 조심조심 닦아서서 물속으로 뜰채를 집어넣다. 이 고지쳤는지 놓치지 말고 흥분한 최형의 목소리가 애처롭게 들린다. 으쌰! 떴다 뜰채가 휘인다. 와! 일제히 함성이 터져나왔다. 크다 계척을 해보니 38.1cm다 울들어 이 낚시터에서 가장 큰놈인 것 같다. 두손으로 움켜진 최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오형! 내사마 인제 원 풀었습니더 죽어도 원이 없습니더. 살림방에 집어넣고 담배를 피워무는 손이 덜덜 떨린다. “최형! 담배맛이 어떻능교” 김형의 익살이다. “참 좋습니더 내사 담배맛이 이렇게 좋은것인지 미처 몰랐능교 휴 아깝다. 저걸 내가 잡아야 하는데 모두들 아쉽고 부러운 눈초리다.

“최형! 월척을 했으니 아침이나 해요” 하는 말을 남기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낚시할 맛이 나지 않는다. “제길현 확 놓쳐 버리지 줄이나 딱 끊어져 버리지” 이런 마음은 모든 낚시꾼들이면 공통된 마음일께다.

아침을 하는 최형은 신나는지 연방 콧노래와 뿔바람이다. “거 조용히 하쇼! 고기가 다 도망가겠수다.” 김형의 짜증스런 목소리다. “아! 미안합니더” 지렁이를 끼워서 던지면서 투덜거렸다. “첸장 내꿈은 개꿈인가” 그때다 입질이 딱 끝치면서 갑자기 수면

이 조용해지며 무엇인가 왔다는 끈들의 특이한 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흥분이 서서히 피어오르는 짧은 시간이지만 무척이나 지루하게 느껴진다. 순간 세칸대짜가 툭툭거리다 수면에서 3cm가량 올라온 찌가 옆으로 서서히 솟아오르는게 아닌가 한마디 두마디 몇초인지 몇분인지 알 수 없으나 흥분이 극에 따른다. 세마디 찌가 올리구나서 가만히 있는게 아닌가? 찧까말까 망설이는데 찌가 수면속으로 서서히 들어간다. 신령님 제발! 이윽고 찌가 수면속으로 빨려들어가는 순간 찧다. 낚시대 끝이 확확 휘면서 손바닥에 와 닿는 감각이 상상외다. 낚시줄에서는 연실 피아노소리가 나며 요동을 치는게 겁이 나며 가슴이 답답해 오는게 영 자신이 없다.

뜰채! 뜰채! 숨넘어가는 소리를 질렀다. 최형 빨리! 와 그라능교! 뭐가 걸렸는교? 저마다 외치며 뜰채를 들고 허겁지겁 달려온다. 낚시대가 위태롭다. 활처럼 휘어져 좀처럼 펴지지 않는다. 양손으로 잡은 낚시대는 피아노소리와 함께 가날프기만 하다. 과연 무엇일까? 잉어? 붕어 좌우지간 신난다. 하이고 하느님 공자님 감사하다. 글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이 온몸으로 퍼진다. 손의 감촉으로서는 여지껏 잡은 고기중에서 가장 힘을 쓰는 놈이다. 조심해! 뭘교? 이런 소란속에서 십여분의 흘렀다. 이윽고 지쳤는지 서서히 수면으로 머리를 내민다. 와! 크다. 일제히 함성이 터진다. 좌우지간 어마어마하다. 아마도 붕어조상뻘 되는 놈인것 같다.

겨울외투 단추구멍만한 눈 머리가 어린아이 머리만 하다. 누런비늘이 햇살에 번쩍 요동을 치는게 참으로 장관이다. 도저히 세칸대로는 자신이 없다. 평소에 말도 없고 과묵한 베테랑급조사인 신사장도 고래고래 악을 쓰며 어린애처럼 야단이다. “붕어 뜰채 말고 잉어뜰채 가지고 와” 꾸물거리지 말고 정신없이 외친다. 낚시터 전체가 시끄럽다. 주위에는 어느새 모였는지 이십여명의 끈들이 모여서 난리다. 야! 크다. 고래만 하다. 이순간 만큼은 세상어느누구 부럽지 않다. 조심스레 신사장이 뜰채를 들이댔다. 서서히 끌려나오는게 도드지 붕어같지가 않다. 주위에 끈들은 난리다. 사십센터가 훨씬 넘는다. 아니야 오십센터도 넘어 세상에 저렇게 큰 붕어도 있을까 제각기 자기가 잡은 것 같이 흥분되어 큰소리다.

“하나님 제발 이 붕어만 잡게해 주옵소서” 신사장이 놈의 꼬리쪽으로 들이대는 순간 퍽하는 소리와 함께 허공으로 치솟는다. “하이고 놓쳤구나” 하는 생각에 허무와 함께 맥이 짝-악 풀린다. “화이고 지기미 놓쳤뿌렸네” 최형의 목소리다. 분하고 원

통해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신사장님 들채를 잘 대야 할 것 아니요. 다시는 낚시를 같이 안다녀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었다.

젠장 꿈이 개꿈이구나. 일행들이 다 보기가 싫다. 너무도 아쉽다. 끊어진 낚시줄을 보면서 눈물이 나온다. 다시는 낚시를 앉겠다고 맹세를 했다. 내가 낚시를 하면 성을 같지! 그때 신사장님이 막걸리 한사발을 주시면서 위로를 한다. 이봐! 오군 진정해, 니두 오군 마음을 알아” 하시면서 등을 두들겨 주신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진다. 손에 들었던 낚시대를 땅바닥에 팽개치고 주저앉아서 엉엉울어버렸다. “다시는 낚시를 안해요. 내가 다시 낚시대를 잡으면 성을 같겠어요” 고래고래 고향을 쳤다.

온갖 아쉬움과 후회와 허무감이 솟아오른다. “아휴 아깝다. 잡았어야 되는건데” 아쉬운 소리와 함께 주위에 물러던 끈들이 제각기 흩어진다. “오형 진정하소 낸도 분해서 말이 안나온기라요!” 우리일행들이 저마다 위로를 한다. 막걸리 한사발을 먹으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다. 숨겨뒀던 술을 꺼내놓고 먹으니 양주 네병이동이 나고 하늘을 보니 푸르기만 하다. 주위를 돌아보니 초가집위에 박넝쿨하며 앞마당에 널린 빨간고추 그 위를 한가롭게 날아다니는 고추잠자리 풍요로운 가을을 느낄 수 있었다.

눈을 돌리니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인다. 세상 마음이 뿌듯해 진다. 놓쳤어도 이 아름다운 가을을 느끼고 구경했으니 이 낚시터는 두고두고 잊지 않으리라.

작년인가 그 자리에서 사십삼센티짜리 붕어가 올라왔다는 말을 들었을때 아쉬움의 그날을 회상하며 문득 가고싶은 생각이 단다 낚시와 인생! 이것이야말로 가장 멋진 것이 아닐까? 대를 드리우는 순간 모든 것을 망각하고 참된 나를 찾을 수 있는 계기와 잃어버렸던 자신을 발견하고 자연으로 돌아올 수 있는것 얼마나 잡느냐를 떠나서 바쁜생활속에서도 여유를 갖고 멋지게 내 인생을 펼칠 수 있는 것이 낚시가 아닌가 생각한다.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 일이 좀 후회스럽다. 낚시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순간이나마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씩스레한 미소를 지어본다. 젠장

童 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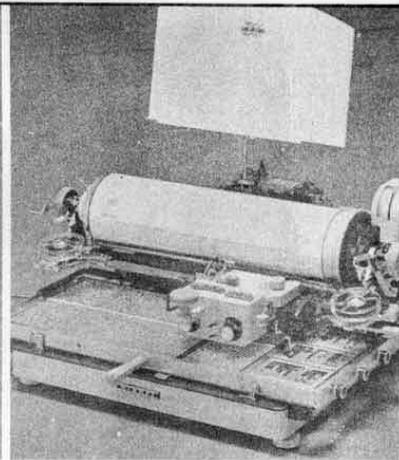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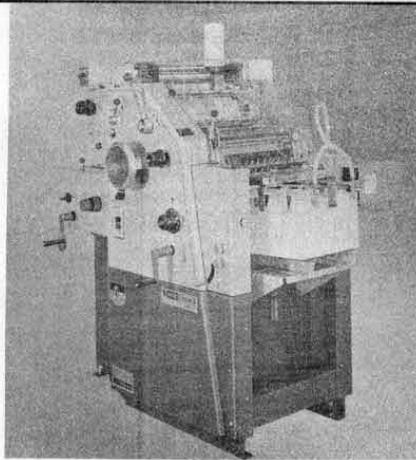


전 문

쇠 갈비
돼지갈비
함흥냉면
평양냉면
회 냉면

<저희 업소는 친절을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표 오 상 건 ☎ 3206



各種印刷 書 院 社
代 表 鄭 斗 永 TEL 2404

< 童話 >

불 씨

입 교 순

이 얘기는 횡성, 안흥 소사리 태오지에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화를 소재로 하여 쓴 동화임을 밝혀 둡니다.

옛날 먼 옛날에 태오지라는 산마을에 묘하게도 이 마을은 성씨가 각각 다른 집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우천에서도 이 마을을 갈려면 면화재라는 험한 산고개길을 기어오르듯 가야하고 오원리라는 마을에서도 고개를 넘어야 했고, 안흥에서도 덧재라는 고개를 넘어야 하고 정금리라는 마을에서도 우밀재라는 고개를 넘어야 이 마을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씨가 각각 다른 집들이 아홉집이 여기저기 흩어져 한 마을이 되었는데 그 중에 김씨네 집안은 삼대를 이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이 마을로 처음 이사온 할아버지가 이사집에 화로에 불이 들어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이사 온뒤 삼대를 두고 한번도 화로 속에 불씨를 끄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는 불씨를 이어가고 있어 절대로 남의 집에 가서 불씨를 얻어오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 불씨를 끄면 조상님에게 큰 벌을 받을것이고 집안이 망하는 징조가 된다고 까지 믿어 왔습니다. 지금 세상 같으면 성냥이 있으니 화롯불이 꺼져도 불씨를 다시 만들수 있지만 그 때는 화롯불이 꺼지면 다른 집에 가서 불씨를 얻어 와야 했습니다.

이러한 김씨네 집안에 새로이 며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가 우리 집안은 삼대를 한 번도 불씨를 꺼트리지 않은 집안이다. 고조 할아버지가 여기로 처음 이사올때 갖어온 그 불씨이니라, 만약에 불씨를 꺼트리면 조상님에게 큰 벌을 받고 집안도 망조가 드느니라. 너는 명심하여라.”

시어머니가 새 며느리에게 첫번째로 당부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집 새 며느리는 이것이 근심이 되어 곤한 잠결에도 일어나 화롯불을 다독거리 불씨를 살폈습니다.

원래 화롯불은 붓불을 재로 덮어두어야 오래 가기 때문에 언제나 불을 담을때 그렇게 하고 다독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룻밤에는 밤이 깊도록 바느질을 하는 새 며느리 방에 동자(어린이)가 나타나 화롯불을 뒤적였습니다.

“너는 누군데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와 불을 쪼이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 동자는 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새 며느리는 신기해서 화롯불을 다독여 놓고 잠이 와서 그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 닭이 홰를 치며 울었습니다.

새 며느리는 깜짝 잠을 깨어 일어났습니다.

아침 밥을 지을려고 화로에서 불덩이를 찾았으나 불씨는 하나도 없이 재만 남았습니다.

새 며느리는 큰 일이 났다 생각하고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시부모에게 알릴수도 이웃집에 가서 불씨를 얻어올수도 없이 밥을 동동 구르다가 할수 없이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불씨를 꺼트렸습니다. 죽여주십시오.”

하고 시부모님 방문 앞에 끌어엎드렸습니다.

시부모님과 온 집안 식구가 몰려나왔습니다.

“아니, / 아가야, 이게 웬일이냐, 삼대를 두고 불씨 한 번 안 끈 집안인데 네가 들어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이 집안 이제 망쳤구나. 이를 어쩌면 좋으냐?”

시부모가 온통 불같은 호령을 하였습니다.

“그래 불이 어쩌하여 꺼졌는지 그 연유나 말하여라. 답담하구나.”

새 며느리는 간 밤에 동자가 나타났던 대로 고했습니다.

“어제밤 늦도록 제가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웬 동자가 나타나 화롯불을 쪼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웬 동자냐고 물었더니 말 없이 살아졌는데 그 연유가 이상할 뿐입니다.”

며느리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아가, 오늘밤에는 명주실꾸리에 바늘을 꿰어 두었다가 그 동자가 또 나타나거든 물래 그 동자의 옷깃에 바늘을 꿰아라”

하고 시킨 뒤에 할 수 없이 불씨를 다른 집에 가서 얻어왔습니다.

며느리는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잡히고 정신이 멍청해 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무섭기도 하고, 근심도 되어 명주실꾸리에 바늘을 꿰어 바느질 그릇에 담아 놓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밖에는 찬 겨울바람이 소리내어 불고 희미한 등잔불은 바람에 춤추듯 흔들거렸습니다. 마치 유령이 나타날 때 같이 고요한 밤에 바람소리는 소름을 끼치게 했습니다.

울밑에 가랑잎이 바삭 소리를 내어도 머리끝이 쭈뼛 올라가고 숨소리마저 귀에 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쫓겨 나느나 이상한 동자를 잡아 불을 꺼뜨린 연유를 캐느냐 들중에 한가지를 택해야 되는 며느리의 포동한 앞가슴이 불룩거리고 귀끝에 붉게 타는 수줍음은 한창 피어나는 복숭아꽃 같았습니다.

밤이 이속해졌습니다. 가끔 시부모님 방에서 담뱃대 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부모님들은 새 며느리방에 거등을 귀 기울이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새 며느리는 명주실꾸리에 꿰인 바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이 바시시 열리면서 어젯밤 그 동자가 화롯가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화롯불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새 며느리는 얼른 명주실꾸리에 꿰인 바늘을 동자의 옷깃에 꿰었습니다. 그러나 동자는 또 감쪽같이 사라지고 명주실꾸리에 실은 솔솔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명주실꾸리가 거의 다 풀리자 실은 더 풀려나가지 않고 멎었습니다.

혹시 더 풀려갈까 하여 다른 새 꾸리를 이어 놓고 새벽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되자 시부모님들이 며느리 방에 왔습니다.

“아가, 간 밤에 무슨 일 없었느냐?” 하고 들어온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손에 쥐고 있는 명주실꾸리를 보자,

“그렇지 무슨 변고가 있었구나. 자 실을 쫓아 가 보자”

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함께 실꾸리에서 풀려간 실을 따라갔습니다.

실은 산으로 갔습니다. 자꾸 따라가 보니 실은 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실은 바위를 넘고 벼랑도 오르고, 횡령굴 사이도 지나 험한 바위틈 사이에서 머물렀습니다.

하얗게 눈 덮힌 속에 이상한 풀 한포기가 있었습니다. 그 풀잎에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 풀이 바로 산삼이었습니다.

산삼이 오래 묵어 동자로 둔갑을 하여 김씨 집안 며느리 방에 불을 쪼이러 왔던 것입니다.

시부모님과 이 집 새 며느리는 밥을 지어다 산치성을 드리고 큰 산삼을 캐어 왔습니다.

몇십년 묵은 산삼은 칼자루만큼이나 커서 큰 돈이 나가는 귀한 약이었습니다.

산삼을 캐온 이 집안은 아주 금방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난하게 살아도 불씨를 안 꺼트리며 삼대를 지나온 정성스러운 마음에 큰 복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은 마을에서 큰 부자가 되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태어난 아들이 돈을 헤프게 쓰며 무슨 일이든지 힘들고 어려우면 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두고 돈 쓰는데 낭비가 심해서 많던 재산도 점점 줄어들어 옛날과 같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대대로 살펴 보면 가난 해도 착하고 부지런하며 근실하게 살면 우연한 복이 찾아들게 되고 부자로 잘 살아도 마음씨를 나쁘게 쓰여 어렵고 힘든 일을 안하고 편히 살며 돈을 낭비하면 재산이 얼마 못가서 없어지고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불씨 하나를 귀중하게 정성드려 지키던 집안에 귀한 산삼이 나타나 부자가 되는 것도 우연히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노력한 만큼 그에게 보답이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마을에는 서울과 강릉 사이를 잇는 고속도로가 나 있고, 마을의 옛모습은 많이 달라졌지만 이 마을에 전해 내니오는 옛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보존하기 위하여 동화식으로 꾸몄습니다.

〈童話〉

로버트 군의 죽음

조 대 현

“여보시오, 박 기자요? 이거 큰일났소. 어서 내 연구실로 좀 와 주시오, ”
수화기 속에서 울려 나오는 김 박사의 목소리는 당황하여 떨리고 있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혹시 로버트 군에게 무슨 사고라도…?”

“글쎄, 그건 와 보면 알아요. 어서, 십 분 내로 달려오시오. 꼭 와야 하오.”

미처 내 대답을 듣기도 전에 김 박사는 전화를 끊어 버렸다. 나는 급히 취재 준비를 서두르면서, 혹시 로버트 군에게 무슨 사고라도 생긴 게 아닌가 하여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한국이 낳은 위대한 과학자요, 인조 인간 발명의 세계적 권위인 김 박사는 오래 전부터 로보트 제작에 열을 쏟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그것이 완성되어 마침내 과학 기자인 내 손에 의하여 만천하에 공개되었던 것이다.

그 때의 감격이라니—. 신문사에는 연방 ‘그게 사실이나’는 문의 전화가 빗발치듯 걸려 왔고, 당사자인 김 박사의 연구실앞에는 이 신기한 발명품—인조 인간을 구경하려고 물려든 사람들의 물결로 온통 길거리가 메워졌었지.

그도 그럴 것이, 이제까지 전자두뇌다 컴퓨터다 하여 수많은 인조 두뇌 장치가 발명되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그야말로 완전 무결한 인조 인간은 없었으니 말이다.

그 때, 그 수많은 구경꾼들 사이로 유유히 걸어 나오며 손을 흔들어 예의를 표하던 로버트 군의 능률한 모습이라니—. 나이 80이 넘도록 슬하에 자녀가 없는 김 박사라, 아들겸 조수로 쓰기 위하여 일부러 국민학교 1학년 또래밖에 안 되는 미니 로보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구경 온 꼬마들에게 더 인기를 얻었었지.

“이름이 뭐가?”

내가 카메라를 들이대며 이렇게 문자 로봇트는 의젓하게 포즈를 취하고 또박또박 대답했는지.

“로봇트 김! ”

“나이는? ”

“한 살! ”

“나이치고는 굉장히 크군.

“로봇트의 한 살은 보통 인간의 삼, 사십 살은 되는 나이죠. 행동하는 능력면에서 말입니다.

“옳아, 좋았어! ”

이렇듯 훌륭하고 완전 무결한 인조 인간 로봇트 군이었는데 갑자기 큰일이라니….

나는 차가 김 박사의 연구실 정문 앞에서 멈출 때까지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했다. 혹시라도 로봇트 군에게 무슨 이상이 생긴다면 온 세상 독자들의 실망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런데 정작 김 박사의 연구실 정문 앞에서 차를 내린 나는 어안이 병병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기껏 사람을 오라고 불러 놓고, 건물의 문이란 문은 모조리 굳게 자물쇠를 채워 놓았으니 말이다.

나는 은근히 화가 나서 현관 문을 주먹으로 팡팡 두드렸다.

“여보세요, 김 박사님! 문 좀 열어 주세요. 문을 열어야 들어가지요.”

그러자 연구실 이층에서 김 박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시오, 박 기자! 이리 올라오시오.”

쳐다보니 김 박사가 이층 창문에서 길게 밧줄을 늘어뜨리고, 그리로 해서 나를 올라오라고 손짓하고 있는 것이었다.

‘아니, 이 양반이 누굴 곡마단 원숭인줄 아나!’

나는 좀 화가 났지만 김 박사가 시키는 대로 그 동아줄 아닌 밧줄을 타고 이층으로 기어오르는 수 밖에 없었다.

내가 숨을 헐떡거리며 이층 연구실로 들어서자 김 박사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덥석 잡고 말했다.

“박 기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소?”

“아니, 도대체 뭘 가지고 이러십니까?”

로봇트 군에게 무슨 사고라도 생겼다는 말씀입니까?”

“사고 정도가 아니요. 이걸 완전 실패요.”

“네 실패라니요?”

의아스럽게 묻는 나에게 김 박사는 대답 대신 손으로 아래층 쪽을 가리켰다.

아래층에서는 무엇인지 망치로 연구실 기물을 부수는 듯한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아니, 저게 무슨 소름니까?”

문을 열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려는 나의 팔을 김 박사는 얼른 붙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안 되요. 위험해요. 로봇트가 화가 나서 집 안을 마구 두드려 부수고 있소.”

“네? 로봇트가 화가 나다니... 로봇트 군이 왜 화를 낸단 말입니까?”

내 물음에 김 박사는 꺼질 듯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바로 오늘 아침 일이었소.”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로봇트 군을 밖으로 내보낸 김 박사는 창가에서 로봇트가 다른 보통 인간의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참 저희들끼리 무슨 토론을 벌이고 있던 로봇트 군이 갑자기 화를 내는 것 같더니 그대로 돌아서 연구실로 뛰어들더라는 것이다.

“아니, 왜 그러니? 로봇트야!”

마주 나와서 묻는 김 박사에게, 로봇트는 숨을 쉴 틈도 없이 따지더라는 것이다.

“아빠, 왜 나는 엄마가 없어요?”

“뭐라고? 엄마라니...?”

“다른 아이들은 모두 엄마가 있어서 맛있는 젖을 준다는데 나는 왜 엄마가 없느냐 말이에요?”

“아, 그야 넌... ”

김 박사가 비로소 까닭을 알고, 뭐라고 설명해 줄 적당한 말을 찾고 있는데, 마침 이번에는 아까 로봇트 군과 같이 놀던 꼬마들이 현관 앞에 몰려와 이렇게 놀려 댄 것이다.

“흥 엄마도 없는 자식!”

“기계에서 나온 자식!”

그 소리를 듣자 로보트는 바싹 약이 올라 그대로 뛰쳐나가더니, 그 가운데 한 아이를 붙들고 냅다 펀치를 먹이더라는 것이다.

말이 미니 로보트지 그 힘으로 말하면 김 일 선수의 박치기 이상가는 위력이 아닌가, 아이는 한방에 코피를 쏟고 기절해 넘어지고 말았다. 만일 김 박사가 일초만 늦게 나갔더라면 아이는 머리가 박살이 나고 말았을 것이다.

김 박사는 가까스로 로보트 군을 달래 가지고 연구실로 돌아와서 이렇게 구슬리기 시작했다.

“로보트야, 왜 이러니? 알다시피 너는 내가 과학과 기계의 힘을 빌어 만든 인조 인간이 아니야? 구태여 따지자면 너의 엄마는 과학 문명쯤 되겠지. 그렇지만 그게 뭐 대수냐? 너는 그저 인조 인간의 구실만 하면 그만이야. 진짜 인간도 못되는 주제에 인간의 대접을 바라다니 너야말로 가소롭구나.”

그러나 미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로보트 군은 책상을 탕 치며 김 박사의 턱 밑으로 달려들더라는 것이다.

“닥쳐요!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나도 당신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인간 대접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뭐라고? 이 녀석이…….”

“잔소리 말고 어서 엄마나 내놔요. 나를 낳은 엄마를 내놓으란 말야!”

로보트 군은 그러더니, 시험관이며 화학 약품이며 닥치는대로 마구 내던졌다. 유리창이 부서지고 진열장이 부서지고, 연구실 안은 온통 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김 박사는 발을 동동 구르며 로보트 군을 꾸짖어 보았다.

“이놈, 로보트야! 너 왜 그러느냐? 나는 너를 만든 아버지야. 아버지 앞에서 이런 버릇 없는 행패를 부릴 테냐?”

그러나 로보트 군에게 이미 그런 권위 따위가 통할 리 없었다. 놈은 더욱 무섭게 연구실 기물을 파괴했다.

과학자에게 있어서 연구 기구란 생명과도 같은 것. 김 박사는 급히 옆에 달린 창고로 들어갔다.

창고 안에는 그가 개발 중인 여러 종류의 인조 인간이 아직 미완성인 채로 늘어서 있었다. 그 가운데 마침 여자의 모양을 본떠서, 젖통을 만들고 긴 머리채까지 늘어뜨린 엄마 로봇이 하나 있었다.

김 박사는 우선 그것을 들고 나와 로봇 군의 화를 달래려고 애썼다.

“자, 자! 로봇야! 여기 너의 엄마가 있다.

그러니 제발 연구실 장치만은 부수지 말아다오.”

엄마 인조 인간을 보는 순간 로봇 군의 두 눈이 번쩍 빛났다. 그러더니 촌살같이 달려들어 엄마 로봇의 가슴을 헤치고 무섭게 젖꼭지를 빨아대는 것이었다.

그러나 강철과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조 인간에게서 젖이 나올 리 없었다. 몇 번을 이리 빨고 저리 빨고, 그래도 안 되니까 솟제 젖통을 마구 두드려 보기도 하면서 애를 쓰던 로봇 군은, 마침내 미친 듯이 김 박사를 향해 돌진해 왔다.

“거짓말쟁이! 인간은 모두 거짓말장이다!”

그 때 만일 앞에 있던 큰 콘크리트 기둥이 막아 주지 않았던들 김 박사의 몸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을 것이다.

김 박사는 급히 옆방으로 피해 들어갔다. 로봇 군도 이내 뒤쫓아 들어오며 악을 썼다.

“엄마를 내놔! 내 엄마를 내 놓으란 말이야!”

“로봇야, 제발, 제발…….”

김 박사는 허둥지둥 이 구석으로 쫓기고 저 구석으로 쫓기다가 간신히 복도로 도망쳐 나올 수 있었다.

김 박사는 즉시 연구실 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거기다가 덧문까지 내린 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아 밖으로 나가는 현관 문에까지 굳게 셔터를 내렸다. 만일 화난 로봇이 밖에까지 나가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어떤 행패를 부릴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층으로 올라오는 즉시 내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자, 박 기자!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소? 놈은 멀지 않아 여기까지 나를 찾아 올라올 것이요. 아니, 그보다도 평생을 걸고 한 연구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 것을 생각하면 울어도 시원치 않을 지경이요.”

이렇게 말하며 부들부들 떠는 김 박사를 나는 무슨 말로 위로해야 좋을지 전당환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 동안에도 로봇트 군은 아래층 연구실을 모두 부수고 다시 이층으로 올라오는지 우당탕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렸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짧은 과학 기자답게 선뜻 나서 김 박사를 안심시켰다.

“염려 말고 제게 말하십시오.”

과학 기자인 나에게도 로봇트쯤 조정할 만한 상식은 있었던 것이다.

나는 민첩하게 몸을 움직여 이층 도어 옆에 바짝 붙어서서 놈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과연 조금 있으려니까 놈이 이층 복도를 섬섬섬섬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이내 우리가 들어 있는 방의 도어가 ‘와지끈 탕!’ 하고 부서지며, 놈의 매끈한 동체가 방안으로 뛰어들었다.

김 박사의 안경 끈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것을 보는 것과 동시에, 나는 그순간 재빨리 로봇트의 등뒤로 달려들어 놈의 뒤통수에 달린 조정 스위치를 힘껏 눌러 버렸다.

스위치가 눌리는 것과 함께 놈은 보기 좋게 그 자리에 털썩 쓰러져 버렸다. 기계로 만든 과학 장치인 이상, 그것을 조정하는 기계의 힘이 빠지자 놈도 한낱 육중한 쇠 덩어리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다.

로버트가 쓰러지자 김 박사가 비틀비틀 내 앞으로 다가오며 중얼거렸다.

“죽었군. 로봇트가 죽었어!”

침통해 하는 김 박사에게 나는 뭐라고 말을 붙이기가 어려워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위로했다.

“너무 상심 마십시오. 앞으로 더 완전 무결한 엄마 로봇트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김 박사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아무리 위대한 과학의 힘으로도 엄마의 젖을 만들 수는 없는 법이요. 그 향기로운 사람의 샘은 말이요.”

내가 다시 말했다.

“그렇지만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를 않습니까? 로봇트 군을 좀더 개조하여 엄마를 찾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러나 김 박사는 더욱 제차게 고개를 흔들었다.

“틀렸어. 이젠 끝장이야!”

“아니, 왜 그렇게 절망적인 말씀을……?”

“박 기자, 들어 보시오. 도대체 인간이 인간 이상의 로봇트를 발명해서 무엇에 쓰겠다는 거요?”

자연을 정복하고 생활을 편리하게 해 보겠다고?

흥! 어렵없는 망상! 사람은 그저 사람답게 사는 게 제격인 것을….”

그러더니 김 박사는 벽장에서 트렁크를 꺼내, 몇 벌의 옷가지와 담배와 라이터와 파이프… 그런 것들을 주섬주섬 챙겼다.

“박사님, 갑자기 어디 여행이라도…?”

내 물음에 박사는 무엇에 취하기라도 한 듯한 목소리로,

“산 속이나 들어가려오. 산에 가서 새소리나 벗삼으며 꽃과 함께 살겠오.”

이렇게 중얼거리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느덧 황혼이 깔리는 현관 밖으로 쓸쓸히 사라지는 것이었다.

김 박사가 떠나 버린 뒤에도 나는 한참이나 넋잃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내 발 밑에는 무참하게 쓰러진 로봇트 국과, 깨진 창문의 유리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도 지구의 종말을 보는 것 만큼이나 우울하고 침통했다.

‘끝내, 인조 인간의 연구는 여기서 실패로 막을 내리고 만단 말인가?’

과학 기자인 나에게는 그것이 못내 아쉬울 뿐이었다.

어느덧 창가에 짙은 황혼이 비껴들 때야야 마감 시간이 다가온 것을 깨달은 나는 급히 사진 몇 장을 찍어 가지고 신문사로 돌아왔다.

그리고, 담배 한 대를 피워 물고 이렇게 기사를 써 나가기 시작했다.

—로봇트 군이 죽었다. 로봇트를 직접 제작한 김 박사는 과학 문명을 부정하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과연 오늘의 인간은 그 자신이 만든 과학 문명에 의하여 스스로 함정을 파고 말 것인가…….

(끝)

小 說



주식
회사 **홍성주류판매**

대표 **박충원**

전화 3221 · 3323

갈비·불고기 전문 **함발집**



김명수

전화 2549

「小説」

몽 상 (蒙喪)



정 재 영

액매기연 날아 가듯 영감이 벌이 되어 날아간 자리에는, 아무런 흔적도 자취도 없었다.

그저,

황영감의 때절은 배잠방이 속엔 늘미기가 아무렇게나 빚어 던진 뱀허풀 같은 영감의 시체만이 한가닥 방금 날아간 자의 껍대기 노릇을 툭툭히 해주고 있었다.

토실토실한 뒷발 감자 알갱이를 응글차게 영글게 하는 한여름 해는 지랄스럽게 길기만 했다.

아랫담 아잇논 매는 저녁결누리로 얻어 먹은 국수배가 거진반 꺼져 들었건만 매화봉에 멈춰 선 夏至해는 여간해선 움직일줄을 몰랐다.

“허허 - 거참 해 한번 길다. 마실간 할망구 엉덩이 짝 만치나 질기똥스럽네 그랴 -

허기사, 할망구도 그렇지 집구석이라고 발 들여 봐야 댘 붙일 자식이 있나 드나나나 적막강산이니……”

황노인은 언제나 처럼,

쑥쑥 품방대에 장수연 부스러길 눌러 담으며, 뒷마루 모실카리에 누워 토담 밭 피낭구 벌통을 고즈녁이 바라 다 봤다.

저녁해가 종종걸음으로 멈춰 선 벌통 앞에는 보기에도 대견스런 까무잡잡한 토종벌들이 복새통을 치고 있었다.

‘허 - 고놈 덜 뭐가 그리 바쁘고 늘어지게 긴해에 쉬엄쉬엄 하덜 았구……’

연깃내라면,

저승사자 최판관 만치나 너더리를 내는 벌들의 성미를 아는지라, 황노인은 벌통을 피해 조심스레 곰방대를 빨아댔다.

문득,

밀도끝도 없이 아주 먼 소싯적 할멈과의 근지럽든 첫날밤의 기억의 조각들이 푸르스름한 연기속으로 꼬시락 대며 고개를 들었다.

짓똥은 동네 여편네들에 의해 초저녁부터 작살 난 봉창문을 해대보로 일추 가리고 아슴프레 흔들리는 등잔불 밑에서 돌편딩 거리는 맘은 잠재우기 위해 안달이 나 피워 물었던 줄담배질에, 달덩이 같고, 불기라도 하면 금방 하늘로 날아 오를것 같던 새색시가 말은 못하고 담배연기에 책책거리며 곱게 눈을 흘기던 고모습 모습들……

‘참 그땐 내 꽤나 속매이었지 -

마누라 치마말기 하나 못 푸르고 덜덜 떨던 꼬락서니 하군……’

“아니 영감 뭘 그리 뉘 나가라 보고 계슈 - ”

“아이구 어쩐 일이당가 우리 할망구께서, 저리 해가 둥그런데 마실을 다마대구-”

“어쩐 일이긴요. 영감 보고 싶어, 너스렐 떨다 말구 들돌 같이 달려 왔죠 뭐 ”

“어이그 근지러워 늙은게 주책맞긴……”

“영감, 저 벌들 좀 봐요. 참으로 벌 力事 라드니 정말 대단 하구료 ”

“그럼 저래뻐도 영물(靈物) 들인걸 어쭙잖은 인간들 보다가야 백배 낫지 ”

“허긴 그러요. 인간의 탈을 쓰고서 금수만도 못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질 않아요 ”

“그뿐인감, 저너석들은 더더욱이나 영물이지, 저 너석들 산에서 데려 온 사연이야 그게 요즘 세상에 보통일인가, 신문이 없어서 그렇지, 황성일보 사회면 그 뭐라드라 그래 특종감이지 특종가암 - 허 - 허 ”

“에이그 또 고담타령 이구려 ”

“이런 왜 그게 고담타령이야 재작년 일인데-

하-! 그날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몸이 육신거리고 머리통이 근질거린단 말여-”

참말 이었다. 재작년 황노인이 뜬금 없이 토종벌을 받게 된 얘기는 분명 특종기사요 토틱감 이었다.

아무리 도깨비들이 전깃불에 놀라 줄 행랑을 논 개명된 세상이라지만 도통 감이 안 잡히는 사건 입에는 틀림 없었다.

< 거짓말 같기만한 진실? >

구태여 말을 만들자면 그럴 것이다. 도대체 본자 아니면 어느 누구도 믿기 어려운 일이 윤사월 눈시퍼런 대낮에 일어 났었다.

할멈 자신도 직접 두눈으로 확인 하지를 았았다면, 늙은이 망령이라고 영감에게 통방울은 안졌을 것이었다.

그날도,

매화산에는 연록색 갈포기들이 와스락 거리는 통에 쟁끼 까투리는 덩달아 윤기가 팔 팔 흐르는 소리를 온산에다 토해 내고 있었다.

식전참에, 황노인은 같이나 한집 꺾어 오겠다며 빈지게를 지고 사태골에 올랐었다.

그런데, 웬일로 점심 결누리 때가 다 되도록 영감은 기두망두 없었다.

그때만 해도 사태골 하면, 같은 지천으로 널려 있어서, 그저 노랑 늦장을 부려 싸도 두 시간이면 갈한짐을 꺾고도 남았다.

영감을 기다리는 할멈은 켄시리 요즘 들어 바싹 더해진 영감의 주마담(走馬痰) 이 마음에 걸렸다.

갈걸을 지고 휘청거리는 영감의 깡마른 두다리가 자꾸만 헛보여 졌다.

‘어이그 영감탱이 고집통 하군, 몸이나 좀 낫거든 산에 오르라고 그토록 말렸는데……’

‘그 녀석만 지금 살았어두……’

무심한 녀석 부모 앞질러 먼저 간 놈……’

일찍 갈 팔자였었는지, 내리 줄 달아 일곱씩이나 삼신할멈 삼신살에 꽃추 안아 보 지도 못하고 꺾곤 했는데, 병호 그 녀석은 그게 아니었다.

두 늙은이 걱정 같은건 아랑곳없이 무럭무럭 남들처럼 잘 자랐고, 남마라 천자문을 옆구리 끼고 서당문턱을 들락거렸다.

두 늙은인 공부야 어찌 되었건, 저게 사람 꼴 되는가 싶어 그게 대견하고 신기해서 하루해 사는데, 마냥 즐겁고 신나기만 했었다.

그러던 녀석이 다섯해전, 오뉴월에 날벼락 치듯 덜컥 쓰러져 일어서지를 못하더니

약한척 제대로 쓰질 못하고 덜컥하니 삼신할미 덧살에 못 이기어 부모를 앞질러 저 갈 곳으로 가고 말았다.

그로부터

두 늙은인 말이 사는거지 사는게 아니었다. 맘은 허공중에 늘 떨어져 나가 있었고 몸뚱아리만 제멋대로 나 댕기고 있었다.

도대체 어디에다 맘을 붙이고 살 수가 없었다.

‘늙은이 팔자 하군 자식 늙는 못본다. 치드라도 칠십줄에 지계질을 해야 하노…’

‘주마담엔 산골(山骨)이 쥘 이라던데 무랑볼 막바지엔 있을라나 윈’

매가 돼도 돌아 오지 않는 영감을 기다리는 할멈 머릿속은 벼라별 오잡생각들이 지지고 볶고 야단을 쳐 댔다.

그렇게나 안달보생이를 끓여 붓던 할멈 앞에 영감이 나타난건, 둥그런 해가 수가마 위에서 가쁜숨을 토해 내는 중참이 다 돼서였다.

할멈은, 당숲 모퉁까지 신당나무숲 있는데, 휘적휘적 영감모습이 희미하게 보여 오자, 어린애 마냥 눈물이 핑 돌았다. 늙으면 다 어린애가 된다는게 그른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종와 하기는 아직 일렀다. 희미하고 겨우 형체만 영감이 라고, 보여지다, 윗담 정자나무밑까지 다가오는 영감 모습을 보자, 할멈은 뭔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불길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도 그럴것이 영감은 지계는 어디다 팔아 먹었는지, 빈 몸뚱이로 걸어 오고 있었다.

‘아니 저 영감이 그새 망령인가, 지계는 농사군의 발이라고 하던 양반이 지젤 어따 벗어 던지구 야단일까? 도대체 뭐가 뭘지 모르겠군……’

한 발자욱, 두 발자욱……,

영감이 바깥 마당을 들어서자, 할멈은 외마디 소릴 지르고 그자리에 털썩 주저 앉고 말았다.

지금 생각해 봐도 그때 얼마나 놀랬었는지 들고 있던 된장탱기가 박살난 것도 모르고 있었으니……

영감의 머리통, 박박 깎은 머리통, 그 머리통에서 수천마리의 벌들이 우글거리고, 영감은 마치 소경처럼 더듬거리며 눈대중으로 걸어 오고 있었다.

벌 // 벌들이, 한마리도 아니고 수천마리가 달라 붙은 영감머리는, 개털모자를 뒤집

어 쓴것 같기도 했고, 개명전 남바우를 눌러 쓴것 같기도 했다.

도시,

다리가 후들거리고 이빨이라곤 없는 잇몸이 달그락 거러, 할멈은 무얼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뭘허— 빨랑 뒤란에 있는 빈 벌통가져 오지 못하고서, 아— 벌을 옮겨야 할것아 너—”

소리매기는 질렀지만, 화가 난 그런투는 아니었다. 신에 겨워 억지로 화난척 하는 그런 목소리였으며, 영감 목소리는 조금은 달뜨고 윤기가 흐르고 있었다.

할멈은 영감 목소리에 다소 맘을 가라 앉히고, 피낭구로 속을 파 만든 벌통을 옮겨 오고 실랑 안에 있던 약꿀을 따까리에 바르고 벌을 옮겨 받을수 있었다.

“ 옮겨라— 옮겨라— 옮—겨라”

행여 소리를 못 듣는 벌들이 있을까봐, 할멈은 뱃창자에 잔뜩 힘을 주고는 소리빼기를 질러 댔다.

사실,

할멈은 벌을 받아 앉히는 일보다는 영감머리에 모린 벌떼들이 영감을 해고지 하지나 앓을까 하는게 더 큰 문제였다.

한참후,

벌들은 약속이나 한듯, 장수벌을 선두로 질서정연하게 약꿀 바른 피낭구 따가리로 한마리 두마리 날갯 접으며 옮겨 안기를 시작했다.

참으로,

길고도 지루한 시간이 흘렀다.

영감의 희끔희끔한 머리가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고, 이내 마지막 남았던 한마리 까지 피낭구 벌통으로 옮겨 앉자 할멈의 쉼 빠져 달아났던 혼줄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 들었다.

“영감 도대체 어쩐일이당가요 글쎄 뭣에 쫓 흘린것 같구먼요……”

“아따, 할망구 하군 흘리긴 뭐가 흘려, 아— 저렇게 까투리 소리가 청아한 윤사월 대낮인데, 이게 다 하늘 같으신 산신님 은덕이라구, 자식없는 우리집에 보내 주신 복이라구, 복……”

“나원— 뭐가 된지……”

그날,

식전참에,

황영감이 사태끝에 올랐을 땐, 아침이 뼈죽이 고개를 내밀기 전이라, 온통 사태끝 갈밭은 어둠들이 나뭇가지 사이로 들쭉날쭉 거러 대고 있었다.

연초록 갈포기 밑에서는, 더덕내와 시크므레한 갈떡 내음이 코를 간질러 났다.

황노인은 뱃고래에 「꿈」하고 힘 한번주면 오르곤 했던 비탈진 목밭이, 그날 따라 몹시도 숨이 차 올랐다.

허풍그레 갈 한짐을 얼추 지고 산을 내려 오면서도, 연실 등에서는 땀이 배고 두 다리가 후들거려 열걸음을 못가보고는 지계를 받쳐 놓고 쉬어야만 했다.

황노인은, 숨도 찾지만 그보다는 목구멍을 되넘어 오는 알수없는 설움이 온 몸을 짓눌러 났다.

“니미랄— 거—

병호, 그 녀석만 꺾지 않았어도……”

황노인은 宗家에서 극구 반대하던 뜬금없이 떠오르고, 푹푹 죽음의 냄새가 풍기던 늻설 했던 병호 얼굴이 맴을 돌았다.

버릇처럼 황노인은 허리춤에서 곰방대를 찾았다. 곰방대에 봉담배를 꺽꺽 눌러 담은 황노인의 두손이 가늘게 떨려 왔다.

바로 그때였다.

난데없이 벌 한마리가 황노인의 머리위를 맴 돌았다.

황노인은 벌 싱거운 녀석도 다 보겠다며 팔을 들어 휘이— 휘이— 그 벌을 쫓아 버렸다.

그러나 그녀석의 벌은 쫓겨 가기는 고사하고 막무가내로 황노인에게 덤벼 들었다.

“이녀석이, 다 늻은일 놀리나—

왜이래— 늻은이 귀찮게 스리”

황노인은 그제서야 대체 어떤 녀석이 귀찮게 구는가 싶어 고개 들어 맴을 도는 벌을 자세히 살펴 봤다.

“아니—!! 저건 장수가 아니 장수!”

까무잡잡한 몸통, 기다란 날개, 만놈들에 비해 돋보이는 큰 덩치,
그건, 바다리도, 나나니도, 땡비도 아닌 분명한 토종 장수벌이 틀림 없었다.

‘야—! 장수가 행차 한걸 보아하니, 이놈들이 어디로 만살림을 나는구면, 그렇다
면 이근처 어디메쯤 대식대구들이 모렸을텐데……’

황노인은 낙엽송 이파리 사이로 뻗죽 뻗죽 내비치는 햇살을 헤집으며, 토종벌들이 모
린곳을 찾느라 사방을 두리번 거려 댔다.

아니나 다를까,

파랗게 물이 오른 낙엽송 증둥가지엔 바가질 얹어 놓은듯한 형상을 한 토종벌이 한
군데 모여 스멀거려 대고 있었다.

첫눈에 보기에도 이진 기맥힌 강군(強群)임에 틀림없는 터수였다.

‘아— 이렇게 약꿀 한줌지만 있으면 저너석들 모리기란 식은죽 먹길텐데……’

아무리 두발을 동동 굴러 애를 태워 봐도 어찌 할수 없는 안타깝기만한 시간들이 꽤
나 흘러 갔다.

급하면 사람이 뭐도 붙잡는 다고, 푸닥거리 푸자도 모르고 이적지 살아온 그였지만
그 순간만은 산신님을 골백번은 불러 댔다.

그가 그렇게 눈을 감고 산신님을 모강지가 깔갈 해지도록이나 외쳐 대다 눈을 떴을
때는, 벌써 그의 머리위에는 장수벌을 비롯한 꽤 여러마리의 벌들이 자리를 잡고 날개
를 접고 있었다.

어렸을적,

열집 박지관(朴地官) 어른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얘기 비스듬하게, 들려주던 애
기자투리가 황노인 머릿속에 떠올랐다.

“심성이 착하다 보면 말야, 산에 사는 토종벌들이, 그사람 머리통에다가 모린다는
구나 글썄, 세상 벌일도 많자”

사실,

이적지 칠십평생을 요란쩍적지근 하게 내노란듯, 남에게 큰일 한적은 없지만서두,
그는 한평생을 별 욕심없이, 하늘 무서운 줄을 스스로 알며, 이웃의 아픔을 내 몰라
라 하지 않고 살아 온 터수였다.

‘산신님’ 송구스럽구먼요. 제가 뭐 심성이 어떻다구 이런 과분한 복을……’
갈짐이고 나발이고 다 팽개치고, 머리에다 토종별 한뭉테기를 받아 이고 집에 다다
랐을 때는 중참이 훨씬 지나서였다.

“할멈, 산신님이 우리 두 늙은이 사는데 하두 적막강산이라 이 녀석들을 보낸걸거
여, 저 녀석들을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저것들에게 맴을 붙이고 살아 보자구—”

“그려요 영감, 친자식 처럼, 내뭍으로 난 새끼처럼 보살필게요”

거짓말처럼,

그날부터 황노인 얼굴에 늘 붙어다니던 수심기가 말짱히 견혀져 갔고, 덜뜨린 삼신
살에 날기 무섭게 당신손으로 땅속에 어린 생명을 물어야 했던, 恨의 덩어리, 가슴에
चे기 처럼 목격하게 남아있던 恨의 뭉테기들이 뜬금없이 불려져 갔다.

정말 괴이한 일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밤만 되면 해소기침에 하얗게 밤을 패대던 그에게서 말짱하니 해소기가 꼬리를 감
추었다.

그날 이후로

황노인의 하루 일과는 벌통 관리에서 시작해서, 벌들 뒷바라지로 끝을 맺었다. 확실
히 그는 벌들에게 서서히 미쳐 가길 시작했다.

밀원(蜜原)을 발견한 일벌이 벌통 앞에서 제 동료들에게 밀원이 있는곳의 방향과
거리를 알려주는 날갯짓의 미세한 동작들을, 춘삼월 수십마리 수필들이 잠수와의 일생
일대의 단한번의 교미를 위해, 하늘에 오르려 용을 쓰는 짓거리를 손금 보듯 황노인은
읽을줄 알게 되었다.

거기에다가, 부지런히 식구들을 늘리고 꿀을 모아 온 벌들 덕분에, 꿀값으로 그들은
내년쯤이면 목달개 송아지 한마리는 넉넉히 잠만할 꿈을 꾸게 까지 되었다.

어름치 비늘 떨어지듯 늘어 붙었던 저녁해가 매화봉 허리에 제 그림자를 질질 끌
며 황노인네 토담밑 피낭구 벌통 옆을 비켜서 갔다.

그때까지도 황노인은 뒷마루 모설카리에 모로 누워 비키는 저녁햇살에 종종 걸음을
치는 벌들 역사(力事)에 넋을 빼놓고 있었다.

“그런데 참 영감 큰일 났어요”

“아따 큰일 남 떡해 먹지 까짓거”

“영감두 느물스운거 하군 아— 글세 그제 아니래두요. 아까매 마실을 땡겨 오는
대……”

“응— 그려 마실을 땡겨 오는데—”

“고네이베루 방천독에다 도락구가 붕붕 거리며 네모반듯한 하꼬 짝을 부리질 않겠어
요”

“거— 또 밀가루 뒷박이나 퍼주는 노가다관 벌어 졌겠지 뭐”

“아이구 이런 답다비, 영감 차라리 그러면 살판이나 나가쇼”

“그럼시롱—”

“자세히 보니 그제 다 벌통들이란 말이예요. 벌통 양벌말이예요”

“뭐—! 뭐라구—!! 양벌통?”

어떤놈이 누구 죽는꼴 불려고 이런 산골 구석에 까지 양벌통을 들여 와 자랄 발광이
여— 응”

“글세 말이예요. 양벌이 꼬이기 시작하면 토종벌은 씨불살을 한다드데, 정말 큰일
은 큰일이예요”

“내 이놈들을 당장 작살 내 버려야지, 다시 얼센거리지 못하도록……”

황노인의 관잣노리가 실기죽거리며 새 파란 불꽃이 그의 두손에서 「깽」소리를 내며
맛 부딪쳤다.

작년 여름엔 가도,

씨리꽃이 온 산을 흐드러지게 필 무렵, 할멈 친정이 있는 산지당골에 서울서겨 내
려온 기업양봉간가 하는 녀석에게, 조상대대로 신주처럼 모셔 오던 동네토종벌들이 씨
불살을 당했다는 얘기를 처조카에게서 들은 터수 었다.

그때만 해도,

황노인은 처조카 얘기를 대수롭지 않게 남애기roman 들었었다.

열년열두달 다 가도 그 잘난 빠스 한대 구경할 수 없는 첩첩산골 구석에, 어느 미친
녀석이 기어 들어 오겠느냐고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이었다.

정말,

미치고 팔딱 뿔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그날밤,

황노인은 쭈그려 붙어 종지 없어 놓은것보다도 못한, 할멈 젖을 붙들고, 안하던 것을 다하며 잠을 청해 봤지만 웬수놈애 잠은, 수 틀려 보따리 싼 바람난 여편내 마냥 달아나 버렸다.

할멈 말대로 그 다음날 부터 황노인네 뜨락에는 낮선 벌들이 한두마리씩 날아 들기 시작 하였다.

몸통이 뇌란 놈들이 눈 어두운 황노인이 얼쩡 봐도 토종벌과는 완전히 구별 되었다.

그리고는,

새알귀 살랑 속 꽃감 빼어 먹듯, 하루, 이틀, 사흘, 쥐도 새도 모르게 황노인네 토종벌들은 한마리 두마리 야금야금 양벌들에게 죽어 갔다.

연일 계속되는 감자가물에 바싹바싹 타 들어가는 텃밭 강병이를 들떠진 얼굴로 바라보던 황노인은, 번쩍 두눈에 시퍼런 불을 켜가지곤 봉당을 나섰다.

그는,

신고 있던 꺼먼 통고무신을 한쪽 손에 벗어 들곤, 고양이 걸음으로 살금살금, 호박꽃으로 막 들어 가는 양벌을 쫓아 갔다.

짜릿한 전광(戰慄)이 목덜미를 타고 스르릉 거렸다.

소싯적,

잠지 터라구가 까무잡잡 때깔일 하던무렵, 혼자서 북메기가리 뒤에 가 넘다 용두질을 쳐 뿔래치면, 온몸을 하늘로 감아 올리던 말할 수 없는 쾌감이 온몸에 피어 올랐다.

고무신 짝을 호박꽃에 댄것과, 고무신이 공중에서 커다란 원을 그리며 맴을 돈 것은 거의 동시의 일이었다.

“끼릭— 킬킬킬—”

황노인의 입에서 괴상한 웃음이 비절비절 새어 나왔다.

멈추어 질것 같지 않던 황노인의 맴돌이가 멈춰지며, 고무신 짝은 가파른 곡선을 내리 그으며 땅바닥에 패대기쳐 졌다.

실로 눈 깜짝할 사이의 순간이었지만 조금전까지만 해도 그렇게나 여유만만해 보이던 양벌은, 사창가에서 새벽 어스름기어 나오는 좃병 든 녀석마냥 비스럭거리 대고 있었다.

황노인의 마당발이 비실거리는 양벌을 용서할리 만무했다.

「깹-」 소릴 내지르며 널부러지는 뇌란 양벌의 쌍통이 정말 보기에 흐마했다.

황노인은 열일을 चे켜두고, 밤낮없이 토종벌 지키기에 온 정성을 다 쏟았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양벌잡는 황노인의 숨씨가 보다 더 숙달되고, 세련되어 갔다.

고무선짜 보다는, 훨씬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매미채 방법이, 그 보다는 망사천을 이용한 포충망 방법이 개발되어 쓰여 졌다.

그러나,

잠마칠에 밀원을 잃어버린 양벌들은, 황노인네 피낭구 벌통으로 삼악도(三惡道)의 아귀(餓鬼) 같이 떼를 지어 몰켜 들어 널름 거러왔다.

오줌소태 난 칠월의 잠마가 질질 거러 대든 어느날 저녁때 였다.

수효를 셀수 없을 정도의 양벌떼가 노도같이 피낭구벌통으로 들어 닥치며 드디어 패쌈이 벌어졌다. 아직껏 소규모전 뿐이었지, 몽테기로 쌈 싸우기는 이번이 처음이라, 황노인은 손에 든 끌연이 뜨겁게 타 들어가는 것도 까맣게 잊어 버리고 쌈불 붙은 벌벌통만을 뚫어지게 바라다 봤다.

씨갈머리야 토종벌이 훨씬 많아 숫적으론 양벌떼가 애기가 안 됐다.

물어 박지르고, 뜯고, 끌고, 밀리고, 살점이 흩어지고, 날개죽지가 떨어지고, 모강지가 땡땡땡 잘려 나갔다.

“야-! 이놈들아 그 뇌란놈들 먹통을 버섹 물어, 오올치 옹지 잘한다.

그래, 느집을 넘본 그 녀석들을 아주 작살을 내 버리라구-”

황노인은 두주먹을 불끈 쥐고 아랫배에 힘을 잔뜩 주며 이를 옥 물었다.

자신이 썸판에 뛰어 든 썸꾼처럼, 황노인의 온몸은 뜨거운 열기와 달쳐 오르는 흥분에 가슴은 기계방간의 기계방아 처럼 들쭉날쭉 거러 대며 피가 거꾸로 돌고 있었다.

아주 오래전 기억조차 아슴아슴해지는 소싯적 잠터 갯버덩에 썸판이 황노인 앞으로 다가서며, 황노인의 기억은 신나게 썸판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는 가끔방선 소문 난 썸꾼이었다. 아마 면장이름은 모르는 애들이 더러 있었어도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으리라

「 황배 지기 」

그가 아랫배에 힘을 주고 「 썩 」 소리가 났다 하면, 상대방은 벌써 모래판에 머리를 처박고 나 텅글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름 석자 보다는 황배지기라고 그의 별호가 더 널리 불리어 지곤 했었다.

딱 한번,

그도 임자를 만났었다.

크게 바로 아랫담 바우 녀석이었다.

서디서 흘러 들어 왔는지 기팔이 잠대하고 힘이 장사여서 노가다판에서 바우덩어리를 두손으로 번쩍 들었다고들 했다.

〈 용호상박 〉

그야말로 용과 호랑이의 혈전이었다.

둘이는 한나절이 다 되도록 발 기술 한번 못 써보고 마냥 버티고서 맴만 돌았다.

구경꾼들은 아예 자지러져, 맘 약한 축들은 막걸리 기운에 버텼고, 더러는 입만 해 벌리곤 줌처럼 다물 줄을 붙잡았다.

이글거리는 5월의 태양도 돌기를 멈추고 한옆으로 비껴 서 있는듯 했다.

다 저녁때가 되어 짐승소릴 내 지르며 바우가 모래판에 무릎을 꿇었을때, 송아지를 탄 자신도, 바우도 뜨거운 눈물을 뺨뺨 흘려 댔었다.

그날 이후로

바우의 모습은 그 근방 어디에서도 찾아 볼수가 없었으며, 바우가 없는 씨름판에 황배지기도 모습을 나타내지를 았았었다.

‘ 그뎨 나도 한가닥 했겠는데…… ’

바우 그녀석 좇심 하난 끝내 쫓지 세상없는 여자들두 단 한코에 게거품을 품었겠으니…… ’

‘ 참, 그뎨 세상 사는 맛이 질로 났었지, 신명나는 세월이었어…… ’

정말로 언제 풀어 봐도, 어깨가 들썩이고 모강지에 힘이 주어지는 신나는 기억의 실타래 었다.

빼앗으려는 자와 지키려는자와의 생명을 건 싸움은 그리 오래 가지를 못했다.

튼튼한 몸과, 강한 이빨과 간교한 지혜를 가진, 뇌란 양벌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싸움은 심겁게 끝나고 말았다.

영악한 人間事 모든 일이야 그렇다손 치드라도, 함차 말 못하는 미물에 세계에 까지 순리와 정의가 통하지 않는다는데 황노인은 심한 분노와 모멸감을 느꼈다.

한 봉테기의 까무잡잡한 토종벌들의, 널부러진 시체가 피낭구 벌통 앞에 수북수북 쌓여 갔다.

황노인의 관찰노리가 심하게 일그러지며, 봉당 한구석에 세워 둔 싸리빗자루를 미친듯이 잡아 들었다.

승리에 도취 된 양벌들은 기세좋게 벌통을 들락거리며, 토종벌들이 땀흘려 모은 꿀들을 노략질 하고 있었다.

“이놈우 새끼 덜 오늘 느들 임자 바로 만났다. 오늘이 느들 꼭소리 나는 날이여”
황노인은 인정이고 나발이고 없이 양벌들을 향해 사정없이 빗자루를 휘둘러댔다.
제 풀에 놀란 양벌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줄행랑을 쳤지만, 더러는 황노인에게 달려들어, 독침을 세우고, 이빨을 갈며, 시위를 벌였다.

그렇지만 그런것에 황노인의 빗자루는 조금도 누그러질 줄을 몰랐다.

양벌떼가 모두다 사라진 벌통 앞에는 먼지에 떨썩이는 까무잡잡한 토종벌들의 시체들만이, 입동추위에 흠날리는 철 지난 낙엽처럼 휘둥굴고 있었다.

황노인은 미친듯이 땅바닥에 널부러져 있는 토종벌들을 베잠방이 걸주머니에 쓸어넣곤, 아랫담 고네이베루 방천둑에 천막을 치고 양봉을 하고 있는, 대머리 침지에게로 들들 같이 달려 갔다.

달리는 황노인의 두눈에서 작두날 같은 살기가 번득이고 있었다.

“야! 박침지 인지 지랄침지인지 나와—”

“?…… 아이구 깜짝이야, 이진 또 뭐꼬, 아닌 밤중에 홍두께 내지르는 늑은이는”

“그려 홍두깨두 좋구, 좃봉덩이두 다 좋다. 우리 벌들만 살려 놓으면 돼”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네, 이 늑은이는……”

“돈만 있음 다냐, 느 눈에 우리 촌무지렁이들은 버러지만도 못하게 보이는지 몰라

도 그렇게 아냐, 우리도 세끼 밥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아니 정말 보자 보자 하니까, 이 늙은이가 눈에 보이는게 없는 모양인데, 도대체 당신 뭐요?”

“그래 말 잘했다. 나 뒷담 사는 황배지기 인대, 열댓통 토종벌에다 모가질 걸고사는 늙은이여 어쩔테여”

“그래요 그런대, 대체 용건이 뭐요 봐 하니 약주도 안 걸친걸 보니 썩주정 이시구먼”

“내 친자숙 같은 벌들이 당신네 양벌들에게 씨물살을 당했어, 이렇게 불쌍하게……”
황노인은 울먹이며, 온기라곤 싹 가져버린 씨늘한 토종벌들의 시체들 주머니에서 꺼내 대머리 침지에게로 확 뿌려 댔다.

부들거리는 황노인의 걸끄름한 손바닥 아래로 토종벌들이 허늪바람에 흩날리는 미류나무의 솜뭉치처럼 부슬부슬 떨어져 내렸다.

“영감두, 아— 그럼 내가 우리벌들한테 당신네 토종벌을 쫓아가서 물어 죽이라고 시켰다. 이말이요. 말 같잖은 소리 작작 하슈

그리고요

여기는 분명히 법적으로 토종벌이 보호 받을 수 있는 토종벌 보호구역도 아니예요. 자본주의 사회 좋다는게 뭘니까 능력껏 자기의 살길을 여는거 아닙니까? 내가 살기 위해선 어쩔수 없는 노릇이케요. 어차피 경쟁사회 아닙니까, 법적인 하자만 없음 그만이에요.

아시겠소,

사실 톱 까놓고 얘기하면, 몇몇 소수의 영세토종벌 업자들 때문에 토종벌 보호구 어찌구 나발을 부는 자세가, 씨아리도 안되는 개소리예요. 토종벌 몇 사발 뜨자고 기업양봉이 후퇴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구요.

노인장 증이나 억울하면 행정당국에 진정서라도 한통 내 보슈 그러……”

“난— 무식해서 그런 어려운 말은 몰라, 단지 내 친자숙 같은 벌들이 억울하게 씨물살을 당한다는 것 밖에는……”

“여보쇼, 난 그때위 냇두리나 앓아 들을 만큼 한가하질 않아요. 벨 불일 없으면 올라가 보슈……”

“이봐요, 내 늙은게 이렇게 빌겠오. 난 그너석들 없음 못 살아요. 그건 보통 토

종벌들이 아니요. 산신님이 점지 해준 내 자식이란 말이오……”

별 대수롭지도 않다는 듯이, 아니 한물간 시골영감의 벨볼일 없는 애긴, 예전에 있었다는 듯이 대머리점치는 설탕 부대를 끄르고는, 말구박에다 그것을 개가지고 벌통 옆으로 분주히 달려 가고 있었다.

뇌란 양벌들이 살판 났다는듯 설탕물을 물어 벌통 속으로 분주히 나르고 있었다.

‘죽일놈들, 저렇게 설탕을 쳐 맥여 가지곤, 뭐 강원도 산골 순진짜 싸리꿀 어찌 구 나발을 불테지’

황소인은 도대체가 찻찻해 못 볼것을 봤다는듯이, 고개를 외로 꼬고는 가래침을 카 내뱉었다.

황소인이 걸레짝 처럼, 어깨죽지를 축늘어 트리고 돌아오는 고네이 베루 아카시아 방천득에는, 아카시아꽃 살피살피에서 뇌란양벌들이 애충파는 승냥이 마냥 「앵앵」 거리며 악다구니를 치고 있었다. 그 소리는, 날선 점이(劓)되어 황노인의 머릿속을 헤집어 뜯으며 불켜 들고 있었다. 양벌들의 악다구니는 파란 이파리 갈피사이에서 게울물속에서, 심지어는 방천득 잔디 위에서 까지 황노인을 향해 일제히 모강지를 치켜 세우고서는 야지를 들고 있었다.

황노인은 방천득길을 달리며, 두귀를 꼭 틀어 막았다.

그러나 그건 말짱 도둑목이었다. 아무리 귀를 틀어 막어 봐도 양벌들 악다구니 소리는 조금도 줄어 들지를 았고 가슴을 부러 댔다.

집에 도착한 황노인은 흡사 도깨비에 밤새도록 시달리다 새벽녘에 돌아온 열빠진 사람처럼 제정신이 아니었다.

“씨발놈 덜 어디보자, 느 죽고 나 죽는기라—”

삼단머리 풀어 헤친 새카만 밤이 매화봉 허리에 소리 없이 살포시 내려 앉았다.

황노인은 어두운 지기를 기다렸었다는 듯이 뒤편에 매달아 뒀든 쭉꾸러미를 벗겨 내렸다.

약에 쓸려고 정성 들여 말려 뒀든것이라, 쭉내는 생쭉보다도 더 독했다.

매캐하게 코를 찔러 오는 쭉내음이 그렇지 았아도 들편딩겨려대는 황노인의 가슴을 더 달뜨게 했다.

황노인은 괜히 숨이 가빠지며, 가슴이 울렁거렸다.

첫애를 뺀 마누라가 입덧치름으로 신 사과를 은근슬쩍 걸탐 했을때, 깜깜 오방중 옷통을 훌러덩 벗고 배뺏쓰바람으로 말뼌네 과수원에 기어 들었을때, 황노인의 등가죽을 스르릉 거리며 내리 달리던 짜릿한 전율이 용을 썼다.

쑥꾸러미를 옆구리에 끼고 방천독을 내리 달리는 황노인의 귀에 낮에 들렸었던 양벌들 악다구니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별일두 다 있네 그라,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달걀귀신도 잠들었을 이때 무슨놈애 얼어죽을 양벌 소리란가……”

그러나 끝수없는 환청은 황노인이 듣지 않으려고 애를 쓸수록, 독을 쓰며 기승을 부려댔다.

정말로 미치고 팔딱 뿔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빨간불을 한입 가득 물어 박지른듯, 대머리침지의 천막에선 촛불이 어른거려 대고 있었다.

황노인은 발소리를 죽였다.

살금살금 걸어가는 꺼먼 고무신 밑창에서 끈적끈적한 땀이 미끄럼을 타고 있었다. 어둠속의 파란페인트 칠을 한 양벌통들은 금방이라도 「뻑」 소릴 내지르며 자신에게 덤벼들것만 같았다.

“딱—”

어둠속에서 부싷돌이 경쾌한 소릴 내며 밤하늘을 갈갈이 찢고 있었다.

반짝 짧은불빛이 쑥꾸러미 사이를 찌찍 거리며 빠져 나갔다.

알싸하고 매캐한 쑥내가 두드리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것 같은 밤하늘로 퍼져 올랐다.

황노인의 두손이 학질환자 저녁참 맛듯 거세게 떨리기 시작했다.

천막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벌통을 시작으로, 황노인의 불붙은 쑥꾸러미가 작살을 댔다.

포르스름한 쑥연기가 수채구멍에 빨려드는 뉘시기 처럼, 벌통속을 한통 두통 헤집고 들었다.

독한연기를 뒤집어 쓴 녀석들이 쾅쾅거리며 나가 자빠지는 꼬락서니가 벌통 속으로
흰히 들여다 보이는데 했다.

배매기를 웅켜쥐고 팔딱팔딱 뛰는놈, 날개를 파들짝 거리며 오두방정을 떠는놈, 눈
깔을 까뒤집고 쿵뚱거리며 널부러지는놈……

정말 신나는 노릇이었다.

「질질-」 거리는 황노인의 꺾다란 웃음 소리가 고양이 발톱같은 거무칙칙한 어둠
속으로 녹아 들었다.

「한통, ……」

그통에다가는 불쌍히 죽어간 벌들의 진혼곡을,

「두통……」

그통에다가는 요절한 병호녀석의 恨의 매듭을,

「세통……」

그통에는 가지지 못하고 억눌린 자의 고통을,

황노인은 그렇게 차페로 가슴속 모든것들을 태우고 있었다.

“도둑이야-!! 도둑-!!”

‘도둑? 난 도둑이 아냐, 내 가슴의 생명나뭇잎을 짓밟은 너희들이 도-도둑……’

질질질……”

“퍽!- 퍽!-”

무던 소리를 내며 채밀기를 돌리는 쇠지렛대가 황노인 몸뚱이 위에서 무수히 춤을
췌다.

이제껏,

그렇게나 황노인의 머릿속을 세집어 뜯던 양벌들의 환청은, 몸뚱아리에 떨어지는 때
에 쫓겨 달아나고, 머릿속으론 이룰하기 어려운 벌들이 무수히 쏟아져 내렸다.

찝찝하고 약간은 들크므레한 액체가 몸뚱이가 닿는 부위에서 역류해선 목구멍으
로 되넘어 왔다.

아즈러히 주인영감과 아들녀석들의 두런거림이 기억 저편으로 멀어져 가며, 황노인
에게는 멧방석 만큼이나 자그마한 안식이 자릴 틀고 앉았다.

“정말 미친 영감탱이로군”

“이거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아— 그래 어따 대구 축짬질이야—
촌놈덜 빨다구는 정말 못 알리겠구먼”

황노인의 바위처럼 딱 들어 쥔 두손에선, 주인없는 초혼제(招魂祭)의 소지(燒紙)
처럼, 축내음이 밤하늘로 올려 퍼지고 있었다.

“영감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유 글썽, 원 세상에 아무리 그렇더라두 그렇지, 저를
단 보다도 못한 노인네 몸뚱아릴 복날 개패듯 해왔으니,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구…”

“괜찮아, 내 스스로 벌어들인 업인걸 뭐, 염려 말아— 할멈”

“괜찮은게 뭐예요. 원 몸이 성한데가 없는걸요 창독이나 나면 어째유—”

“할망구 하군, 방정 맞은 소린 작작 혀, 그건 그렇구 요즘도 그놈애 양벌들이 극성을
피우납”

“말두 말아요. 제 버릇 개준답니까 요즘은 장마철이라 즘들두 치머어멜 꼴이 없
으니, 할짓이 토종벌통 노략질 밖에 더 있겠어요. 우리집뿐이 아니래요. 양짓모
태이 토종벌들은 이제 거지반 다 거덜이 나 씨불살을 당하게 됐대요”

“저런 저런 죽일놈들, 불쌍히 당한 우리벌들만 가엾게……”

“영감 우리 이제 벌일량은 잊어 버립시다. 자식없이 허허로운 맴하나 이집 기둥에
다 붙잡아 매 놓고서 이적지 살아 왔잖수,
생각하면 뭘해요. 속만 더 상하지……”

“뭐 잊어 버리자구? 그건 안돼, 차라리 날 죽으라고해, 이젠 더이상 내맘을 어
디메다 의지할데가 없다구, 마지막이야, 차거운 흙속에 일곱놈의 자식들을 묻어버
린 내가……”

그녀석들은 산신님이 점지해 준 내 자식들이라구……”

“영감두, 그 당나구 고집 하군 그러나 빨리 일어 나셔야 벌이구 뭐구쥬,

아— 오늘이 벌써 며칠째 자리보전이유 보름째예요. 보름째”

“할멈— 미안해— 빨리 일어 나알텐데 그런대 영 자신이 없어져 가니 어떤 노릇인지
모르겠어, 아무래도 영글러 버릴것만 같구먼 그라—”

“영감답지 않게스리 무슨 그런 맘약한 소리유, 영감이 누구요. 가근방선 삼척동자

까지도 알아 주던 황배지기 아네요. 아— 소싯적 황소 타던 뚝심이 있잖아요 ”

“뚝심? 내몸에 아직도 그런게 있을라나…… ”

“여러 말씀 말고 힘을 내요 힘을 ”

“참— 할멈 고놈덜이 영물(靈物)은 영물인 모양이야, 아 글썽 고너석들이 즈들을 극진히 사랑해 주던 주인이 뺨을 당할라치면 고것들두 봉상(蒙喪)을 입는대요 ”

“영감두 아무리 영물이기로서니 그럴리가 있겠어요. 괜한 소리겠죠 ”

“아따— 이 사람 내 언제 허튼 소리 하는걸 봤남.

내 어릴적 옆집에 살던 박지관(朴地官) 어른한테 내 이 두 귀로 분명히 들은 소리라구, 박지관 아버님이 상을 당했을때, 하나같이 목에다 흰땀기를 두르고 봉상을 입었대요.

아마, 우리 벌들두 내 죽으면 틀림없이 봉상을 입어 줄거야

암 그렇구 말구 그너석들이 어떤 녀석들인데…… ”

“웬 영감두 망칙한 소리 작작해유 ”

“아너 아무래도 자신이 없는걸 ”

“…… ”

미친년 엉덩이씩 처럼이나 질질 거러대는 칠월의 장마는 좀 해서 그칠줄을 몰랐다.

창독에 덜뜨린 황노인의 병세는, 한 달내내 똥물을 퍼 마셔도 차도가 없이 끝점을 향해 치달았으며, 하루에도 몇번씩이나 환청과 환시에 가위가 놀리며, 밀도끝도 없는 헛소릴 중얼 거러 댔다.

“할멈— 저소리, 두 다리깽이와 날개짓을 뵈기 싫게 해가며 질러대는 저 웅웅거리는 소리, 또 왔어, 아이구 내머리를 마구 잡아 먹으려고 달려 들잖아— 저— 봐 저—기 ”

“영감 정신 차려요. 이 밤중에 벌은 무슨 놈에 벌이 예요.”

“아냐, 아냐— 저길 봐 뇌란양벌들이 툽날같은 아가릴 쪽 벌리고 우리벌을 물어 뜯잖아. 아니다 아너 날 물어 뜯고 있어 할멈, 할—머엄—

내 고무신 어디 갔어 아니 씨리빗자루, 빨랑 가져와 빨리— ”

“영감— 영감— ”

“할멈 내 옆구릴 만져 봐 도들도들 날개가 돋는 자리가 근질거리어—
아—!”

육신거리며 우리 벌들 껌대기가 내몸에 덥혀 썩워 지고 있어—”

풀기라곤 전혀 찾아 볼수 없는 황노인의 깡마른 얼굴 위로, 소싯적 장터 갯버덩에서 배지기로 상대방을 모래판에 내동일 쳤을때의 번들거리는 미소가 찢덕거리며 피어나고 있었다.

“날개가 가벼워 졌어, 잠자리 날개 모양 뽕뽕 거리며 날수 있을거야—
어디로 가느냐고?

어디긴 어디야 대머리 침지네지.

내 기어코 물어 죽일거야, 한입 가득 물어 박질러선 그녀석 면상에다 뿌려낼거야—
그녀석— 으으— 옥”

황노인은 한치두치 그를 향해 내리 덮혀지는 죽음의 그림자를 피해, 두팔을 휘이휘이 휘두르며, 안타깝게 저승사자 최판관과의, 이승에서의 마지막 씨름에 승부를 걸고 있었다.

“할멈— 저 밖을 봐 우리벌들이 몽상을 입었어, 하얀 목댕길 두……”

그리고 그만이었다.

예매기연 날아 가듯 영감이 벌이 되어 날아간 자리에는 아무런 흔적도 자취도 없었다.

그저,

황영감의 배잠방이 속엔 늘미기가 아무렇게나 벗어 던진 뱀허물 같은 영감의 시체만이 한가닥 방금 날아간 자의 껌대기 노릇을 툭툭히 해주고 있었다.

“아니—!! 저럴수가— 벌들이 정말 蒙喪을……”

꿈도 허깨비도 아니었다.

모가 나도록 또렷하고 선명한 사실일 뿐이었다.

할멈이 눈을 비비고 쳐다 본 하늘에는 새벽달이 매화봉 허리에 실기죽 걸려 있었고, 닭장 옷나무 해에서는 잠닭이 모강지를 길게 빼가지고선 힘차게 아침을 뽑아 울리고 있었다.

어둠이 고기비늘 처럼 조각조각 부서져 내리는 벌통주위에는 온통 목에다 흰맹기를 두른 벌들이 웅성거림으로 분주히 아침을 열고 있었다.

거기엔

세상 어느 누구도 감히 범할수 없는 숙연함이 도도히 흐르고 있었다.

한바퀴, 두바퀴, 세바퀴……

장수를 선두로 몽상입은 벌떼들은, 만장(輓章)을 앞세운 상여가 이승에서의 마지막 하직 인사를 드리려 정든집을 돌듯, 그렇게 벌통 주위를 맴 돌고 있었다.

이윽고 돌기를 멈춘 장수가, 화살처럼 하늘로 솟구치며 날아 올랐다.

아침이 폭포수 처럼 쏟아져 내리는 손바닥만한 양짓모테이 하늘을 몽상입은 벌들은 그렇게 솟구쳐 오르고 있었다.

가물가물 머얼리 아랫담쪽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벌떼를 향해 손을 흔드는 할멈의 두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내리고 있었다.

< 끝 >

필 자 약 려

- 횡성 감천 출생
- 강원일보 신춘문예 동화 당선 (78 年)
- 교육자료 대상 동화 당선 (78 年)
- 「업어까지」로 강원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 (1982 年)
- 신춘문우회 회원
- 복원문학회 회원
- 한국문인협회 원주지부 소설분과 위원장

特 輯

황성 「회 다 지」

金 承 基

I. 서 론

1984년은 우리 황성군은 물론 강원도의 文化界에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전환기를 마련한 한해였으며 문화원으로서도 활동을 재개한지 세해만에 큰 성과를 거두어 드리는 보람의 한해였다.

더우기 문화의 不毛地帶처럼 불리어지던 강원도의 영서권 그중에서 황성의 무형문화가 전국을 무대로 한 민속예술경연대회를 제패하였다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으며 또한 침체상태에 있는 지방문화계에 문화와 예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게 된것은 문화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문화창달에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9월 忠淸北道 忠州市에서 막을 올렸던 제 2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명실상부한 전국 민속예술의 한마당 경연장이었다.

이 경연대회에서 황성군이 강원도를 대표하여 출품한 「황성 회다지소리」가 각시도는 물론 이북 5도에서까지 출품한 18개 작품과 겨루어 이대회 출전 사상 그야말로 4반세기만에 첫번째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의 영광을 본도에, 안겨줘 내년도 제 26회 대회 개최지(開催地: 江陵市)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地方文化時代에 걸맞게 강원문화를 전국에 드높인 계기가 되었다.

이 「황성 회다지소리」를 출연하였던 「鼎金里 민속예술보존회(會長 梁斗煥 指導 李鍾浩)」는 회원 90명이 전원 정금 1, 2리, 한마을 사람으로 기능과 배역에 따라 남녀노소가 한데 어울려 편성되었으며 제 2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최우수상입상으로 전국대회출연단으로 결정된후 회원들의 피땀나는 노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8월말 늦장마로 군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온동네가 이수라장이 되다시피한 상태에서 수해와 失農의 아픔에 좌절하지 않고 오

히려 이를 영광의 밑거름으로 삼아 아픔을 이겨내고 대회를 출연한 것에서 전국제패를 향한 이들의 뜨거운 열정과 결의를 엿볼 수 있으며, 이들을 성원하여 준 군민은 물론 전도민과 대신하여 수해복구와 영농의 지원에 나선 지역주민 기관단체 임직원 학생 예비군 군인등이 출선하여 수해복구를 지원하여주고 강원도와 횡성군의 주무부서, 그리고 횡성문화원의 세심한 배려와 지도가 큰 힘이 되었다.

즉 이번 성과는 정금리민속예술경보준회, 주무기관, 전군민이 3位1體가 된 소중한 힘과 땀이 결정체가 아닐 수 없다.

筆者는 이「횡성 회다지소리」의 작품선정, 구성, 고증, 재현 및 출연등의 기획 및 실천에 일부를 맡았었기에 작품의 전반에 대한 소개와 아울러 우리나라의 전통장례의식에 대하여 언급하여 보고자 한다.

참고로 이 글은 본 작품의 구성, 고증, 재현, 지도 및 작품해설책자를 만들면서 얻어진 자료와 문헌을 기초로 하고 본 작품을 지도 감수한 關東大學校의 金善豊박사와의 자문에 의한 자료를 종합하여 기술하였음을 부언해 두고자 한다.

II. 작품의 내용과 해설

○ 作品發掘의 動機

우리의 대중 民俗藝術은 채개 민요(농요) 농악 민속무용, 민속놀이 민속극을 들 수 있으며 이번에 출연한 정금마을은 농요와 농악이 성행한 마을로서 제 1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鼎金미.나리타령」을 출품한 바가 있어 이마을을 중심으로 민요의 발굴을 시작하였으나 앞서 말한 대부분의 민속예술이 공히 다 발굴 재현한 상태이므로 그동안 禁忌시하여 삼가고 또 예술적 측면의 고찰을 소홀히 하였던 喪 祭禮에 관심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던 결과 최근 현대화란 서구식물질문명의 도입과 이와 함께 가정의례의 간소화 시책으로 그脈을 잃어가는 상례의식중의 소리(민요)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러한 동기에서 발굴한 것이 喪與의 運柩에서 상두꾼에 의하여 불려진 「상여소리」와 死體의 埋葬시에 불려지는 「회다지소리」로 이를 모아 그 제목을 「황성 회다지 소리」라 정하였다.

이는 십수년전만 하여도 이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것으로 그야말로 민중과 함께 숨쉬어 온 민족의 얼과 한이 깃든 그리고 선열의 넓이 서린 대중예술이며 민속이라 할 것이다. 이 소리(음악)의 시각적 효과를 돕기 위하여 옛장례의식 중 상여의 행진과정과 회다짐과정을 원형대로 고증하여 복원하였다.

따라서 이 「회다지 소리」는 멋들어진 가락(음악)과 율동(무용) 그리고 옛장례의식의 일부를 볼 수 있는 극(유희)적 효과를 조화있게 재구성한 민속예술의 결정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판단하에 이를 작품화하였다

◎ 작품의 배경

「회다지소리」를 保有하고 있는 橫城郡 隅川面 鼎金里 마을은 太白山脈의 자락인 군내 최고 높이인 泰岐山 줄기에 위치한 마을로 현재 정금 1,2 두개의 마을로 나누어져 있으며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까지만 하여도 서울과 강릉 즉 영동과 영서를 연결하는 유일한내륙교통 수단인 경강국도가 이마을을 관통하여 번창하기도 했던 곳으로 우리군민의 個性이기도 하듯이 이곳도 몹시 독창적이고 또한 배타적인 品性을 갖고 있어 영서영동문화의 교류지 역할을 하면서도 독자적인 文化圈을 형성하였고 이 두 文化를 수용하면서 이고장 특유의 摺合文化를 탄생시키기도 하였다.

이고장에서는 이「회다지소리」외에도 제 1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1983년 6월 강릉시 개최)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미나리 타령」 1973년 강원도민속예술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정금농악」과 미공개 민요로서 「정선아리랑」 「강릉 오돌도기」와 비금가는 「어라리타령」등 많은 무형의 민속예술을 소장한 마을이기도 하다.

◎ 作品의 由來

「회다지소리」는 인간이 한세상을 살아가면서, 出生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겪어야하는 通過儀禮中에서, 상례시에 불려지는 노래(소리)로서 王侯將相은 물론 서민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한번은 겪어야하는 死別을 주제로 한것으로서, 우리의 조상들이, 죽음 앞에서, 초연해 질수 있었던 것은 죽음 뒤에 반드시 온다는 佛家에서, 말하는 이른바 輪廻사상에, 입각한 極樂往生의 內世觀을 갖고 살아 온데 있는 것으로서, 특히 多福하게 장수한 이의 죽음을 이른바 好喪이라하여 슬픔에 젖어 애통해 하기보다는 喪事의 아픔과 비애를 오히려 극복하고 즐거운마음으로 일을 치룰 수 있었던 것은 조상들이 터득해 논 삶의 지혜요, 해학의 정수라 할 것이다. 이러한 지혜와 해학적요소를 승화시킨 死者를 환송하는 의식이 우리의 장례의식이며 「회다지소리」같은 극치의 예술을 낳게한 근원이다.

아무튼 우리의 조상들은 이것을 통하여 이웃의 아픔을 내것처럼 위로하고 어려운일을 상호부조하여 왔기에, 상가에는 위안과 일꾼과 이웃에는 협동심을 갖게하면서, 생성된 이 「상여소리」와 「회다지소리」는 더욱 더 우리에게 공감대를 갖게하고 전승되어온 민중예술이며, 機能謠이라 할 수 있다.

◎ 作品의 特性

이 소리의 특성은 노래(가사)와 율동이 함께 「늦은 가락」에서 시작하여 점차 「잡은 가락」으로 일의 힘듬에 비하여 빠르게 전환되어 가는 것으로서, 음악적 구성에서나 회다짐의 동작에 있어서, 「두발차기」에서 「세발차기」로 빨라지는 것을 엿볼 수 있으며, 전통적인 장례의식을 소박하고 사실적으로 재현하였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우리고장의 것은 다른 지역의 평범한 회다지소리와는 달리 앞선 말한 반와 같이 「늦은가락」과 「잡은 가락」이 있고 율동은 「두발차기」와 「세발차기」가 있고 노랫말(가사)는 亡者의 죽음을 애도하는 구성진 가락에서 시작하여 점차 산역(山役)하는 사람들의 흥을 돋구는 흥겨운 「메나리조」의 가락으로

전환한다.

回心曲은 亡者의 한을 달래는 한편 喪者를 위로하는 기능을 하면서, 점차 빨라지는 가운데, 山役꾼들에게 점층적인 힘과 흥을 돋구는 복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 특히 잦은가락이 나오면서, 회전식 「세발차기」동작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것은 오직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 作品의 연출과장

작품의 연출 및 진행과정을 과장별로 나누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제 1 과장 : 상여의 행진

喪事의 厄을 쫓는 역할을 하는 方相氏를 선두로하여 갖가지 만장과 亡者의 이름을 새긴 銘旌, 功布와 그 뒤에 혼백을 모신 腰輿, 喪輿 (상여의 전후 양옆에 4개의 운삼이 상여를 호위한다) 白가마의 순으로 이어지고 상주와 복천 양반과 서민, 일꾼, 이웃들이 따르며 이때에 선소리꾼(요령잡이)이 구슬픈 상여소리를 상두꾼과 함께 주고 받으면서 외나무다리등 장애물을 지나서 장지로 향한다. <별표>

제 2 과장 : 회다지소리와 울동

상여가 장지에 이르면 상여를 내리고 시신을 金井에 하관시키고 흙과 회를 섞어 金井에 넣은 뒤에 이를 굳게 다지는 과장으로서 본 작품의 핵이 된다.

여섯사람의 회다지꾼이 회작대기를 들고 금정안에 들어가고 선소리꾼이 좌우에 1명씩 서서 선소리를 주면 울동과 함께 회다지. 꾼이 받아서 한다.

(원래는 회다지 꾼이 6명이나 이작품 발표시 시각적 효과를 위하여 인원을 8명으로 하고 금정도 원형보다 다소 크게 하였으며, 원형은 8명의 회다지꾼이 한조가 되어, 6명은 금정에 들어가 일을 하다가, 힘이 들면 밖의 2명과 돌아가면서, 교대하여 일하였던 것임을

밝혀 둔다)

그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廻灰: 처음회를 다지는 동작으로서, 선소리에 맞춰 서로 등을 대고 엎드려서, 다리를 드는 율동을 반복하는 과정으로서, 매우 느린 동작과 낮은 가락이다.
- 鑄灰: 중간다지기 과정으로서 회다지꾼들이 회작대기를 바꾸어 쥐어 가면서, 회를 다지며 돌아가는데 이는 연회과정 보다 조금 빠른 율동과 가락이다.
- 傍灰: 마지막다지기로 회다지의 절정을 이루는 과정으로서, 두발차기와 세발차기로 바뀌는 율동과 소리가 매우 빠른 회를 굳게 다지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이지역에만 있는 것으로서, 이 과정에서 흔히 앞서, 말한대로 8명이 2명씩 교대하면서, 회를 다진다.

제 3 과정: 회다지가 모두 끝나고 회다지꾼이 밖으로 나와 모든 일꾼과 함께 흥이 극에 달하여 「에헤라」달회를 부르며 회다지를 마무리한다.
(이후의 장례과정은 본 연출에서 생략되고 입장(제 1 과정)의 순으로 퇴장한다. <별표>

III. 「횡성회다지소리」의 노랫말(歌詞)

횡성회다지소리의 노랫말은 크게 「상여소리」와 「회다지소리」로 대별할 수 있으며, 상여소리를 香徒歌(또는 香頭歌, 行徒歌)라 하여 곧 이 輓歌는 죽은 이의 영혼을 달래주고 亡者의 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부르는 儀式謠인 동시에 機能謠이며, 그중에서도 메김노래의 민요류에 속한다. 고대한국문학은 습唱的인 세계에 있어 이해 되어야 한다. 그것은 巫歌나 頌歌, 輓歌나 할 것없이 독창이 아닌 합창형식으로 불리어 졌다.

횡성회다지소리의 가사는 踏山歌와 回心曲이 그 주류를 이루며 그 내용은

불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유교적 이거나 무속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시대적 역사적으로 변천되어 온 것을 엿볼 수 있는데 그내용의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踏 山 歌〉

古降俗未 之中에
 風水法이 생겨났오
 山論眞價를 分別함을
 諺譯으로 의논하니
 內容淸譯 凶吉地를
 누구라서 알아볼고
 群砂吉凶 殘風處를
 누구라서 分別하리
 영웅호걸이라야
 分明하게 알리로다
 富貴와 榮華 好衣食은
 山川의 發應이요
 곤륜상의 大關嶺은
 黃河水와 상응했네
 운석 산의 봉황성은
 낙도의 여기로다
 朝鮮國의 八道山을
 歷歷하게 돌아보니
 威鏡道의 大關嶺은
 聖代山의 내맥이요
 平安道의 茲母山은
 大同江이 配合하고
 黃海道의 九月山은

首陽山の 胎息이요
 京畿道의 三角山은
 한강이 回潮하고
 江原道의 太白山은
 王屋山の 枝孫이요
 忠淸道의 계룡산은
 白馬江이 둘러있고
 慶尙道의 都陰山은
 洛東江의 元潮로다
 全羅道의 月出山은
 乾旨山이 상응했네
 龍三合 穴三合은
 得水로서 尊主하여
 녹분수에 王行地里
 穴三合도 하도할사
 익친구산 하라할제
 선창부귀 生覺하고
 세배安寧 이렸거던
 殘風向陽 구할소냐
 速發速富 하려하고
 上取風露 哉월하니
 完富만 믿었더니
 下取空亡 하리로다

照山지람 하려다가
 殺水를 몰라보며
 人間雙行 살펴보소
 망발한이 더욱나서
 寅仰服은 辰方破요
 속발속패 저기로다
 노옥수와 형옥수는
 자손의 추앙이요
 巽辛히건 戌風은
 방명이 화영이라
 간간하던 태풍은
 남잔여가 저기로다
 과광은 厄戌란은
 骨肉相爭 참혹하다
 乾牛方の 形寅砂은
 고목 날줄 누가알라
 어화 어화 可笑롭다
 富貴墳山 마치었고
 친삼심용 재혈인들
 그대토록 의할하라
 永山水火 염진은
 神眠으로 마치었고
 癩疔王闕 너나거던
 丙砂호환 피하러면
 背曲要曲 곱사등이
 玄武曲尺 八道牛形
 두풍중풍 와함질은
 案對와석 습류로다
 승세 악치 보기로는

이골입석 살펴보소
 녹태방이 증파하면
 강보자식 기를소나
 관대방이 酉破하면
 자란자식 다죽었다
 丑寅方の 호화사는
 고평지병 고질풍진
 寅申巨亥 照水마소
 음질색이 사행하리
 沐浴方에 현군자는
 음행오륜 가려한다
 자규오산 어치못이
 殘形三患 어인일고
 卯酉규산 너나거든
 万枚탐환 환재로다
 坤申方の 文筆峯 万
 쟁송시비 가이없다
 오칸방에 나는情氣
 겁탈인 뿐이로다
 팔요方の 걸인刀砂
 헌법주에 빠질세라
 黃泉方の 와우사는
 小年橫死 절로난다
 구계금이 조혼사법
 아까울사 坤末仰申
 목표맹발 너나거든
 승이개질 못면한다
 포두측면 안대마소
 자손사옥 그안인가

眞龍正穴 凶吉破를
 알아볼때 전혀없다
 功名富貴 多子孫은
 우상에 버렸거든
 탐용할 말이없고
 哉穴에. 눈이멀어
 乾山方山 제頭石은
 대풍질중 섞어온다
 酒亡금死 질미치난
 巽高險에. 險石이요
 玄군방에 안대마소
 남여로색 흠별힐이
 民亥方에. 山마소
 於臣賊子 敗家한이
 龍虎案對 안진몸이
 少妻好夫 자질시고

태수寅方 장류수는
 新婦도 음하다
 高者臣下 자주일고
 요주안대 자주일어
 요질고 어진병은
 坤方問에 호술견인가
 흥부통 배얹거든
 巽方險石 탓이로다
 辰方長峯 굽어보소
 一目矢明 포장이요
 辰水連於 巽水하면
 구던언질 이르도다
 娥骨山於 오침함이
 亡目雀目 흘게는
 巫女란사 너털기는
 주후산축 面이요. <이하생략>

<回 心 曲 I>

에헤라 달희
 에헤라 달희
 강중원에 6 지원님
 이내말씀 들어보소
 광중이에 6 지원이요
 광중밖엔 나혼자인데
 먼데 손님 듣기 좋게
 가까운 손님 보기 좋게
 창포밭에 금어늘듯

금실금실 놀아보세
 도덕군자 무지등거
 요순우왕 문무주공
 도덕이 과찬해도
 죽음을 못면해서
 지우제향 승하하고
 만승천자 진시황은
 장생불사하랴고서,
 동남동여 5 백인을

삼신산 불로초의
 봉래산의 불사약을
 구하여다 보냈으나
 소식조차 영결하고
 여산에 무덤일세
 말잘하는 소진장이
 육국제를 다달래도
 염라대왕 못달래고
 천하일색 양귀비도
 매호관에 물렸으며
 삼육십팔 요임금과
 삼천감자 동박삭도
 죽음을 못면하고
 지은계항 승하하고
 역발산 기가세도
 오광계에 제사하고
 삼황오제 저임금도
 죽음을 못면해서
 선수천산 무덤되고
 시잘짓는 이태백도
 글잘하는 도연명도
 인생일사 못면했네
 계명산 추야월에
 구추구추 깊은밤에
 장랑이에 옥통소도
 팔천제자 잃은뒤에
 오강에서 죽었으니,
 초로인생 길다해도
 일장춘몽 못면하고

불여귀를 일삼는가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서러마라
 명년 3월 돌아오면
 꽃은다시 피련만은
 한번가신, 우리인생
 자취조차 간곳없네,
 천증세월 인증수요
 수지건곤 복만가라
 당상부모 천년수요
 슬하자손 만세영이라.

긴소리는 그만두고
 자진소리 불러보세,
 초한가를 불러볼까
 회심곡을 불러볼까

이세상에 나온사람
 뉘덕으로 태어났나
 석가여래 제자되어
 칠성님전 명을타고
 삼태성의 복을벌어
 아버님전 뼈를타고
 어머님전 살을얻어
 이세상에 태어났네
 한두살에 철을몰라
 무럭무럭 자라다가
 이삼십을 당도하니
 부모은공 모르다가

오십평생 지나오니,
 유수같이 빠른세월
 오늘날에, 당도하여
 부모생각 절로난다
 회고하니, 눈물일세
 수육량이 풍부지요
 부용량이 무부지다
 무정세월 약류파라
 어제까지, 짐든머리
 오늘날에, 백발되고
 눈어둡고 귀먹으니,
 망녕이나 일삼는데
 실날같이 약한몸에
 태산같은 중병언어,
 명의불러, 약을쓰니
 약덕이나 입을손가
 판수불러 경읽으니,
 경덕이나 입을손가
 무너드려, 굶을하니,
 굶덕을 입을손가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는게, 냉수로다
 애 닳고 애 타게도
 이세 상을 하직일세
 일가친척, 많다면들
 어느누가 대신가며,
 자식들이 많다면들,
 어느자식 대신가랴
 일직사자 월직사자

대문앞에 당도하여
 성명삼자 부르는소리,
 삼간대청 울리누나
 저승길이 멀다드니
 대문앞이 저승일세
 인생공덕 쌓은후에
 극락정에, 입시하여
 영생복록 누리리다
 태백산의 추봉되어
 봉화산이 솟았으며
 좌청룡 우백호와
 삼강이 돌렸으니
 천하대지 분명하다
 아들이면 삼형제요
 정승판서 날것이네
 에헤라 달회
 에헤라 달회

〈 回 心 曲 Ⅱ 〉

천지천지 분후에
 상남화상 일어나니
 세상천지 만물중에
 사람밖에 또잇는가
 여보시오 동포님들
 이내말씀 들어보소
 이세상에 나온사람
 누덕으로 생겼음네
 부처님의 은덕으로
 아버님전 뼈를타고
 어머님전 살을타고
 칠성님께 명을타고
 제석님께 복을타고
 석가여래 내도하여
 인생일신 탄생하니
 한두살에 칠을몰라
 부모은공 모르다가
 이삼십을 당도하여
 야속한 고생살이
 부모은공 갚을소냐
 절통하고 애통할손
 부모은공 못다갚아
 무정세월 약류하여
 원수백발 달려드니
 인생칠십 고래희라
 없던망녕 절로난다
 망녕들어 변할소냐

이팔청춘 소년들아
 늙은이망녕 웃지마라
 눈어둡고 귀먹으니
 망녕이라 비웃으며
 구석구석 웃는모양
 절통하고 애닿을손
 할일없고 할일없다
 흉안백발 되었으니
 다시젊지 못하리라
 인간백년 다살아도
 병든날과 잠든날
 걱정근심 다제하면
 단사십을 못사나니
 어제오늘 성된몸이
 저녁나절 병이들어
 섬섬약질 약한몸이
 태산같이 무거우니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느니 냉수로다
 인삼녹용 약을쓴들
 약덕을 입을소냐
 판수불러 경워으니
 경덕인들 있을소냐
 무너불러 굶을하니
 굶덕인들 있을소냐
 재미쌀을 쏘고쏘어
 명산대천 찾아가서

상탕에 메를 짓고
 중탕에 목욕하고
 하탕에 세수하고
 향로향합 불갓추고
 황촉한방 불켜놓고
 소지삼장 들인후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칠성님께 발원하고
 부처님께 공양한들
 어느곳의 부처님이
 감응하여 살릴소냐
 십왕전에 불인사자
 십왕전에 명을받아
 일직사자 월직사자
 한손에 패자들고
 또한손에 칠편들고
 오라사슬 벗겨차고
 활동같이 굵은길로
 살대같이 달려와서
 단은문을 박차면서
 천둥같이 호령하며
 성명삼자 불러내어
 어서나서. 바빠가자
 뉘분부라 거사리며
 뉘명이라 지체할까
 팔뚝같은 쇠사슬로
 실날같은 이내목을
 잡아매어 끌어내니
 혼비백산 나죽겠네

사자님네 내말듣소
 시장한테 점심접수
 신발이나 준비하고
 노자돈냥 가져가게
 만 단계유 애걸한들
 저사자가 들을소냐
 애고답담 서룬지고
 이틀어이 하잔말고
 불쌍하다 이내일신
 인간하직 망극하다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서러마라
 명년삼월 봄이되면
 너는다시 피려니와
 인생한번 돌아가면
 다시오기 어려워라
 이세상 하직하고
 북망산에 가리로드
 어찌갈고 심산현로
 정처없는 길이로드
 불쌍하고 가련하다
 언제다시 돌아오리
 처 자식의 손을잡고
 만담설화 유언하고
 정신차려 돌아보니
 약탕관을 버려놓고
 지성,구호 극진한들
 죽을병을 살릴소냐
 옛늬은이 말들으니

저승길이 멀다더니
 오늘내가 당하여서
 대문밖이 저승이라
 친구벗이 많다한들
 어느친구 대신가며
 일가친척 많다한들
 어느일가 등장하라
 구사당에 하직하고
 신사당에 헌배하고
 대문밖을 썩나서니
 적삼내어 언저놓고
 혼백불러 초혼하고
 없던곡성 낭자하다
 월직사자 등을밀고
 일직사자 손을끌어
 천방지방 몰아갈때
 높은데는 낮아지고
 낮은데는 높아지니
 시장하고 숨이 차다
 애곡하고 고생하여
 알뜰살뜰 모은재물
 먹고가나 쓰고가나
 세상일이 다허사일세
 사자님아 쉬어가세
 들은체도 아니하며
 쇠뿔치로 두드리며
 어서바빠 가자하여
 그럭저럭 열나홀에
 저승원문 다다르니

우두나찰 마두나찰
 소리치며 달려들어
 인정달라 하는소리
 인정쓸것 아니었다
 담배줄여 모은재물
 인정한푼 써나볼까
 저승으로 날라오며
 환전붙여 가져올까
 의복벗어 인정쓰고
 열두대문 들어가니
 무섭기도 그지없고
 두렵기도 측량없다
 대령하고 기다리니
 옥사장이 분부하여
 남여죄인 잡아들여
 다짐받고 문초할제
 귀면나찰 나졸들이
 전후좌우 버려서고
 거친창검, 삼엄한데
 대상호령 기다리니
 엄숙하기 측량없다
 남자죄인 차례차례
 영고하여 남입한후
 형벌하고 묻는말이
 이놈 들어보라
 선심하여 발원하고
 인세간에 나아가서
 무슨선심 하였느냐
 바른대로 아뢰어라

용방비간 본을받아
 임금에게 충성하며
 중자왕상 효측하여
 혼전신성 효도하고
 늙은이를 공경하고
 형우제공 화순하고
 부와부순 화목하고
 봉우유신 하렸으나
 진심공덕 하였더니
 무슨공덕 하였느냐
 배고프니, 밥을주어
 무사공덕 하였느냐
 헐벗으니, 옷을주어
 구난공덕 하였느냐
 좋은터에 집을지어
 행인 유숙시켰느냐
 깊은물에 다리놓아
 월천공덕 하였느냐
 목마르니, 물을주어
 금수공덕 하였느냐
 병든사람 약을주어
 활인공덕 하였느냐
 높은위에 불당지어
 중생공덕 하였느냐
 좋은밭에 원두놓아
 반인해결 시켰느냐
 부처님께 공양들어
 염불공덕 하였느냐
 마음뒹아, 선심하여

어진사람 오라하고
 불의행사 몸쓸마음
 흉악하기 극심하다
 구렁뱀의 암수되어
 만집인들 벗어나라
 착한사람 불러들여
 공경하고 대접하여
 몸쓸놈들 구경하라
 극락가는 사람봤소
 네소원을 다일러라
 네 원대로 하여주마
 극락세계 가려느냐
 연화계로 가려느냐
 신선제자 되려느냐
 장생불사 하려느냐
 옥체앞에 신인하여
 반도소임 하려느냐
 석가여래 제자되어
 선과소임 하려느냐
 선여차지 선관되어
 요지연에 가려느냐
 환생인간 하려느냐
 부귀공영 하려느냐
 남중일백 호풍신에
 명문제가 되려느냐
 삼군사명 총독하여
 장수몸이 되려느냐
 팔도감사 육조판서
 대신몸이 되려느냐

수명 장수 부귀하여
 부자몸이 되려느냐
 어서바빠 아뢰어라
 옥제전에 보장하자
 석가여래 아미타불
 제도하여 이문하자
 삼십넘어 점진할제

바빠바빠 제도하라
 대우단에 올려놓고
 귀찬으로 대접하고
 몸쓸놈을 잡아들여
 착한사람 구경하라
 저런사람 선심으로
 귀히되어 가는구나.

(回心曲 II는 정금마을에 전승되어 온 것을 기능보유자들의 口述에 의하여 採集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이지방의 回心曲과 문헌상 전해오는 原典과 비교연구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기위하여 原典인 回心曲 III을 轉載하고자 한다.)

〈 回 心 曲 Ⅲ 〉

세상천지 만물중에
 사람밖에 또잇는가
 여보시오 시주님네
 이내말씀 들어보소
 이세상에 나온사람
 뉘덕으로 나왔는가
 석가여래 공덕으로
 아버님전 뼈를 빌고
 어머님전 살을얻어
 칠성님전 명을벌고
 제석님전 복을벌어
 이내일신 탄생하니
 한두살에 칠을몰라
 부모은덕 알을손가

이삼십을 당하여도
 부모은공 못다갠아
 어이없고 애닦고나
 무정세월 역류하야
 원수백발 돌아오니
 없는망령 절로난다
 망령이라 흉을보고
 구석구석 웃는모양
 애닦고도 설은지고
 절통하고 분통하다
 할수없다 할수없다
 흉안백발 늙어가면
 인간에 이공도를
 누가능히 막을손가

춘초는 년년죽이니
 왕손은 귀불귀라
 우리인생 늙어지면
 다시젊지 못하리라
 인간백년 다살아다
 병든날과 잠든날과
 걱정근심 다제하면
 단사십도 못살인생
 어제오늘 성튼몸이
 저녁나절 병이들어
 섬섬약질 가는몸에
 태산같은 병이드니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는것이 냉수로다
 인삼녹용 약을쓰니
 약효험이 있을손가
 판수불러 경읽은들
 경의덕을 입을손가
 무너불러 곳을하나
 곳덕인들 있을손가
 재미쌀을 쓸고쓸어
 명산대천 찾아가서
 상탕에 메를짓고
 중탕에 목욕하고
 하탕에 수족씻고
 축대한쌍 버려놓고
 향료향합 불갓추고
 소지한장 든연후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전 비나이다
 칠성님전 발원하고
 신장님전 공양한들
 어느성현 이름있어
 감응이나 할까보나
 제일전에 진광대왕
 제이전에 초강대왕
 제삼전에 송제대왕
 제사전에 오관대왕
 제오전에 염라대왕
 제육전에 변성대왕
 제칠전에 태산대왕
 제팔전에 평등대왕
 제구전에 도시대왕
 제십전에 전문대왕
 열시왕의 부린사왕
 일직사자 월직사자
 열시왕의 명을받아
 한손에 철봉들고
 또한손에 창검들고
 쇠사슬을 벗겨차고
 활동같이 굽은길로
 살대같이 달려와서,
 단은문을 박차면서,
 뇌성같이 소리하고
 성명삼자 불러내어
 어서가자. 바빠가자
 뉘분부라 거역하며
 뉘영이라 지체할까

실날같은 이내목에
 팔뚝같은 쇠사슬로
 결박하여 끌어내니,
 혼비백산 나죽겠네
 여보시오 사자님네
 노자돈 갖고가게
 만단개유 애걸한들
 어느사자 들을손가.
 애고답답 설은지고
 이틀어이 하잔말가
 불쌍하다 이내일신
 인간하직 망극하다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서러마라
 명년삼월 봄이오면
 너는다시 피련만은
 우리인생 한번가면
 다시오기 어려워라
 북망산을 돌아갈제
 어찌갈고 심산험로
 한정없는 길이로다
 언제다시 돌아오랴
 이세상을 하직하니
 불쌍하고 가련하다
 처자의 손을잡고
 만단설화 다뭏하여
 정신차려 살펴보니
 약탕관 버려놓고
 지성구호 극진한들

죽은목숨 살릴손가
 옛늬은이 말들으니
 저승길이 멀다드니
 오는내게 당하여선
 대문밖이 저승이라
 친구벗이 많다한들
 어느누가 동행할까
 구사당에 하직하고
 신사당에 예배하고
 대문밖을 썩나서니
 적삼내여 손에들고
 혼백불러 초혼하니
 없는곡성 낭자하다
 일직사자 손을끌고
 월직사자 등을밀어
 풍우같이 재촉하여
 천방지방 몰아갈제
 높은테는 낮아지고
 낮은테는 높아진다
 악의악식 모은재산
 먹고가며 쓰고가랴
 사자님아 사자님아
 내말잠간 들어주오
 시장한데 점심하고
 신발이나 고쳐신고
 쉬어가자 애걸한들
 들은체도 아니하고
 쇠뿔치로 등을치며
 어석가자 바삐가자

이렇저렇 여러날에
 저승원문 다달으니
 우두나찰 마두나찰
 소리치며 달려들어
 인정달라 비는구나
 인정쫄든 반푼없다
 담배끓고 모은재산
 인정한푼 썬불손가
 저승으로 옮겨올까
 환전부처 가져올까
 의복벗어 인정쓰며
 열두대문 들어가니
 무섭기도 끌이없고
 두렵기도 측량없다
 대명하고 기다리니
 옥사장이 분부들고
 남녀죄인 등대할제
 정신차려 살펴보니
 열시왕이 자개하고
 최관관이 문서잡고
 남여죄인 잡아들여
 다짐받고 봉초할제
 이두귀면 나찰들은
 전후좌우 벌려서서
 기치창검 삼열한테
 형벌기구 차려놓고
 대 상호령 기다리니
 엄속하기 측량없다
 남자죄인 잡아들여

형벌하며. 묻는말이
 이놈들아 들어보라
 선심하라 발원하고
 인세간에 나아가서.
 무슨선심. 하였는가.
 바른대로 아뢰어라
 용왕비간 뵈을받아
 임금님께 극간하여
 나라에 충성하며.
 부모님께 효도하여
 가법을 세웠으며.
 배고폰이 밥을주어
 아사구제 하였는가
 헐벗은이 옷을주어
 구란공덕 하였는가
 좋은곳에 집을지어
 행인공덕 하였는가.
 깊은물에 다리놓아
 월천공덕 하였는가
 목마른이 물을주어
 금수공덕 하였는가
 병든사람 약을주어
 활인공덕 하였는가
 높은산에 불당지어
 중생공덕 하였는가
 좋은밭에 원두심어
 행인혜갈 하였는가.
 부처님께 공양들여
 마음뒀고 선심하야

염불공덕 하였는가
 어진사람 모해하고
 불의행사 많이하며
 탐재함이 극심하니
 너의죄목 어찌하리
 죄악이 심중하니
 풍도옥에 가두리라
 착한사람 불러들여
 위로하고 대접하며
 몸쓸놈들 구경하라
 이사람은 선심으로
 극락세계가 올지니
 이아니 좋을손가
 소원대로 물을적에
 네원대로 하여주마
 극락으로 가려느냐
 연화대로 가려느냐
 선경으로 가려느냐
 장생불사 하려느냐
 서왕모의 사환되어
 반도소임 하려느냐
 네소원을 아뢰어라
 옥제에게 주품하사
 남중절색 되어나서
 요지연에 가려느냐
 백만군중 도록되어
 장수몸이 되겠느냐
 어서바빠 아뢰여라
 옥제전에 주문하며

석가여래 아미타불
 제도하게 이문하자
 산신불러 의논하며
 어서바빠 시행하지
 저런사람 선심으로
 귀히되어 가나니라
 대웅전에 초대하여
 다과올려 대접하며
 몸쓸놈을 잡아내어
 착한사람 구경하라
 너히놈들 죄중하니
 풍도옥에 가두리라
 남자죄인 처결한후
 여자죄인 잡아들여
 엄형국문 하는말이
 너의죄목 들어봐라
 시부모와 친부모께
 지성효도 하였는가
 동생항렬 우애하며
 친척화목 하였느냐
 괴악하고 간특한년
 부모말씀 거역하고
 동생간에 이간하고
 형제불목 하게하며
 생사간악 다루리며
 열두시로 마음변화
 못듣는데 욱을하고
 마주앉아 웃음낙담
 군말하고 성내는년

남의 말을 일삼는년
시기하기 좋아한년
풍두옥에 가두리라
죄목을 물은후에
온갖형벌 하는구나
죄질경중 가리어서
차례 차례 처벌할제
도안지옥 화산지옥
한방지옥 검수지옥
아침지옥 거해지옥
각처지옥 분부하야
모든죄인 처결한후
대연을 배설하고
착한여자 불러들여
공경하며 하는말이
소원대로 다일러라
선녀되어 가려느냐
요지연에 가려느냐
남자되어 가려느냐
재상부인 되려느냐
제실왕후 되려느냐
제후왕비 되려느냐
부귀공명 하려느냐
네원대로 하여주마
소원대로 다일러라
선녀블러, 분부하야
극락으로 가게하니
그아이 좋을손가
선심하고 마음뒹아

불의행사 하지마소
회심곡을 업신여겨
선심공덕, 아니하면
우마형상 못면하고
구렁배암 못면하네
조심하여 수신하라
수신제가 능히하면
치국안민 하오리니
아무쪼록 힘을쓰오
적덕을 아니하면
신후사가 참혹하니
바라나니 우리형제
자선사업 많이하여
내생길을 잘뒹아서
극락으로 나아가세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IV. 출연자와 구성

횡성「회다지소리」를 출연한 정금리 민속보존회는 梁斗煥씨를 단장으로 정금리 2리 주민 90명으로 편성되었고 지도에는 李鍾浩씨가 맡고 있다.

구성과 배역은 크게 나누어 상두꾼과 상가의 상주, 복친, 동리주민, 잡일꾼들을 들 수 있으며 여기에서, 예술적인 기능은 상두꾼 회다지꾼과 선소리꾼을 들 수 있으며 이밖에 출연진은 소리를 중심으로한 예술적 기능보다는 시각적 효과와 옛 장례의식의 재현을 위한 기능상 필요한 배역이다.

출연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선 소 리 : 우영진 양중환
- 상 주 : 윤양수 손호창 안재호 민영화
- 복 친 : 정택수 차행술 김재충 임백순
- 방 삼 시 : 김영택 이종순
- 요 여 꾀 : 김의환 김길중
- 가 마 꾀 : 손수병 안상국
- 상 두 꾀 : 안창호 이재범 허성범 윤양식 엄상익 송상순 최익수 이운우
이병우 유명배 김영배 이영수 전영기 이종태 김병구 윤주식
김진희 최춘식 김중천 장현흠 홍제호 김남국 김도환 이종근
이정섭 원호봉 김일경 이병학 신용승 이계범 진한두 진기선
이병태 이진갑 이광우 엄연태
- 기 수 : 홍성익 엄문용
- 명 정 : 이상용
- 공 포 : 강승호
- 만 장 : 경철호 이우득 경명호 엄경태 김성범 박병환 권민철 양재학
전재학 이상수 안상선 최두혁 엄인용 엄재순 홍순태 김종철
윤은식
- 양 반 : 손복용 경승태 윤양선 경순덕
- 서 민 : 장기달 최종근

- 여 인 : 권성운 김연순 의필순 홍순옥
- 지 계 : 김만준 이호근
- 장 치 : 박용민 이종환

V. 발인제와 路祭

다음은 「회다지소리」의 연구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상례의식에 관하여 소개한다.

인간이 죽어 마지막으로 거쳐야하는 의례를 상례라 한다. 상례는 다시 威服 禮, 路祭, 山神祭, 開土祭, 下棺, 平土祭 등으로 그 과정을 나눌 수 있고 그 시대적 형식으로 모아 구식과 신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식은 농촌사회를 신식은 도시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자고로 우리나라는 「家家禮」라 해서, 지리적으로 다르고 노릇 소론등 당색이나 문중성격에 따른 통과 의례가 각각 있어 왔다. 그러나 朱子家禮가 기본적인 것이고 숙종때에 李締가 편찬한 「사례편람」 영 정조때의 유장원의 「상변례통고」와 광해군때 신의경의 「상례비요」 가장 많이 이용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는 주로 「四禮義節」의 내용을 참고로 상례중 발인제, 노제, 산신제에 대하여서만 논하였다.

축관이 혼함(魏帛箱)을 널앞에 있는 交椅에 모신뒤, 음식을 차리고 축관이 분향한 뒤, 술을 따르고 나선, 꿇어, 앉아 축을 읽게 되면 주인인, 상주가, 곡 재배(哭再拜)하는데 이를 「견전고사」라 한다. 원래 우리민족으로서는 축을 읽기전에 울지 않는 것이 예의거너와 기침소리도 내지 않는 것이 법식이다.

이어 철상하고 집사가 종이를 가지고 전포(전포: 전을 드릴 대, 구포 내지 북어.)를 싸서 영거(靈車: 腰輿)안에 넣는다. 축관은 혼백을 모셔다가 영거에

모시고 분향한다. 이때 주독(신주담는 제작)은 뒤에 위치하고 魏帛은 앞에 위치한다.

한편 집을 지키는 守舍者는 영거에다 곡하고 하직할때 재배를 하여야 한다. 그후 집사는 향로, 향합, 촛대를 수레앞에 갖다 올려 놓고 노끈으로 단단히 맨다.

다음은 발인이다. 발인제는 죽은자가 장지로 떠나는 의식절차로 인간이 거쳐야하는 마지막 의식절차이다. 속중때의 남계 박세채는 상을 같이 당했을 때에는 重한쪽이 먼저가고 輕한 쪽이 나중에 간다. 즉, 先重後輕이라 이르고 있다. 이는 곧 父子간에 상을 당했을 때 부가 먼저 간다는 뜻이다.

다음은 발인 행렬이다. 그 순서는 ① 方相氏 ② 哭婢 ③ 行者 ④ 祭床 ⑤ 交輿 ⑥ 운삼(雲삼) ⑦ 喪主 ⑧ 服人 ⑨ 친척 ⑩ 빈객 순으로 행렬 되어야 하는것이 원칙이나 요즈음은 각각 도단위나 부락단위로 약간 다르게 나타난다. 강원도의 대표적인 행렬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명정 → 공포 → 만장 → 요여 → 상여 → 방상씨(方相氏, 放喪, 放想氏 방장, 방장씨: 이는 원래 朱나라의 주관 이름으로 하관에 속한 역귀를 쫓던 사람을 이른다. 그이름은 黃金四目으로 붉은 옷을 입고 검은치마를 둘러썼고 창과 방패를 들고 있어 무서운 형상을 하고 있다고 되어있다. (주례, 순자, 후한서.) 검은색 옷을 죽음과 암흑을, 붉은 색은 벽사, 축귀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축귀를 목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니, 「문헌비고」의 궁중의 나례의식에서, 「방상씨가 착가면 황금사목」이라는 기록으로 그를 이해할 수 있겠다. 나례뿐이 아니라 임금의 行幸이나 중국사신의 영접등에도 축귀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후 변천하여 장례때 궁중의 잡귀를 몰아낸다는 뜻으로 무시무시한 방상 두사람이 가면을 쓰고 상여옆에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묘지에서도 창을 가지고 사발 모퉁이를 지킨다.

다음은 곡비, 노인이 떠른다. 곡비는 울면서 장례때 행렬의 앞에 가는 계 집종을 이른다. 진정 亡人에 대한 슬픔(喪)과 존경(敬)의 정은 곡성으로 표현된다. 그렇기 때문에 곡성은 하늘에 닿도록 끊어져서는 안되고 그 곡진한 곡성은 망자의 학덕, 은덕, 은공등 모든 선덕에 대한 그리움(존경)의 상징이다. 서구인이 찬송가를 즐겁게 부르며 망자의 공을 기렸다면 한국인은

울면(哭)서 신에게 공덕을 기렸다.

한국의 시가가 신라시대 그이전부터 「아아」「아야」등 한사문학으로 노래가 정제 되었음은 「새가 운다」를 「새가 노래한다」로 감각적 의미를 일치시켰던 정서적인 한국인의 사유와 일치한다. 망자를 위하여 서구인은 노래를 부르면서 신에게 보냈지만 우리선인들은 울면서 신에게 망자에 대한 경(敬)을 표시한다는 Code의 상위만이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인은 울기를 좋아한다.

그 우는 노래는 한국 巫教, 巫歌에서 출발한다. 그러기에 그들은 불교가 들어와도 기독교가 들어와도 슬픈곡이 불리지고 예배를 보아도 손바닥을 치고 울어야 직성이 풀린다. 부르는 찬송의 종교가 손바닥을 치며 우는 무속의 종교로 변질되는 요즈음 종교형태도 기실 살펴보면 한국인의 체질화 된 곡의 습성 때문인것 같다.

다음은 行者 2인이 따라 가는데 원래 행자는 상제를 모시고 따라가는 祭服을 입은 하인을 말한다. 보통 행자2명중 한사람은 교의를 들고 또 한사람은 香床을 들고 따른다. 행자는 일명 侍者라고도 한다. 그리고 그뒤에 銘旌이 따른다 명정의 뒤에는 신위를 모신 요여(腰輿) 영여(靈輿, 靈車)가 뒤따르고 이어 死者의 의관, 신, 책등을 넣은 혼교(魏橋)가 이어진다. 또한 비단이나 종이에 적어서 만든 挽章이 뒤를 잇는다. 功布라하여 관을 씻을 형접이 뒤따르고, 삼이 따른다 원래 삼이란 것으로 만들었으나 후세에 와서는 네모진 화포(画布)에 길이 다섯자의 자루가 있고 긴털을 장식한다. 삼도 大夫는 밭(跋)삼을 쓰고 士는 운(囊)삼을 쓰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것은 일종의 부채와 같은 것으로 좌우에서 영구를 모시는 구실을 한다.

보통 종이나 막대기로 만들고 관을 움직여주는 기능을 한다. 이때에 운삼은 상여옆 좌우에다 세우고 가는데 버금아(亞)자를 쓴것은 뒤에간다(亞前雲俊) 大興가 발행할 때 주인(상주)이하 모두 곡을 하면서 따라가다가 동구밖을 나가서 말을 탄다. 「開元禮」란 책의 註를 보면 묘지가 멀거나 병들어 걸을 수 없는 자와 상주와 여러 아들은 수레(惡車)를 타고 무덤에 가서 내린다고 되어 있다. 옛날에는 대여를 썼지만 이는 가난한 사람은 할 수 없으니 풍속에 따라서 상여를 썼던 것이다. 도중에 슬픈생각이 나면 언제나 수시로 곡을 한다. 묘소가 멀면 매번 머물때마다 널앞에 영좌를 설치하고 아침저녁

으로 곡하고 절을 한다. 먹을 때는 음식을 올리고 밤에는 주인형제가 모두 널 옆에서 자고 친척도 그들과 함께 지킨다. 마을 밖에서 손님들이 영구를 머물게 하면 주인이하는 모두 수레에서 내려 곡을 해야 한다. 그러면 손님들은 영구를 향해 서서 두번 절을 하고 돌아간다.

종래에는 장지가 멀어 멀리 가게 되면 그럴때마다 주인이 영혼에게 드리는 거릿제(路祭: 노지)가 있었는데 이를「祖道」라 한다. 경상남도에서는 냇가나 길이 험할 경우 상여가 서머는 사위나 친척이 「월광채」라 하여 돈을 상여에 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상제가 거릿제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친구 또는 애학도(愛學徒)들이 상여가 설만한 곳에 먼저 차일을 치고 제사를 지내주는 미풍이 있었다. 묘에 이르기전에 집사가 먼저 靈幄(영을 모시는 자리)을 설치한다. 제청에 병풍을 두르고 광막을 치고 자리를 깔고 상을 차리며 남향으로 插卓과 교의에 향함, 향로를 놓는다. 방상이 와서 창으로 네 귀퉁이를 찌른다. 영거가 이르면 축관이 혼백을 모셔다가 영좌로 나간다. 주독상을 혼백위에 두고 전을 차린다. 遺奠告辭를 드리고 싸왔던 포와 혜를 여겨와서 걸어 내고 술, 과일 또 젓갈로 바꾼다.

구(柩)가 이르면 집사가 먼저 자리를 펴고 두개의 등계(登几)를 널 두는 곳, 곧 경주소 자리에다 둔다. 널을 받들어 모시되 머리를 북쪽으로 한다. 맺던 구를 전부 풀고 공포로 그 널을 덮고 구의(널을 싸왔던 옷)로 덮는다. 집사가 명정을 가져다가 막대기를 빼내고 널 위에 엎어 놓는다. 주인이하 자기 자리에 가서 실컷운다.

무덤안의 먼지를 쓸때에는 정결하도록 힘써야 한다. 광을 발랐던 종이로서, 광중 네귀를 발라서 싸리나무 못을 가지고 종이 끝을 金井안팎에 붙인다. 널을 모셔 옆에다 옮겨 놓고 下棺時를 기다린다. 땀(窓)을 광에 넣는 것을 말한다. 窓曠을 뜻한다. 구를 합장할 때는 그위를 가지런히 해야 한다. 주인형제는 곡을 그치고 하관을 가까이서 직접 들여다 본다. 자세히 살피고 힘써 운구하되 잘못 기울거나 떨어트리거나 요동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상여에 있는 물이 흔들리지 않도록해야 예의에 맞는다.

“어화넌차넘어요(어화넌차너호)”라는 후렴은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다. 실제 옛날에는 상여위에 물을 얹고 갔으며, 그 물이 흔들리지

앞토록 상여가 운구 되어야 했다. 이는 죽은 분에 대한 예의와 경의 표시이다. 제주도를 비롯한 경상북도, 황해도, 평안남북도에서는 出喪전날에 상두꾼들이 빈상여에 복인을 태우고 발맞춰 마당을 몇바퀴 돌면서 노는 “상여놀이(일명 테울, 새우도움)”를 했으며 이는 다름 아닌 다음날 상여를 짊어 달라는 출상연습인 것이며, 거문도에서는 “생여놀이”라고 했는데 이때 춘향전, 흥부전등의 판소리가 가창 되기까지 한다. 장지로 향하는 운행은 방상씨가 선두로 서서 진행되며, 요령잡이가 상여의 앞 또는 위에서 요령을 흔들며 가며 향두가를 선창하면 상두꾼들이 일제히 받아가면서 따라간다. 영구가 장지에 도착하면 정상(停喪)의식이 있고, 천광과 灰隔, 도광, 하관식이 있다.

이어 封墳하고 莎草하고 誌石을 묻고 成墳하면 卍土祭를 드리고 신주를 요여에 모시고 집으로 돌아온다.

IV. 결 론

위의 설명을 통하여 회성「회다지 소리」에 대하여 작품의 배경과 성격 및 내용은 물론 이와 연관된 장례의식을 논하므로써 의식행사의 한 부분이 민중 예술로 승화 될 수 있었던 가치를 재고하여보고 그 중요성을 알아 보았다.

여기에서 예술적인 의미를 떠나 한국의 상여는 하나의 집을 상징하였으며 죽음이 영원한 종말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의 출발을 말하는 강렬한 내세관과 윤회의 철학을 발견하게 된다.

상여를 타고 우리의 조상은 한층의 흙으로 돌아 간 것이 아니라 아주 理想的인 좋은 집으로 바뀌가는 것을 상징하고 그렇게 믿고자 하였다.

다만 이승의 집에서 저승의 집으로 바꾸어 돌아간다고 믿는 것이었을 뿐이다. 이는 단적으로 보아 風水地理學상 양택과 음택을 가리는 것만으로 짐작이 간다. 양택은 세상에 사는 집을 뜻하나 거기에 반하여 음택은 術家에서

“뫼”를 “사람사는 집”에 비유하여 일컫는 것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인간은 죽어, “뫼”라는 집으로 간다. 그러기에 단군도 죽어서, 뫼로 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집은 인간이 태어난 높은 곳 산에 있다. “뫼山”자에서, 뫼는 곳 산이요 산은 곳 뫼인것이다. 상여나 묘의 봉분은 산의 형상이면서도 알의 형상이다. 선인들은 상여를 집의 형상으로 암유적으로 형상화시켰고 또한 生生力을 상징하는 일에 암유시키고 있다. 그러기에 죽은 사람은 死者의 집인 幽宅으로 집을 옮겨 살려, 갈 뿐이다. 즉 <뫼(알)> → 이승의 집 → 뫼(알) → 이승의 집 → 뫼(알) → 이렇게 우리 인간은 반복하며 윤회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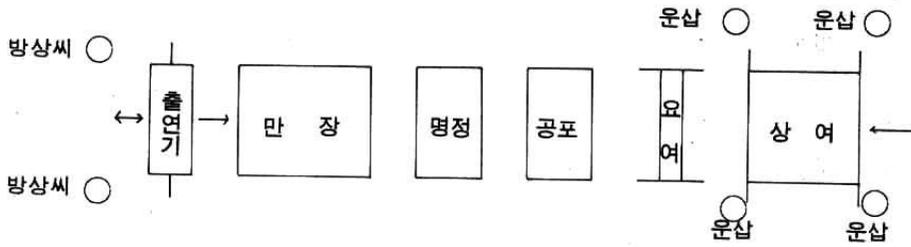
輓歌, 곧 상여소리를 통하여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대학이 서려있고 그곳엔 한국인의 철학관과 내세관이 짙게 투영되어서 오늘날 까지 전승되어 왔다.

아무튼 이 「회다지소리」에는 우리 선열의 숨결과 생활과 이상과 염원이 함축된 혼과 맥이 흐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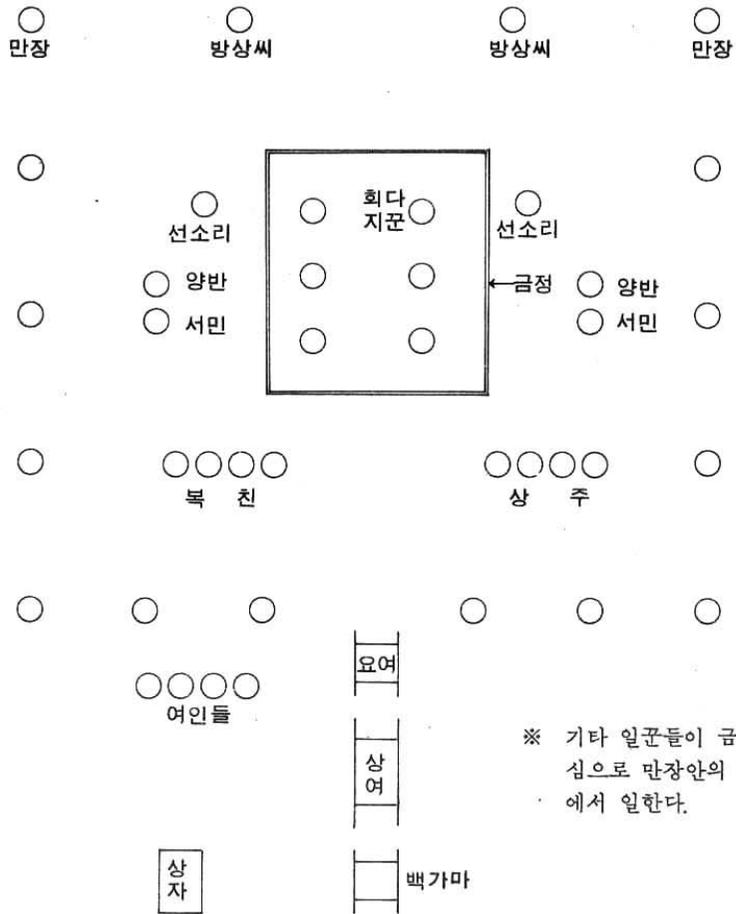
그것에는 망자의 인생이 있고 이생이 있으며, 생자에게 도덕과 교훈이 있고 친척과 이웃이 있고 벗이 있으며, 협동과 단결이 있으며, 희망과 기쁨이 있고 사랑과 슬픔이 있으며, 종교와 철학이 있고 소망과 내일이 있었다.

이 오랜세월을 조상의 지혜와 슬기, 그리고 얼과 혼이 알알이 모여서 이루어진 이 「회다지 소리」는 우리고장의 빛나고 값진 역사이며, 문화 유산으로 길이 후손에 물려지도록 우리모두가 아끼고 보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그속에 내재된 깊고 심오한 철학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윤리관 이요 도덕율로서, 재조명하는 노력을 기울리,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선 인 행 진 순 서



선소리기본배치도



※ 기타 일꾼들이 금정을 중심으로 만장안의 적의위치에서 일한다.

附 錄

횡성문화원 임원 명부

구 분	직 책	성 명	주 소	비 고
상임고문 고 문 자문위원	대한노인회 횡성군 지부장	정 호 일	횡성읍 읍상리	
	국 회 의 원	김 용 대	횡성읍	
	"	김 병 열	원주시	
	횡 성 군 수	장 재 현	횡성읍 읍하리	
	횡성군교육장	류 흥 수	" 읍하리	
	횡성경찰서장	라 상 극	" 읍상리	
	농협횡성군지부장	원 후 식	" 읍상리	
	횡 성 읍 장	김 상 결	" 마산리	
		조 철 한	" 읍상리	
		정 연 덕	갑천면 구방리	
구 분	사 회 직 위	성 명	주 소	비 고
운영위원	대 건 사 장	이 철 구	횡성읍 읍하리	
	세경건설사장	송 인 호	"	
	위 생 협 회 장	정 병 용	"	
	횡성양조업사장	한 상 근	"	
	대양산업사장	정 제 향	"	
	의용소방대장	김 용 표	" 마산리	
	대일건업사장	이 원 섭	" 읍하리	
※ 이 사 진				
직 위	사 회 직 위	성 명	주 소	비 고
원장직대 이 사 이 사	치 과 의 원 장	한 중 회	횡성읍 읍하리	
	강원일보보급소장	김 정 기	" 마산리	
	가축병원장	홍 재 욱	" 읍상리	

직 위	사 회 직 위	성 명	주 소	비 고
이 사	창봉국교교감	이 연 승	횡성읍 입석리	
"	사 법 서 사	정 운 채	" 읍상리	
"		이 관 술	" 읍하리	
"	횡성주류합동사장	박 총 원	" 읍상리	
"	교 사	이 병 현	" 입석리	
"	백합영상회장	조 경 택	" 읍상리	
"	약 사	김 정 응	"	
"	종 합 가 구	도 회 관	"	
"	약 사	박 순 갑	둔내면 자포리	
"	두산농상소장	민 인 기	횡성읍 읍상리	
"	대현석유사장	김 상 원	"	
"	함발집대표	김 명 수	"	
"	공근양조장사장	이 종 성	공근면 학담리	
"	어 사 매 회 장	이 상 천	횡성읍 읍하리	
감 사				
회 원	공 무 원	박 순 옥	횡성읍 읍하리	
"	상 업	황 환 신	"	
"	단 협 장	김 천 실	" 읍상리	
"	상 업	한 상 동	"	
"	상인조합이사장	민 영 석	"	
"	동 광 라 사	이 일 영	"	
"	공 무 원	유 경 희	" 입석리	
"	"	남궁 선	" 읍하리	
"	상 업	한 상 인	"	
"	교 사	김 성 기	" 가담리	
"	공 무 원	윤 춘 식	" 읍상리	

직 위	사 회 직 위	성 명	주 소	비 고
회 원	공 무 원	탁 회 봉	횡성읍	
"	상 업	유 수 문	"	
"	"	장 용 환	"	
"	교 사	유 장 회	"	
"	농 업	이 종 근	"	마산리
"	신 협 상 무	원 충 호	"	읍상리
"	토 건 업	김 영 일	"	
"	축 협 조 합 장	엄 기 호	"	곡교리
"	교 사	권 용 환	"	읍상리
"	축 산 업	진 기 원	"	입석리
"	인 쇄 업	정 두 영	"	읍하리
"	공 무 원	고 락 홍	"	교향리
"	공 상 업	김 인 수	"	읍상리
"	상 업	진 기 범	"	
"	교 사	정 재 영	"	읍하리
"	공 무 원	전 인 환	"	학곡리
"	공 상 업	최 세 근	"	읍하리
"	상 업	윤 재 기	"	읍하리
"	한 약 방	함 소 훈	"	읍상리
"	상 업	채 수 연	"	
"	정 미 업	김 시 중	"	
"	상 업	전 준 표	"	입석리
"	단 협 직 원	허 남 열	"	읍상리
"	교 사	허 양 회	"	읍하리
"	공 무 원	김 승 기	"	읍상리
"	교 사	한 상 일	"	
"	교 사	조 대 식	"	
"	상 업	오 상 권	"	읍하리
"	학 원 장	박 용 식	"	
"	교 사	박 순 민	"	

어 사 매 회 원 명 부

직 위	성 명	직 장	주 소	비 고
회 장	이 상 천	횡성 목욕탕	횡성읍 읍하 1 리 90-5	2607
부 회 장	이 경 숙	청 일 중 학 교	" 청일면	2417
총 무	이 문 환	성 북 국 교	" 읍상리 295	2242
회 계	최 금 석	군 무 원	" 읍하리 312	2962
감 사	박 순 민	횡 성 국 교	" 입석리 5 반	2486
"	김 인 숙	꽃 돌	" 읍하 4 리 5 반	3151
음악지부장	박 용 식	에리제피아노학원	" 읍하 2 리 3 반300	3320
미술지부장	서 용 운	문 화 실	" 읍상리	44- 8759
무용지부장	김 인 숙	예인무용연구실	" 읍하 2 리 293-7	2835
연극문학 "	이 상 천	횡 성 탕	" 읍하 1 리 90-5	2607
정 회 원	김 규 대	공 근 중	횡성군 공근면	
"	박 근 부	우 천 중	" 우천면	홍 3776
"	오 상 건	부 립 왕 갈 비	횡성읍 읍하 1 리 79-5	3206
"	이 명 진	태 평 양 회 관	" 읍하 1 리 69	2962
준 회 원	조 혜 영	상 지 대	" 읍상 4/4	2164
"	송 소 영		" 추동리 4 반	3979
"	이 아 영		" 읍상 1 리 5 반	2178
"	김 영 란	셀 제 약	" 읍하리	3311
"	임 채 순	형 제 광 고	" 읍상리	2949

※ 편 집 후 기 ※

한 두잎 낙엽이 질무렵, 두번째 책을 내고자 모였었는데 벌써 창밖은 온통 은세계로 변하고 붓을 잡은 손이 시리다.

가까이 멀리 계신 분들이 보내주신 옥고를 그르치지 않고자 애썼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기고하여 주시고 자료를 보내주신분들과 함께 참여하고 도와 주신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이책이 작으나마 우리고장의 문화와 예술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차츰 나아지는 느낌으로 속으로 웃어본다.

모이다 보니 편집자 4명이 모두 안경쟁이다.

뒤아오는 3,4,5,6호의 새봄은 새벽녘의 동쪽 하늘을 빛내는 샛별처럼 빛날런지.....

봄을 기다리면서

편집위원 : 김 정 기 이 연 승
정 재 영 김 승 기

발행인 : 한 중 희
발행일 : 1984. 12. 31
인 쇄 : 서 원 사



韓重熙齒科醫院

院長 韓 重 熙

흥성읍 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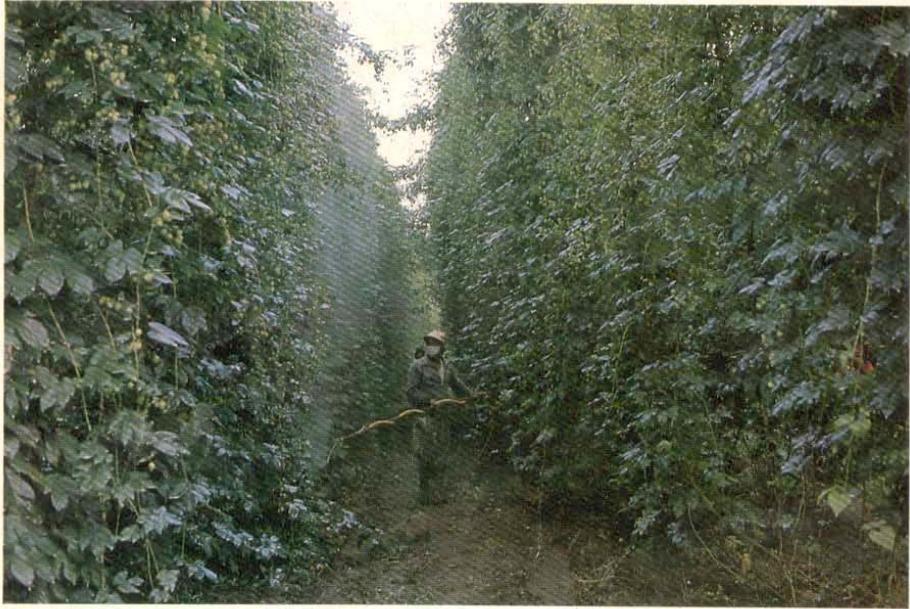
전화 : 2579

보건약국

약사 정 영 순

전화 : 2851





斗山農産(株)

横城喜三事業所